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선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선

인 준 서

박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황진이 설화를 수용한 여러 장르 중에서 서사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구비한 황진이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적 수용 및 변용을 검토하여, 황진이 설화의 수용사적 의미와 고전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설화 및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황진이 이야기를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교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최후 기록 등 황진이의 생애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황진이라는 인물이 지닌 총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황진이 설화를 세밀하게 정리·보완하는 한편 이러한 서사적 흐름이 근현대 이후 황진이 소설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고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황진이 소설의 전개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930년-195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황진이의 모습은 설화의 내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30년대 이태준의 『황진이』에서 설화가 소설로 형성된 배경을 당대 역사소설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1950년대 작품인 박종화의 단편 「황진이의 역천」과 정한숙의 장편 『황진이』를 살펴보았다. 박종화는 설화의 원형을 그대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정한숙의 작품은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 1970년대 이후 황진이 소설은 초기소설의 경향을 이어서 황진이 설화를 계승·변용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모 양상을 최인호·한무숙·정비석의 작품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000년 이후 황진이 소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김탁환·전경린·홍석중의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세 작품은 황진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작가마다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주 있는 기생의 이미지로 고정 관념화된 황진이가 아니라 학인(學人)이자 자유인, 참사랑의 실천인 등 다양

한 인물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를 통해 황진이 설화라는 원천소스의 전통이 현대에도 꾸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작가들이 황진이 설화를 작품의 모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진이 문학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이 투영되는 동시에 여러 장르와 교섭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왔다. 황진이가 직접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기록한 문헌들로 확대·재생산됨으로써 황진이라는 인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황진이 설화라는 원천소스를 토대로 현대 작가들은 황진이의 작품세계와 삶의 행적을 재구성하였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로 재생산하였다. 즉, 황진이 설화와 소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면서 황진이 문학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이 고전과 현대의 단절이 아니라 꾸준한 계승과 변용을 거쳐 연속선상에 놓인 장르라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황진이 문학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대 현실이 반영되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담은 결정체이다. 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는 황진이 문학을 통해, 황진이라는 500여 년 전 인물이 현재의 독자들에게 꾸준히 의미를 던져주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문학적 가치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황진이, 황진이 설화, 황진이 소설, 예인, 학인, 기생, 기명, 재색, 교유인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I. 황진이 설화의 전개	20
1.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20
1) 성명(姓名)과 기명(妓名)	20
2) 출생	23
2. 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	26
1) 문학적 재능	26
2) 음악적 재능	30
3) 성격과 외모	33
3. 교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37
1)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모습	37
2) 예인(藝人)으로서의 모습	40
4. 최후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	54
III. 황진이 설화의 소설적 변모	59
1. 1930년-1950년대 소설 속 황진이	59
1) 봉건적 유교이념의 반항자 - 이태준의 『황진이』	63

2) 설화에서 복원된 여성시인 -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	68
3) 육체적·정신적 사랑의 실천인 - 정한숙의 『황진이』	71
2. 1970년대 소설 속 황진이	75
1) 억압된 욕망의 구현자- 최인호의 「황진이」	75
2) 여성의 시각으로 본 선망의 대상자- 한무숙의 「이사종의 아내」	79
3) 여성적 매력이 강화된 재능인- 정비석의 『황진이』	82
3. 2000년 이후 소설 속 황진이	88
1) 새롭게 부활한 학인(學人)- 김탁환의 『나, 황진이』	91
2) 민중과 낭만적 사랑의 주체자 - 홍석중의 『황진이』	101
3) 박애적 사랑의 실천가 - 전경린의 『황진이』	110

IV. 황진이 문학의 가치와 의미 125

V. 결론 131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례

<표1>황진이 관련 문헌	12
<표2>황진이 소설 작품연보	16
<표3>문헌에 나타난 황진이의 성명	21
<표4>황진이 설화가 수록된 문헌과 내용	57
<표5>이태준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68
<표6>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69
<표7>정한숙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74
<표8>정비석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84
<표9>2000년 이후 소설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 모티프	90
<표10>작가별 황진이 모티프의 수용 및 변용 양상	121

I. 서론

1. 연구 목적

고전이 현대의 작품으로 재생산되는 일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역사적 사실과 영웅담에 중점을 둔 거대서사가 대부분이었다. 고전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최근의 작품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의 내면과 일상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과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¹⁾ 황진이를 소재 및 모티프로 활용한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황진이는 시대를 초월해 인기 있는 역사적 여성 인물로 향유되었고, 작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창작의 소재가 되어왔다.

황진이의 행적을 다룬 문헌설화와 구비설화·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수용하여 편찬자가 평을 덧붙인 시평집에 이르기까지 황진이 관련 기록은 다양한 문헌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들을 토대로 1936년 이태준은 처음으로 황진이를 소설로 형상화했다. 이후 여러 작가들에 의해 황진이는 지속적으로 소설화되고 있으며, 희곡·시·수필 등²⁾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공연 등의 다양한 장르³⁾로 확산되면서

-
- 1) <다모>(2003)에서 시작하여 <대장금>(2004), <황진이>(2006), <선덕여왕>(2009)으로 이어진 드라마, <왕의남자>(2005), <황진이>(2007), <궁녀>(2007), <쌍화점>(2008)으로 이어진 영화, 『칼의 노래』, 『미실』, 『남한산성』, 『바람의 화원』 등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에서 역사 속 인물들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캐릭터 위주의 영웅이야기, 정치 중심적인 테마, 주로 궁중 여인이나 양반가의 여인에 집중되었던 기존 역사물에서는 중심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다모, 의녀, 기녀 같은 소수자들의 부각은 최근 유행하는 역사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희곡으로는 구상의 『황진이』(『구상문학총서』 4, 홍성사, 2005)와 윤정선의 「자유혼-황진이의 생애」(『윤정선 희곡집』, 청하, 1988)가 있으며, 수필로는 문화영의 『황진이, 선악과를 말하다』(아루이프로덕션, 2005)가 있다. 시집으로는 김남환의 『황진이와 달』(복지문화사, 1986)과 홍성란의 『황진이와 별곡』(삶과 꿈, 1998)이 있다. 이 외에도 신동엽·서정주·고정희·조예린·문정희 등이 쓴 여러 편의 시들과 각색된 어린이용 동화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 3) 영화 5편, 연극 2편, 여성극극 3편, 뮤지컬 1편, 창작 오페라 1편, 드라마 1편, 마당놀이 1편(이현경, 「현대영화가 ‘황진이’를 소환하고 재현하는 방식 -<황진이>(배창호, 1986)와 <황진이>(장운현, 2007)를 중심으로」, 제 8차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하계 워크샵 자료집, 2007, 참조) 등이 있다. 최근 국립 국악원에서 열린 <소리극 황진이(黃眞伊)>(2009년 11월 26일-11월29일)도 있다.

재생산되었다. ‘황진이 설화’ 4)는 오늘날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중의 하나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는 고전이 시대적 생명력을 지속해 가는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고전은 현재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모든 예술 영역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원천소스로 작용한다. ‘고전의 콘텐츠화’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도 고전과 콘텐츠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고전을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미 콘텐츠화된 작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소스를 재현하고, 여기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숙한 서사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황진이 설화의 분석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황진이 설화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마련된 근거의 틀을 토대로 황진이 설화가 문학적 소통 및 장르교섭을 거치면서 ‘황진이 소설’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황진이 설화가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될 수 있는 근거와 500여 년 전의 인물이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꾸준히 향유될 수 있는 가치와 생명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범주를 설정해보기로 하겠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황진이 설화’가 논의될 것이며, III장에서는 ‘황진이 소설’이 논의될 것이다. IV장에서는 ‘황진이 문학’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학사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할 것이다. 황진이와 관련된 문학에는 황진이가 창작한 한시와 시조, 황진이의 삶과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하여 재생산된 문헌설화, 구비설화, 시평집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의 삶이 기록된 문헌 전반을 통합하여 ‘황진이 설화’라고 하였다. 각 문헌의 성격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큰 범주인 설화로 통합한 이유는, 문헌의 서술양식 때문이다. 당시에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 기록한 것이 설화이다. 정사(正史)의 기록에는 없는 황진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기록된 것도 바로 설화였다. 특히 황진이 설화는 문헌설화로 전해왔는데, 문헌설화는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며, 연구 가치도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도 중점적으로 문헌설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황진이 설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 전반을 ‘황진이 소설’이라고 하였다. 황진이 설화와 소설은 서사라는 동일한 맥락을 구비하고 있으며, 황진이라는 인물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한 황진이 설화와 소설 전반을 ‘황진이 문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황진이 문학’은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과 생애만을 논의하여 황진이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 및 그녀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이야기 전반을 의미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설화’와 ‘황진이 소설’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 역시 황진이 설화가 현대소설에 수용되고 변용되는 양상 즉, 고전의 현대적 수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황진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물 속에서 본 논문의 방향과 부합되는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과 관련된 고전문학 분야의 연구와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소설화된 작품에 관한 현대문학 분야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연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고전문학 분야의 황진이 관련 연구는 황진이가 창작한 한시와 시조의 구성 요소들을 연구한 작품론⁵⁾, 문헌설화에 나타난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황진이의 생애를 추정한 작가론⁶⁾, 작가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작품까지 포괄한 연구⁷⁾, 국·내외 시인과의 비교 연구⁸⁾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다. 그러나 작품론과 작가론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에 비해 황

5) 최동호,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고려대학교 어문논집』 18, 고려대학교, 1977 ;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sion」,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1980 ; 김용덕, 「황진이의 시조론」, 『한양대 인문논총』 4, 한양대학교, 1982 ; 정상균, 「황진이 연구」, 『미원 우인섭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미원 우인섭 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 조세형,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공인식」,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2 ; 윤재철, 「黃眞伊 研究」, 『청람어문학』 12, 청람어문학회, 1994 ; 이화형, 「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 김홍년, 「황진이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상진, 「기녀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팜므파탈」,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6) 이병기, 「황진이의 예술」, 『춘추』 4, 조선춘추사, 1941 ; 김용숙,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 『청과문학』, 숙명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회, 1960 ; 전규태, 「황진이론」, 현대시조학회 편저,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황순구, 「황진이론」, 『시조문학』 88, 시조문학사, 1988.

7) 박영신, 「황진이의 문학연구: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강전섭 편,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6 ; 김정미, 「황진이 연구: 삶·문학·의식세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8) 김동욱, 「황진이와 허난설헌」, 『현대문학』 9, 현대문학사, 1955 ; 박영완,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하성란, 「‘허난설헌’과 ‘황진이’의 문학에 대한 페미니즘의식 연구」, 『강남어문』 9, 강남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6 ; 성기서, 「셰익스피어와 황진이의 이별시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진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설화 자체의 문학성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황진이와 관련된 설화가 여러 문헌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일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문학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진이 설화의 문학성에 주목한 연구자로 이동준·구선우·임주탁을 들 수 있다.

이동준⁹⁾은 황진이 설화도 그녀의 작품이나 생애와는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진이 설화의 전승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문헌 간의 시간적 공백에 숨어있는 구전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황진이 설화가 사회적 모순에서 야기되는 민중의 불만을 대변하고, 또 이러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출·해소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수촌만록』과 같은 시화류(詩話類)도 설화의 큰 범주로 포괄·해석하여 시화적(詩話的) 특성을 간과하였다.

구선우¹⁰⁾는 시화류(詩話類)에 대한 시문학적(詩文學的) 논의가 간과된 이동준의 한계를 보완하여 포괄적인 설화군 연구에서 시화류를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황진이의 한시와 시조에 드러난 시적 표현 양상을 통해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의식지향과 특징을 파악한 후 황진이 시문학을 수용한 시화와 황진이의 일화를 수용한 설화를 대상으로 후대 수용자의 편찬 의식까지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황진이와 관련된 한시·시조·시화·설화를 총체적으로 살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황진이 문학이 후대에 수용된 양상을 오늘날의 멀티유즈(Multi Use)의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임주탁¹¹⁾은 황진이 시조 작품들은 창작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 문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화와 시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이 황진이 시조를 애정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인 ‘황진이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임주탁은 이야기 문맥을

9)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1997.

10) 구선우, 「황진이 문학의 주제지향과 후대적 수용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고려하여 황진이 시조를 해석함으로써 황진이 작품의 새로운 이해와 평가의 길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고전적인 시각에서의 황진이 설화의 소설적 변용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황진이 설화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황진이 소설을 분석한 박광용과 김탁환의 논의는 주목된다.

박광용¹²⁾은 역사가의 입장에서 역사소설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고, 문학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이 일치될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황진이 관련 문헌설화를 인간으로서의 성취로 보는 관점(『어우야담(於于野談)』), 사대부 명문대가의 관점(『송도기이(松都記異)』), 변혁적 기질을 지닌 필자의 관점(『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 명분론에 입각한 가부장제적 입장의 관점(『송도인물지(松都人物志)』) 등으로 나누고, 황진이의 진면목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료로 『어우야담(於于野談)』을 꼽았다. 박광용은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허균의 관점을 기준으로 여러 전승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김택영의 관점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았다. 반면 이태준의 『황진이』는 당대 건문이 바탕이 된 직접 사료는 물론 『대동기문(大東奇聞)』 같은 후대의 간접 사료와 관련된 시가들을 다 섭렵한 후, 이를 줄거리와 일어난 순서에 맞게 소화해서 풀어낸 역사소설의 전형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문학적 형상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비평가들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태준의 『황진이』가 황진이 소설의 출발점이 되어 후대의 작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모해 온 황진이 소설의 특성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한 채 후대의 황진이 소설을 평가한 아쉬움도 있다.

김탁환¹³⁾은 황진이 설화와 이태준의 『황진이』를 통해 ‘실존인물의 삶

12) 박광용,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역사소설과 사료 해석 : 홍석중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13) 김탁환, 「역사인물소설 창작방법론 서설」, 『한국언어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이 논문

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태준의 『황진이』에서 이태준이 관련기록들을 얼마나 수집하였고, 또 기록들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를 밝힘으로써, 그가 지닌 역사소설 창작방법의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태준이 참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밝히기도 했다. 황진이의 삶을 남녀 문제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랑 외에 황진이가 가졌을 법한 신분에 대한 고민, 시와 음률에 대한 열망, 시대에 대한 분노, 개성이라는 도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 등 인간 황진이의 다양한 내면을 추적할 수 있는 소설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김탁환의 논의는 황진이 관련 문헌을 토대로 고전적인 시각에서 황진이 소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작품 중의 하나인 『나, 황진이』의 작가이기도 하다. 김탁환은 황진이 설화를 소설화하면서 탄탄한 고증작업을 거쳤다는 점에서 여타 현대소설 작가들이 시도한 황진이 소설 창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 또한 김탁환이 제시했던 고전적인 시각¹⁴⁾을 참고하여, 황진이 소설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황진이를 모티프로 하여 소설화된 작품에 관한 현대문학 분야의 연구는 많은 편이며, 특히 2000년 이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를 역사소설로서의 황진이 소설 연구, 황진이 소설을 비교한 연구, 황진이 소설의 내적인 면에 주목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은 『한국소설 창작방법 연구』(문경출판사, 2002)에도 재수록 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 소설 창작방법 연구』를 참고하였다.

14) 제 8차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하계 워크숍 <역사의 허구화 과정과 젠더 :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2007)에서 김탁환은 박유희(「2000년 이후, 서사매체에 나타난 역사 속 여성의 허구화」)발표의 토론자였다. 김탁환은 토론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황진이 소설분석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황진이 소설을 비교함에 있어 주인공의 특성에만 집중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분법으로 가거나 양비론의 관점이 아니라 “황진이가 남긴 한시와 시조의 수준은 당대에서 어느 정도였는가. 또한 황진이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책들을 읽으며 수련했는가. 황진이가 교유한 이들의 경향과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황진이가 살았던 송도에 대한 묘사와 풍습이 16세기와 부합되고 있는가. (중략) 이태준이든, 홍석중이든, 전경린이든, 김탁환이든, 그 네 작품을 펼쳐놓고, 이 작가들이 얼마나 황진이다운 황진이를 살렸는지를 한국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황진이 소설은 역사적 인물인 황진이의 삶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소설¹⁵⁾의 범주에 포함되며,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박미현·전현례·김병길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미현¹⁶⁾은 작품론적 입장에서 홍석중의 『황진이』가 가진 주제 의식과 그것을 형상화하는 형식상의 특질에 주목하였다. 비교 텍스트로 김탁환의 『나, 황진이』를 선택하였고, 홍석중 작품의 특질을 구술적 어휘의 사용, 사건과 성격의 교직, 서술자의 서술상황의 개입 등으로 규명하였다.

전현례¹⁷⁾는 1930년대 이태준의 『황진이』, 1970년대 유주현의 『황진

15) 황진이 소설의 역사관련 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병구, 「이태준의 역사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대영, 「상허의 장편소설 연구」, 『어문연구』 23, 충남대어문연구회, 1992 ; 이명희, 「황진이·왕자호동의 역사소설적 의미」, 『이태준 문학 연구』, 깊은샘, 1993 ; 최소영, 「이태준 신문연재소설 연구-독자 공감요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복남,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진, 「이태준의 『황진이』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병렬, 「역사적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이태준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송실어문』 14, 송실어문학회, 1998 ; 임관수, 「이태준의 역사소설 연구」, 『論文集』 16, 충청대학교, 1999 ; 오윤호, 「깨어진 역사history, 다시 쓰는 역사herstory」, 『문학과경계』 7, 문학과경계사, 2002 ; 공임순, 「거울에 비친 조선, 조선적인 것 : 황진이라는 키워드」, 『문학과 경계』 9, 문학과 경계사, 2003 ; 박광용, 「역사소설, 무엇이 문제인가- 황진이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6, 문화사학회, 2003 ; 박태상, 「생동한 인물 성격 창조와 작가의 창발성 : 북한 역사소설 『황진이』에서 드러난 사랑의 묘약 : 북한원전소설 「황진이」」, 『통일문학』 3, 통일문학사, 2003 ; 박태상, 「북한소설 『황진이』 연구」,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 김종욱, 「역사, 혹은 다시 쓰인 이야기 : 전경린의 『황진이』와 김훈의 『현의 노래』를 통해 본 2004 문학계」, 『문화예술』 30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허명숙, 「역사적 인물의 대중적 형상화: 김훈의 『칼의 노래』와 전경린 『황진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4, 2004 ; 고명철, 「역사소설의 새로움을 위한 진통 : 김훈, 김별아, 전경린의 작품을 검토하며」, 『비평과 전망』 9, 새움, 2005 ; 임규찬, 「역사소설의 최근 양상에 관한 한 고찰 : ‘황진이’의 소설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2005 ;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황국명, 「남북한 역사소설의 거리- 『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 김재용, 「남과 북을 잇는 역사소설 『황진이』」, 김재용 편,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南의 평론가가 읽은 北의 소설 『황진이』」, 대훈, 2006 ; 박광용,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역사소설과 사료 해석 : 홍석중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 이상숙, 「홍석중과 그의 역사소설이 갖는 의미 : 홍석중 작가론」, 『문학과경계』 20, 문경 book&trans, 2006 ; 임현영, 「역사문학의 변증법적 전개」, 김재용 편, 앞의 책 ;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감각들- 김영하의 『검은꽃』과 홍석중의 『황진이』」, 김재용 편, 위의 책 ; 박미현, 「홍석중의 역사소설 『황진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현례, 「『황진이』 소재 역사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고명철, 「『황진이』 서사」를 다른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홍석중과 김탁환의 『황진이』 서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6,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6) 박미현, 「홍석중의 역사소설 『황진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 전현례, 「황진이 소재 역사소설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 2000년대 홍석중의 『황진이』 분석을 통해 황진이 소설의 역사적 변용 과정과 시대적·작가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의 황진이 소설 연구는 각 작품이 드러낸 차이와, 시대적·작가적 변별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병길¹⁸⁾은 황진이 서사의 재생산 과정에서 역사소설의 창작 및 유통·소비 구조의 한 전범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 매커니즘의 담화적 특질에 주목하여, 황진이 관련 문헌 자료 및 그 수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재확인하였다. 김병길은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의 최초 발표지면 텍스트를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최초 텍스트와 단행본으로 출간된 텍스트는 작가 혹은 편집자의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황진이 소설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되,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어 황진이 소설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황진이 소설을 비교¹⁹⁾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미영²⁰⁾은 황진이 소설의 출발점인 이태준과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황진이의 여성성과 작품마다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양상을 살폈다. 기생의 유희적 사랑(이태준), 저항자의 낭만적 사랑(홍석중), 고백자의 이성적 사랑(김탁환), 자유인의 이타적 사랑(전경린)으로 유형화해서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었다.

전명희²¹⁾는 김탁환의 『나, 황진이』와 홍석중의 『황진이』를 통해 남

18)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9) 임금복, 「새로 쓴 『황진이』 연구」,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황도경, 「황진이, 꽃으로 피다: 홍석중과 전경린의 ‘황진이’」, 『문학동네』 41, 문학동네, 2004; 김경연,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 『오늘의 문예비평』 57, 세종출판사, 2005; 우미영, 「복수(複數)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 최근의 ‘황진이’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12, 여이연, 2005; 김재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의 문학과 『황진이』」, 김재용 편, 앞의 책; 김미영,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전명희, 「남북한 문학 속에 투영된 여성미 비교고찰」, 『비교한국학』 15,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이정선, 「소설화된 황진이 이야기의 복합적인 과문: 새천년 초두의 세 명의 황진이 이야기」, 『한국문학평론』 34,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8.

20) 김미영,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21) 전명희, 「남북한 문학 속에 투영된 여성미 비교고찰」, 『비교한국학』 15,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과 북의 서로 다른 여성미에 대한 관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과 북은 각자의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 변화의 시점을 두 편의 장편소설을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황진이 소설의 내적인 면에 주목²²⁾한 논의로는 김재용과 우미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재용은 홍석중의 『황진이』 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편찬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며, 홍석중의 『황진이』 를 소개하는 글²³⁾을 최초로 썼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김재용은 북한소설 김문창의 『열망』 과 강선규의 『교정의 윤리』 를 비교 고찰하면서 홍석중의 『황진이』 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였다. 일련의 북한 문학작품들이 북의 사회 내부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같은 내면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음을 밝히며 북한 문학의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우미영²⁴⁾은 황진이를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설화적 인물-전승되는 이야기 속에서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인물로 보았다. 황진이라는 실존인물이 설화적 존재로 구성되는 방식을 『별건곤』 에 실린 한용운의 기록,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후반에 걸쳐 쓰인 글들, 조선시대의 황진이에 관한 담론까지 포괄하여 살피고, 허구성의 내적 의미를 짚었다. ‘황진이는 우리 문화사에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문화 예술적 모티

22) 남운, 「김탁환의 『나, 황진이』 에 나타난 담론 전략과 전술의 이해」, 『외국어교육』 6,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부, 2003 ; 민충환, 「‘황진이’의 서울 나들이」,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연구원, 2004 ;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윤문희, 「황진이 설화의 의미 생성과 변모」,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 김경연, 「‘황진이’의 서사적 변형과 생산에 관한 고찰」,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2006 ; 민충환, 「『입격정』 과 홍석중 소설에 나타난 우리 말」, 김재용 편, 앞의 책 ; 오태호, 「북한소설 『황진이』 에 나타난 ‘낭만성’ 고찰 : 홍석중의 『황진이』 론」, 『문학과경계』 20, 문경book&trans, 2006 ; 이혜경, 「이념과 실천의 변주 : 『황진이』 의 경우」, 『비평문학』 22, 심지, 2006 ; 임명진, 「민중의 사랑은 생태적이다 : 홍석중의 『황진이』 론」, 『창작21』 7, 2006 ; 안남연, 「황진이의 재조명」,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악어문학회), 2007 ; 고인환, 「홍석중의 <황진이> 연구 : 주인공의 현실인식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8, 한국문화회, 2008 ; 문효상, 「홍석중의 『황진이』 에 나타난 ‘육망’ 고찰」,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미영, 「이태준의 『황진이』 에 나타난 ‘고려’의 성격」, 『비교문학』 44, 한국비교문화회, 2008.

23) 김재용, 「“운우의 꿈을 깨니 일장춘몽이라...” :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 북한원전 소설 『황진이』」, 『통일문학』 제3호, 통일문학사, 2003.

24)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프인가?’ 를 그녀의 이야기가 정초되는 방식인 소문과 기이에 대한 관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황진이에 대한 서사 기록에서 우세한 고결함의 이미지가 양반 사대부의 도덕관 및 당대의 여성 섹슈얼리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밖에도 황진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²⁵⁾에 이르기까지, 황진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황진이란 인물 자체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장르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연구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평론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것에 비해 황진이 문학을 단독 주제로 심도 있게 접근한 한 석·박사 학위논문²⁶⁾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한 황진이 소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대물로 인정되어 고전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황진이 설화를 언급하고는 있다. 그러나 황진이 설화가 수록된 문헌들만 제시하거나, 유명한 에피소드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경향이 있다. 이것은 황진이 설화의 분석은 고전문학에서, 황진이 소설의 분석은 현대문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학문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승과 변용의 과정을 통해서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25) 신익철, 「야담문학의 활용과 TV드라마 ·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 『어우야담』 과 <왕의 여자> · <황진이>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 양정희 · 류은정, 「TV 드라마 <황진이>와 영화<황진이>의 의상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12, 창원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06 ; 박유희, 「2000년 이후, 서사매체와 역사 속 여성의 허구화- 2000년 이후 소설, 영화,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신원선, 「드라마 <황진이>의 대중코드 읽기」, 『민족문화논총』 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 이현경, 「현대영화가 ‘황진이’를 소환하고 재현하는 방식-<황진이>(배창호, 1986), <황진이>(장운현, 2007)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앞의 책 ; 태동숙 · 김경희, 「영상매체에 나타난 ‘황진이’ 이미지 연구」, 『생활문화연구』 23,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2008.

26) 현재까지(2009년 9월) 조사한 황진이 관련 학위 논문은 모두 49편이다. 국어교육 전공 21편에서는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과 그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주제가 대부분이며, 기타 전공 20편은 영화 ·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황진이 관련 주제가 대부분이다. 국어국문학 전공논문은 모두 8편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황진이 설화와 소설을 다루면서 황진이 문학전반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바탕으로 황진이 설화를 세밀하고 정치하게 정리·보완하는 한편 이러한 서사적 흐름이 황진이 소설 속에 어떻게 반영 및 투영되었는지를 고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의 설화는 중세나 근대의 문헌에 한자로 기록된 문헌설화와 현재 민간에서 구전되는 구비설화로 나눌 수 있다. 문헌설화는 국가를 건국한 국조의 이야기, 그리고 고승, 명장, 명신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구비설화는 흥미 중심의 허구화된 웃음거리의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문헌설화가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한자문화에 친숙한 사대부 취향의 이야기라면, 구비설화는 한자문화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즐겨 향유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²⁷⁾

황진이 설화는 대부분 문헌설화로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 계층의 문헌 속에서 전승되어 왔다.

황진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수록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이덕형의 『송도기이(松都記異)』, 허균의 『성용지소록(惺翁識小錄)』, 김택영의 『송도인물지(松都人物志)』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유몽인·허균·이덕형의 문헌은 황진이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므로 문헌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대부분은 유몽인이 경험하거나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며, 이덕형의 『송도기이(松都記異)』는 개성에 갔을 때 황진이의 친척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허균은 서경덕의 제자였던 아버지 허엽을 통해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황진이의 한시와 시조 작품들을 수록한 시평집 역시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황진이 관련 설화가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결과물로 전승된 것이다. 황진이에 대

27) 서대석, 「구비문학」,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35쪽.

한 기록이 전해지는 문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자료	저자	생몰 연대	발간 연도	황진이 관련 내용	연구 대상 28)
1	『어우야담(於于野談)』	유몽인	1559~1623	1621	서경덕·이사종 외	○
2	『송도기이(松都記異)』	이덕형	1566~1645	1631	출생·죽음·서경덕 외	○
3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	허균	1569~1618	1611	서경덕·이언방 외	○
4	『수촌만록(水村漫錄)』	임방	1640~1724	1724 전후	소세양	○
5	『소화시평(小華詩評)』	홍만중	1643~1725	1675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논평	○
6	『조야취언(朝野彙言)』	김시민	1681~1747	미상	『성옹지소록』을 모본으로 함.	×
7	『이순록(二旬錄)』	구수훈	1685~1757	1760전후	벽계수·율곡·송강·서애	○
8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금익	1736~1806	1911	『성옹지소록』을 모본으로 함.	×
9	『청비록(淸脾錄)』	이덕무	1741~1793	미상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논평	○
10	『중경지(中京誌)』	김이재	1767~1847	1824	출생 외	○
11	『금계필담(錦溪筆談)』	서유영	1801~1874	1873	벽계수	○
12	『송도인물지(松都人物志)』	김택영	1850~1927	1896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13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이능화	1869~1943	1927	『어우야담』·『송도기이』·『성옹지소록』을 모본으로 하였고, 황진이에 대한 이능화의 평	×
14	『청야담수(靑野談藪)』	편자미상		20세기 초 일 것으로 추정된다.	율곡·송강·서애에 대한 황진이의 평가	×
15	『기문총화(記聞叢話)』	편자미상			『어우야담』·『수촌만록』을 모본으로 함.	×
16	『동야집사(東野輯史)』	편자미상			『송도기이』를 모본으로 함.	×

<표1> 황진이 관련 문헌

<표1>은 황진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을 확인·정리한 것이다. 이외에도 황진이의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이 다수 존재하지만²⁹⁾, 기존

28) 이 표에서 (○)(×)의 기호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의 유무를 표시한 것이다.

29) 기존 연구에서 황진이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문헌은 임제(林悌, 1549-1587)의 『백호집(白湖集)』; 이덕형(李德炯, 1566-1645)의 『죽창야사(竹窓野史)』;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 심재(沈粹, 1624-1693)의 『송천필담(松泉筆譚)』;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김종필(金宗弼)의 『풍암집화(楓巖輯話)』; 홍중인(洪重寅, ?-1752)의

의 자료를 모본으로 삼아 축약·변용시킨 문헌, 동일한 서사가 수록된 문헌을 제외하고 <표1>에서 밝힌 10편³⁰⁾의 문헌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황진이와 관련된 구비설화는 문헌설화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다. 『구비문학대계』에서는 ‘황진이’라는 이름으로 구전되는 설화 3편³¹⁾과 황진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설화 1편³²⁾이 채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 1편³³⁾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황진이 보다는 다른 기생과 관련된 유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남한산성 이야기를 제외한 4편의 구비설화만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4편의 자료만으로는 황진이 구비설화의 전승양상과 유

『동국시화회성(東國詩話彙成)』; 안정복(安鼎福,1712-1791)의 『순암집(順菴集)』; 이궁익(李肯翊,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신위(申緯,1769-1847)의 『해동소악부(海東小樂府)』; 이규경(李圭景,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이원명(李源命,1807-1887)의 『동야회집(東野彙輯)』;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일사유사(逸士遺事)』; 편자미상의 『해동기화(海東奇話)』; 『계암만록(溪鴨漫錄)』 등이 있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4,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383-395쪽, 참고.

30) 본 논문에서 참고한 역서는 다음과 같다.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돌베개, 2006, 132-135쪽 ; 이덕형, 『송도기이』, 『대동야승(大東野乘)』 수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DB ; 허균, 『성웅지소록』, 『성소부부고』 제24권 설부(說部3)수록, 한국고전번역원, 앞의 자료 ; 임방, 『수춘만록』, 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2001, 139-140쪽 ; 홍만중, 『소화시평』, 안대회 역, 국학자료원, 1993, 372-373쪽 ; 구수훈, 『이순록』,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4,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390쪽 ; 이덕무, 『청비록』,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33권 「청비록」 2 시기(詩妓) 수록, 한국고전번역원, 앞의 자료 ; 김이재, 『중경지』,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7, 416-417쪽 ; 서유영, 『금계필담』, 김종권 교주·송정민 외 역, 명문당, 1985, 250-251쪽 ; 김택영, 『송도인물지』, 현대실학사, 김승룡 역, 2000, 202-205쪽. 이후부터는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편찬자와 문헌의 제목만 서술하도록 하겠다.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가 한 것이다.

31) 『한국구비문학대계』 4집 5책,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문담’, 1080-1081쪽,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 『한국구비문학대계』 6집 8책, ‘황진이 일화’, 740-743쪽,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9책, ‘송도 삼절’, 931-933쪽,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32) 『한국구비문학대계』 2집 7책, ‘기생이 된 재상의 딸’, 381-384쪽,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33) 송암정은 성 밖의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오르면 바위 절벽과 그 사이에 말라죽은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산성리 산 8-1번지에 해당되며 송암정 표지석은 성안에, 송암정의 바위와 고사옥은 성 밖에 서 있다. 옛날 황진이가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다가 하산하여 이 고을 지나는데 남자 수명과 기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때 술에 취한 사내가 황진이를 희롱하자 황진이는 개의 지 않고 그 사내에게 심오한 불법을 설교하였다. 이때 그 무리 중 감명을 받은 기생 한사람이 갑자기 절벽으로 뛰어 내려 자결하였다. 이 바위에 서 있는 고사목(소나무)은 정조가 여주 능행길에 ‘대부’ 벼슬을 내렸으므로 ‘대부송’ 이라고 부르는 그 소나무이다. 송암정은 우리말의 ‘술바위 정자’ 라는 뜻이다. (경기도 도립공원 남한산성 홈페이지- <http://www.namhansansung.or.kr>)

형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4편의 자료는 황진이 문헌설화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소설은 타 장르에 비해 가장 늦은 시기에 완성된 서사장르이다. 서사라는 동일한 맥을 소급해가면 소설은 설화와 만나게 된다. 지금도 신라 『수이전』 계열 및 많은 한문 단편들이 설화와 소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융통성 있게 장르가 적용되기도 한다.³⁴⁾ 황진이 설화가 소설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황진이 설화는 소설의 중심 서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은 황진이 소설의 초기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 속에서 설명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소설의 시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³⁵⁾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황진이 설화는 역사소설이 등장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빈도로 소설화된 소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작가	작품명	연재지 및 출판사	출판연도	출판 과정	출간 매체
1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 서점	1938	이태준의 『황진이』는 조선중앙일보에 1936년 6월2일부터 9월 4일 76회까지 연재되었다. 연재가 중단된 후에 하편이 보충되어 단행본으로 1938년에 출간되었고, 1946년 8월 같은 출판사에서 재판이 출간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텍스트는 1946년 판본이 유일하다. 이 단행본을 판본으로 삼은 『황진이』가 이태준 문학전집 12권(김은생, 1999)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신문 소설 ↓ 단행본

34)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313쪽.

35) 역사소설에 관한 부분은 천정환(『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우미영(「‘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김병길(「한국근대 신문연계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의 논의를 참고로 서술하였다.

					는 깊은샘에서 출간된 『황진이』를 저본으로 삼았다.	
2	박종화	「황진이의 역전」	새벽	1955.11.	본 논문에서는 『아랑의 정조』(범우사, 초판 1976)에 수록된 「황진이의 역전」을 저본으로 삼았다.	잡지 ↓ 단행본
3	정한숙	『황진이』	정음사	1958	정한숙의 『황진이』는 한국일보에 1955년 1월 19일부터 8월 28일 41회까지 연재되었다. 연재가 중단된 후 1958년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문장과 내용을 가다듬은 단행본이 1993년 도서출판 한빛에서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빛에서 출간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았다.	신문 소설 ↓ 단행본
4	石 松	「한국의 미 황진이」(중편)	삼진사	1972	이 작품은 문학가편시리즈 '세계의 여류' 전 10권 중 7권 「孤獨한 영혼의 벗」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시인 석송'으로 기재되어 있다. '石松'이라는 호를 가진 시인은 김형원이 유일인데, 그는 한국전쟁 발발 후 월북하였다. 이 작품의 최초지면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창작시기는 1950년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최인호	「황진이 1」	현대문학	1972.3.	1972년 연속으로 발표되었던 최인호의 단편소설은 1986년 동화출판공사 최인호 우수단편집 『황진이』로 출간되었다. 2002년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황진이』로 재출간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2002년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았다.	잡지 ↓ 단행본 ↓ 영화 원작
6	최인호	「황진이 2」	문학사상	1972.10		
7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문학사상	1976	본 논문에서는 『한국단편문학』 6(금성출판사, 1992) 수록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았다.	잡지 ↓ 단행본
8	안수길	『황진이』	홍문각	1977	안수길의 『황진이』는 선일문화사에서 발행한 잡지 『女苑』 1974년 8월호에서 다음해 12월 호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잡지 ↓ 단행본
9	유주현	『황진이』	범서출판사	1978	유주현의 『황진이』는 서울신문에서 1967년 9월12일부터 1968년 4월15일 184회까지 「綠水는 남의 情」으로 연재되었다. 이후 신대양사(1970)·경미문화사(1978)등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신문소설 ↓ 단행본
10	정비석	『옛날 옛날에 한 여자 - 옷을 벗은 황진이』	남향문화사	1982	정비석의 연작장편 『명기열전』은 1976년 1월1일부터 조선일보에서 4년간 연재되었다. 이후 이우출판사(1977)·신경사(1981)·한국출판사(1982) 등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동일한 내용으로 『미인별곡』이 1989년 고려원에서 출간되었고, 2006년 열매출판사에서 편집을 새롭게 하여 정비석의 역사인물소설 1 『황진	신문소설 ↓ 단행본

					이』로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열매출판사에서 출간된 『황진이』를 저본으로 삼았다.	
11	임형진	『황진이』	주변인의 길	1991		단행본
12	박덕은	『풍류여인열전 - 황진이의 고독』	장원	1993		단행본
13	최정주	『황진이』 (전3권)	삼신각	1993	최정주의 『황진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도서출판 비엔엠에서 2006년 다시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삼신각에서 출간된 『황진이』를 저본으로 삼았다.	단행본
14	문정배	『황진이』	미래 문화사	1994	문정배의 『황진이』는 2006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재판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재판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았다.	단행본
15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대중판과 주석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석판을 저본으로 삼았다.	단행본 ↓ 드라마 원작
16	홍석중	『황진이』 (전2권)	문학예술 출판사	2002	2002년 북한의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출간된 홍석중의 『황진이』는 남한의 대훈서적이 정식으로 수입하여 2004년 새롭게 편집해 출간하였다. 북한판과 남한판은 편집만 달리했을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본 논문에서는 2004년 대훈서적에서 출간된 『황진이』를 저본으로 삼았다.	단행본 ↓ 영화 원작
17	전경린	『황진이』 (전2권)	이룸	2004		단행본
18	최 학	『화담명월』	나남	2005		단행본
19	황원갑	「기생의 역사를 바꾼 기생의 여왕 황진이」	마야	2007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에 수록되어 있다.	단행본
20	임종욱	『황진이는 죽지 않는다』	어문학사	2008		단행본

<표2> 황진이 소설 작품연보³⁶⁾

<표2>를 살펴보면 황진이 소설은 단편 5편, 중편 1편, 장편 15편 등 총 20편이다. 최근 역사물의 유행과 함께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도 다시 조명 받고 있다.

36) 이 표는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6쪽)에 나타난 <작품연보>를 수록하되, 본 논문에서는 신문연재본 이후에 출간된 단행본 텍스트 순서로 수정·보완하였다. 한무숙의 「이사중의 아내」를 추가 하였으며, 비교란을 출판 과정란으로 변경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출판의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두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출판의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간 매체란을 추가하였다.

이 중에서도 이태준의 『황진이』는 황진이 설화의 단편적 기록이 허구적 서사로 확대·재생산되는 한편 근대적 매체인 신문을 통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최초의 황진이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이후에 계속 발표되는 작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설화를 수용한 여러 장르 중에서 서사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구비한 황진이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적 수용 및 변용을 검토하여, 황진이 설화의 수용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황진이 설화와 소설의 유기적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전과 현대의 연구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상으로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문헌설화 및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황진이 전승담을 생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황진이 설화를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 교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최후 기록 등 황진이의 생애를 세분하여 다각도로 살펴 볼 것이다.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황진이의 성명(姓名)과 기명(妓名), 출생의 특징을 분석해 볼 것이다.

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³⁷⁾, 음악적 재능, 성격과 외모로 나누어 황진이라는 인물이 지닌 총체적인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교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황진이와 관련된 인물 및 교유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황진이의 면모를 분석할 것이다. 황진이는 여러

37) 본 논문이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조망하는 작품론은 아니지만, 중요 연구 대상인 황진이 소설의 대부분이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삽입하고 있어 황진이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해석은 박영완(「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이화형(「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김연옥(「黃眞伊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임주탁(「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조세형(「그리움과 자존심」,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의 논의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인물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작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최후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황진이의 유언과 그것을 해석하는 편찬자의 수용 의식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형화된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를, 다음 장에서 살펴볼 황진이 소설의 중요한 분석의 축으로 삼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황진이 설화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수용·변용되었는지를 각각의 설화와 소설 내용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³⁸⁾ 먼저 황진이 소설을 1930년-1950년대 작품군, 1970년대 작품군, 2000년 이후의 작품군 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것이다. 이 세 유형의 작품은 시대와 작가 의식지향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만큼 황진이 설화의 재창작 과정에서도 많은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1930년-195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황진의 모습은 설화의 내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황진이 설화와 소설의 친연성을 부각하며, 1930년대 이태준의 『황진이』가 소설로 형성된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설화 속 인물로 존재했던 황진이에게 근대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소설적 의미가 크다. 1955년에는 박종화의 단편 「황진이의 역전」과 정한숙의 장편 『황진이』가 나란히 잡지와 신문에 발표되었다. 역사소설의 기원에서 볼 때 장형의 역사소설의 경우 신문지면에, 단형의 역사소설은 잡지에 발표되었다. 단편소설은 여러 가지 형식 실험이 가능하였지만, 매일 연재되는 신문소설의 경우에는 독자층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은 작품성 보다는 대중성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에도 지속된다. 1930년대-1950년대의 작품군을 황진이 초기소설이라고 한다면, 1970년 이후에 나타난 황진이 소설은 초기소설의 특징과 황진이 설화를 계승·변용하면서 발전해갔다고

38) 본 장에서 황진이 소설의 서지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Ⅲ장에서 작품의 부분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작가와 작품의 이름, 쪽수만을 표기하도록 하겠다.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가 한 것이다.

할 수 있다. 더욱이, 1970년대는 문학을 포함하여 TV·광고·잡지 등 많은 매체들이 성에 관한 담론을 확산시킨 시기이다. 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대중의 눈과 귀를 무마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 담론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구조상의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1970년대 소설 속의 황진이는 초기소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호명되어, 여러 작품들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 1972년 최인호는 「황진이1」·「황진이2」를 잡지에 연속으로 발표하였다. 1976년 한무숙도 「이사종의 아내」를 잡지에 발표한다. 정비석은 한무숙과 비슷한 시기에 신문에 『황진이』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들을 통해 1970년대 황진이 소설의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황진이 소설은 197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0년 이후에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편의 황진이 소설이 창작된다. 20세기와 비교할 때, 더욱 다양해진 문화콘텐츠들이 21세기에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황진이가 문학의 소재로서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은, 황진이가 어떤 의미와 가치로서 계속 생명력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작품군 가운데서도 특히 뚜렷한 특성을 가진 김탁환·전경린·홍석중의 작품을 세밀하게 논의하여, 2000년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일한 인물 황진이에 대한 시각이 세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황진이 문학이 고전과 현대를 소통하는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황진이 설화의 전개

황진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이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문헌설화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기록들을 토대로 황진이의 삶을 추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헌설화도 시대를 거쳐 변모되었기 때문에 기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황진이의 생애를 신분 및 출생·재색(才色)·교유인물·최후 기록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1) 성명(姓名)과 기명(妓名)

현재 우리는 ‘황진이’라는 이름과 성에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문헌에 실린 기록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성명(姓名)부터 확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말 그녀의 ‘성’이 ‘황’이고 ‘명’이 ‘진이’인지에 대한 것부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명은 ‘진’ (眞)·‘진이’ (眞伊)·‘진낭’ (黃娘) 등 3가지로 나온다.

‘진이’ 보다는 ‘진’으로 나오는 자료가 더 많으나, 성명이 ‘황진이’면 당연히 ‘황진이’로 불렸을 것이고, ‘황진’이라도 발음상 ‘진이’라 불리게 된다. 이게 구전되다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김이재의 『중경지』에서 ‘황’이란 성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이재는 1823-1826년 개성 유수로 있으면서 『중경지』를 펴냈으니, ‘황’이란 성이 문헌에 나오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다.³⁹⁾

39) 한규무,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인간연구』 9, 2005, 58-59쪽.

김이재의 『중경지』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진은 이름난 기생이다. (중략) ○ 살피건데 『竹窓野史』에는 “진의 어머니 진현금이 병부교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희롱하고 갔다. (중략) 과연 임신하여 진을 낳았다. 낳을 적에 이상한 향기가 집을 가득 차 삼 일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고 한다. 이는 곧 선녀이니 어찌 황씨 성이 있겠는가? 죽창은 유수 이공 덕형의 호이다. 개성 관아에 임했을 때, 그 일을 진씨 아전에게서 들었는데 진씨 아전은 곧 진현금의 가까운 친척이다. 그래서 말이 자세한 것이다.
[김이재, 『중경지』]

『중경지』는 개성의 역사와 지역 실정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김이재는 개성에서 구전되던 이야기를 듣고 ‘황진’이라 한 것 같다. ‘어찌 황씨 성이 있겠는가?’라는 문장에서 황진이의 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진현금의 친척 진씨 아전에게 들어 말이 자세하다는 『竹窓野史』의 언급으로 불분명하게 마무리 하고 있다. 하지만 김이재가 언급하고 있는 이덕형의 『죽창야사』와 또 다른 저서 『송도기이』, 그리고 그녀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허균의 『성웅지소록』·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는 ‘황’이란 성은 나오지 않는다. 문헌에 나타난 황진이의 성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자료	저자	생물연대	성	명
1	성웅지소록(惺翁識小錄)	허균	1569~1618		眞娘/ 眞
2	어우야담(於野談)	유몽인	1559~1623		眞伊/ 眞娘
3	송도기이(松都記異)	이덕형	1566~1654		眞伊/ 眞娘
4	죽창야사(竹窓野史)	이덕형	1566~1654		眞
5	수촌만록(水村漫錄)	임방	1640~1724		眞
6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정재륜	1648~1723		眞伊
7	조야취언(朝野叢言)	김시민	1681~1747		眞娘
8	이순록(二旬錄)	구수훈	1685~1757		眞伊
9	중경지(中京誌)	김이재	1767~1847	黃	眞
10	금계필담(錦溪筆談)	서유영	1801~1874	黃	眞/ 眞娘
11	소호당문집韶濩當文集	김택영	1850~1927	黃	眞

<표3> 문헌에 나타난 황진이의 성명⁴⁰⁾

40) 이 표는 한규무, 앞의 논문, 58쪽을 채수록 하였다. 그러나 『이순록』의 저자 구수훈의 생물연

표를 보면 ‘황진이’ 라는 이름은 없으며, ‘황진’ 정도로만 나온다. ‘진이’ 를 명이라 한다 해도 그것이 본명(本名)인지 기명(妓名)인지 알 수 없다. 황진이의 기명은 ‘명월’ (明月)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이’ 를 기명이라 보는 이는 없다. 하지만 황진이의 기명이 ‘명월’ 이란 증거는 없다. 황진이가 벽계수에게 읊어줬다는 한시(漢詩), “靑山裏碧溪水莫誇易去一到滄海後難復回明月滿空山暫休且如何” 에서 ‘명월’ 이 바로 황진이를 상징하며, 그것이 곧 기명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이 일화는 구수훈의 『이순록』 과 서유영의 『금계필담』 에 나오지만 ‘명월’ 이 황진이의 기명이라는 직접적인 대목은 없다. 기생은 본명이 아닌 기명으로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황진이의 기명은 ‘명월’ 이 아니라 ‘진이’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⁴¹⁾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견된 조선시대 공문서 <송도관의(松都官)의 편제>를 참고 할 수 있다. 이 고문서는 두루마리 형식의 필사본으로 길이가 2m 50cm에서 3m 정도이다. 박태상⁴²⁾은 이 문서의 제작연대를 간지가 갑술(甲戌) 유월(六月)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514년(중종9년)이나 1574년(선조 7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황진이의 출생연대를 대개 1516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74년(선조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에는 개성관청 소속 ‘비’ (婢)의 명단⁴³⁾이 나오는데, 이 명단을 통해 개성의 관비인 ‘진이’ 가 황진이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규무는 명단의 대부분이 기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이’ 가 황진이라면 ‘진이’ 는 기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생 역시 관비였으므로, 앞의 공문서와 「기안」(妓案)의 인명 표기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진이’ 가 기명이라면 기생을 姓+姓名으로 불렀을까하는

대개 1760무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1685-1757)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41) 한규무, 앞의 논문, 59-60쪽.

42) 박태상, 「북한소설 『황진이』 연구」,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304쪽.

43) “관비는 1차로 18명이 나온다. 18명의 이름은 설운(雪雲)·추옥(秋玉)·취단(翠丹)·오정(五貞)·이매(二梅)·별애(別愛)·월단(月丹)·봉화(鳳化)·진이(眞伊)·몽애(夢愛)·월정(月貞)·단정(丹貞)·천애(賤愛)·계단(桂丹)·성애(聖愛)·연이(蓮伊)·계금(桂今)·장정(長貞)으로 나열되어 있다. 뒤에 추가된 4명의 관비의 이름은 후매(厚梅)·취옥(翠玉)·설매(雪梅)·수예(水禮)이며, 송도관의 교방의 편제가 밝혀진 것은 이 자료가 최초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태상, 앞의 논문, 308쪽.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진이’의 성이 ‘황’이란 것과 ‘황진이’라 불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규무는 황진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그 성명에서부터 어긋나고 있지만 어느 연구자도 이에 대해 시비를 따진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⁴⁴⁾ 하지만 성도 이름도 확실하지 않은 황진이의 신비성이야 말로 지속적으로 구비되다 문헌으로 기록되기에 적합했으며, 이러한 문헌들이 확장되고 재생산되어 후대의 서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출생

황진이의 불분명한 생몰연대·신분과 출생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으로 이덕형의 『송도기이』·허균의 『성웅지소록』·김이재의 『중경지』·김택영의 『송도인물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차례대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가정(嘉靖) 초 송도(松都)에 이름난 창기(娼妓)로 진이(眞伊)라는 자가 있었다. [유몽인, 『어우야담』]

② 진이(眞伊)는 송도의 이름난 창기이다. 그 어머니 현금(玄琴)이 꽤 자색이 아름다웠다. 나이 18세에 병부교(兵部橋) 밑에서 빨래를 하는데 다리 위에 형용이 단아하고 의관이 화려한 사람 하나가 현금을 눈여겨보면서 혹은 웃기도 하고 혹은 가리키기도 하므로 현금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날이 이미 저녁때가 되어 빨래하던 여자들이 모두 흩어지니,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 위로 와서 기둥을 의지하고 길게 노래하는 것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물을 요구하므로 현금이 표주박에 물을 가득 떠서 주었다. 그 사람은 반쯤 마시더니 웃고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너도 한 번 마셔 보아라.” 했는데, 마시고 보니 술이었다. 현금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그와 함께 좋아해서 드디어 진이(眞伊)를 낳았다. (중략) 유수(留守) 송공(宋公)이 (혹은 송렴(宋謙)이라고도 하고 혹은 송순(宋純)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처음 부임했을 적에 마침 절일(節日)을 당했다.

[이덕형, 『송도기이』]

③ 공헌왕(恭憲王) 때에 사인(士人) 이언방(李彦邦)이란 자가 노래를 잘했다. (중략) 진랑(眞娘)은 개성 장님의 딸이다. [허균, 『성웅지소록』]

44) 한규무, 앞의 논문, 59-60쪽.

④황진은 이름난 기생이다. (중략) 살피건대 『竹窓野史』에는, “진의 어머니 진현금이 병부교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희롱하고 갔다. 저녁 무렵에 또 와서 현금에 물을 청하니 현금이 물을 떠서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물이 변해 술이 되었으니 인하여 합환을 이루었다. 현금이 소년의 성명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고 가 버리니 그가 신선일 것으로 현금은 생각했다. 과연 임신하여 진을 낳았다. 낳을 적에 이상한 향기가 집을 가득 차 삼 일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고 한다. 이는 곧 선녀이니 어찌 황씨 성이 있겠는가?

[김이재, 『증경지』]

⑤ 황진(黃眞)은 중종(中宗) 때 사람으로 황진사(黃眞士)의 서녀(庶女)이다. 그의 어머니 진현금(陳玄琴)이 병부다리(兵部橋) 아래에서 물을 먹다가 감응하여 황진을 잉태했다 황진을 낳자 방안에 기이한 향기가 3일 동안 풍겼다.

[김택영, 『송도인물지』]

①에서는 가정(嘉靖) 초라는 시대와 황진이의 신분이 창기(娼妓)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嘉靖)은 중국 명나라 세종 때의 연호로 가정(嘉靖) 초는 조선 중종(中宗) 17년인 1522년에 해당한다.

②에서는 창기(娼妓)라는 황진이의 신분과 불분명한 아버지와 어머니 현금(玄琴)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물과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볼 수 있다. 황진이가 기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거문고’를 뜻하는 어머니 현금의 이름이다. 현금은 주로 여악사(女樂師)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며, 기녀의 신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낙네들과 어울려 빨래터에서 빨래를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도 서민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종모법에 따라 신분이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황진이는 천민인 기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 위로 와서 기둥을 의지하고 길게 노래하는 것이었다.’ 라는 서술을 통해 황진이의 아버지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도 노래를 잘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진이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덕형의 『송도기이』에는 출생설화 이외에도 여러 편의 일화들을 담고 있는데, 김용숙⁴⁵⁾은 송공에 대해 덧붙여져 있는 설명을 통해 송공을

45) 김용숙, 「황진이의 생존 연대-추정을 위한 시론」, 강전섭 편,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6, 167-168쪽.

송렴으로 못 박고 그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며 황진이의 생존연대를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탁환은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을 확인한 결과 송렴이란 인물은 존재하지 않고, 김용숙이 소개한 행적은 송렴이 아닌 송겸(宋謙)의 행적과 일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덕형과 김용숙에 오식된 이름은 그 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김탁환은 황진이가 송도유수 송겸을 만난 시기가 1538년-1542년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⁴⁶⁾

황진이의 출생이 신비하게 나타난 ②의 자료와는 달리 ③에서는 ‘장님의 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미세한 음률을 잘 표현해야 하는 악사 중에는 눈이 먼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리에만 집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황진이의 어머니인 현금도 눈이 먼 여악사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헌왕(恭憲王)때라는 시기의 언급으로 황진이의 생존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공헌왕은 조선 13대 명종(明宗)의 시호이며, 재위기간은 1545-1567년이다. 황진이가 기생으로 유명해 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①과 ③의 시기를 종합해 본다면 황진이는 연산군(1494-1506)4년경, 늦어도 중종(1512-1516)사이 짬에는 태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④에서도 황진이의 신분이 기생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①②③의 문헌과는 다르게 ‘황’이라는 성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물이 변해 술이 되었다’ 든가 ‘낱을 적에 이상한 향기가 집을 가득 차 삼일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는 은유적 상황과 신비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⑤에서는 ④의 자료에서 의심스럽게 받아들인 ‘황’ 씨 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신분이 기생으로 소개되었던 앞의 4개의 문헌과는 다르게 황진이의 신분을 ‘황진사의 서녀’로 설정하고 있다. 사실적인 출생에 허구적인 이야기가 덧씌워지면서 황진이의 신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진이 출생설화를 처음 실은 『송도기이』의 집필시기가 황진이의 생

46) 김탁환, 『나, 황진이』 (주석판, 푸른역사, 2002, 321-323쪽.

몰시기와 100여년의 간격을 두고 있어, 이 설화가 문헌에 정착될 때까지 개성을 중심으로 구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덕형의 『송도기이』·김이재의 『중경지』·김택영의 『송도인물지』는 모두 개성지방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하여 엮은 문헌에 실려 있어서, 출생설화의 실상 및 변용·전승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⁴⁷⁾

2. 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

‘기녀’라는 황진이와 신분은 그녀의 매력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녀는 유교사회에서 성적·예술적 욕망표출이 가능한 신분이다. 기생 제도는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인된 제도이지만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시와 음악을 논할 수 있는 영역으로도 기능한다.⁴⁸⁾ 황진은 기녀라는 특수한 신분과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기녀들 중 탁월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황진이 관련 기록들은 그녀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보다는 빼어난 미모와 남성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었고, 흥미 위주의 서사로 재생산되는 경향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황진이가 지닌 면모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문학적 재능

시조는 조선전기에 성리학적 사상을 이념으로 삼는 사대부 계층에 의해 향유·발전 되었다.

고전 시가 장르에서 여성의 참여는 향가에서부터 있어 왔으나 작자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조에 이르러서 라고 할 수 있다. 여성

47) 이동준, 앞의 논문, 442쪽.

48) 박유희, 「2000년 이후, 서사매체와 역사 속 여성의 허구화- 2000년 이후 소설, 영화,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51쪽.

들에겐 폐쇄적인 장르였던 시조로부터 여성 작가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사실은 사대부 남성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시조 제작에 나선던 기녀들의 참여로 가능할 수 있었다. 기녀는 신분으로는 비록 천민에 해당하지만 사대부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과 취향을 따라야만 했다.⁴⁹⁾

현전하는 황진이 작품은 시조 6수⁵⁰⁾와 한시 7편⁵¹⁾에 불과하지만 황진은 기녀 작가로는 물론 고전 시가의 작가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황진이의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녀가 기녀 신분이었다는 사실에 충실하여 작품의 분석도 기녀시조⁵²⁾라는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황진이의 작품 또한 애정이 주된 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여타의 기녀시조가 남성을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눈물과 한숨을 짓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반해, 황진이의 시조는 애정이란 주제는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⁵³⁾ 황진이는 여타의 기녀시조 및 사대부시조와는 달리 인간이 가지는 애정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에 황진이 문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것도 먼저 황진이가 남긴 작품이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향유되었기 때문이다.

49) 김상진, 「기녀시조의 맥락과 황진이 시조의 팜프파탈」, 박노준 편, 『고전시가 읽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86쪽.

50) <청산리 벽계수야>·<동짓달 지나긴 밤을>·<내 언제 무신하여>·<어저 내일이야>·<산은 옛 산이로되>·<청산은 내 뜻이오> 6편의 시조를 황진이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1) 황진이가 창작한 한시는 4편에서 7편으로 연구자 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다. 강전섭(1986)의 경우 <松都>·<詠半月>·<奉別蘇判書世讓>·<相思夢>·<小栢舟>·<別金慶元>·<朴淵>·<滿月臺懷古>등을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강전섭, 「황진이의 문학유산 정리」, 강전섭 편,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6, 189-193쪽)하기도 했다.

52) “황진이로 대표되는 기녀들의 시조는 정서를 곡진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사대부들의 시조가 기녀시조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교훈적인 시조와 자신들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관념적인 시조라면, 기녀들의 시조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표현의 즐거움을 누리는 서정적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녀들의 작품은 그들의 사랑이 지속적일 수 없었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대행, 「고전시가」,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210-211쪽.

53) 김상진, 앞의 논문, 88쪽.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 수용된 일화와 편찬자의 평을 통해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조명을 하고자 한다.

① 근자에 송도의 진랑(眞娘)과 부안(扶安)의 계생(桂生)은 그 사조(詞藻) 문사들과 비교하여 서로 대결할 만하니 참으로 기이하다. 진랑의 『반달(半月)』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누가 곤륜산의 옥을 잘라내어/ 직녀의 빗으로 만들었나?
견우와 이별한 직녀가/ 시름겨워 창공에 던져버렸다네./

(誰斷崑山玉 裁成織女梳 牽牛離別後 愁擲壁空虛)

(중략) 이상의 시어는 모두가 공교하고 곱다. 아! 승려들과 기녀들은 사람들이 매우 친하게 여기에 더불어 함께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작품이 이와 같으니 우리 동방 사람들의 뛰어난 재주를 볼 수가 있다.

[홍만중, 『소화시평』]

② 고려 때 용성(龍城)의 창기(娼妓) 우돌(于咄)과 팽원(彭原)의 창기 동인홍(動人紅)은 다 시를 잘 지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 본조(本朝)의 송도(松都) 기생 황진(黃眞) 황진이(黃眞伊)은 매우 절색(絶色)에다 시도 잘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화담 선생(花潭先生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및 박연폭포(朴淵瀑布)가 나와 함께 송도의 삼절(三絶)이다.” 하였다. (중략) 황진이 송도에서 지은 시에

눈 달은 전조의 빛이요/ 찬 종은 고국의 소리로세/
남루는 시름겹게 홀로 섰고/ 성곽엔 저문 연기 이누나./

(雪月前朝色 寒鍾故國聲 南樓愁獨立 城郭暮烟生)

하였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는 초루(草樓) 권겸(權謙)의 시이다.” 하였다.

[이덕무, 『청비록』]

③ 황진은 멀리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문도 맑고 빼어났다. 한때의 애환과 성쇠가 서린 누대나 산수를 만나면 붓을 끌어다 시를 지었는데,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감정을 곡진하게 펼쳐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중략)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전송(傳誦)하며, 이계란(李系蘭)·설도(薛壽)등에 견준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 안에서 이름난 창기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황진을 먼저 꼽았다.

[김택영, 『송도인물지』]

①에서는 편찬자 홍만중(1643-1725)이 근자에 이르러 문사들과 견줄만한 기녀로서 송도의 진랑과 부안의 계생이라는 기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화시평』에는 중국은 시에 능한 기녀가 많으며, 중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도 빼어난 기녀는 많지만 시로 세상에 알려진 기녀가 없다는 내용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편찬자는 황진이와 더불어 여러 기생의 시를 예로 들고 모두 ‘공교하고 곱다’고 평하고 있다.

홍만중은 작품을 평하는 자의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태도와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는 창작과 비평에 있어서 송시풍보

다는 당시풍을 선호하였지만, 가급적 주관을 배제하고 작품의 실상, 매 작가의 훌륭한 성취를 인정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홍만중은 비평가란 작품의 실상을 독자에게 잘 평가해 주는 것이 큰 임무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점이 가장 잘 드러난 시평집이 『소화시평』이라 할 수 있다.⁵⁴⁾ 이처럼 탁월한 비평적 안목에 의한 체계적인 시평집의 편찬자인 홍만중은 ‘문사들과 대결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황진이의 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②에서는 재색을 겸비한 시인이면서 송도삼절로 자부했던 황진이의 면모와 황진이가 지은 시<松都>가 나타난다. 송도는 한때 태평성대를 이루던 고려시대의 수도였다. 그러한 고려의 왕업이 쓸쓸한 고적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 길재와 원천석 등의 수많은 고려의 유신들이 그로 인한 무상함을 시조와 한시로 표현하였다. 황진이 역시 송도에서 출생하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로 이러한 시를 남기게 된 것이다. <松都>는 송도에 대한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남루에 올라서서 저녁 안개에 휩싸인 송도를 바라보며 옛 고려의 왕업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려의 몰락과 함께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된 ‘중’과 ‘눈’의 차가운 이미지가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 의식이 개인적인 애정이나 회한이 아닌,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점으로 보아 다른 여성 시인과는 또 다른 점으로 높이 평가된다.⁵⁵⁾ ②의 자료에서 권겹이 지은 것으로 오해한다고 할 정도로 황진이의 시가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는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백광훈(白光勳)의 <홍경사(弘慶寺)>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홍경사>는 1·2구에서 ‘추초(秋草)’와 ‘잔비(殘碑)’, 그리고 ‘전조사(前朝寺)’와 ‘학사문(學士文)’이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 3·4구로 이어진다. 이 시에서는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착잡한 심회가 드러난다.⁵⁶⁾ 황진이의 <송도>역시 ‘눈달(雪月)’과

54) 안대회, 「『小華時評』의 비평방식과 品評」,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216쪽.

55) 박영완,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49쪽.

56) 정민, 『한시미학산책』, 숲 출판사, 1996, 19-20쪽. <홍경사>는 다음과 같다.
秋草前朝寺 가을 풀 고려 때 절.

‘찬중(寒鍾)’ 등 <홍경사>에서 보이는 구법과 동일하게 대응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의 고적이 쓸쓸하게 남겨진 변화상을 안타깝게 읊고 있다.

③에서는 황진이의 시문이 뛰어났다는 점과 중국의 설도 등에 비견될 정도임을 강조하고, 작품 <만월대회고>와 <영반월>을 싣고 있다. 세 개의 문헌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황진이의 한시에 대한 편찬자의 비평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황진이의 문학적 위상을 알 수 있다.

2) 음악적 재능

황진이의 ‘거문고 연주 실력에 대한 소문은 조선전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탁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행적은 제대로 남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황진이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평가는 문학적 재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기술로는 그들의 목청과 연주 실력을 후대에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균의 『성웅지소록』과 이덕형의 『송도기이』에는 황진이의 음악적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실려 있으며, 이영유(李英裕, 1743-1804)의 <기악공김성기사(記樂工金聖基事)>에는 황진이가 고려의 곡조를 전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황진이의 음악적 재능에 관한 내용을 각 문헌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공헌왕(恭憲王 명종(明宗)의 시호) 때에 사인(士人) 이언방(李彦邦)이란 자가 노래를 잘했다. 가락이 맑고 높으니 감히 그와 재주를 겨루는 사람이 없었다.

일찍이 최득비여자가(崔得霏女子歌)를 불렀는데, 온 좌석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서경(西京)에 유람했는데 교방(敎坊) 기생이 거의 이백 명이 되었다. 방백(方伯)이 열지어서 앉힌 다음, 노래에 능하거나 못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도상(都上)에서 동기(童妓)까지 한 사람이 창(唱)하면 언방이 문득 화답했는데, 소리가 모두 흡사했으며 막힘이 없었다.

殘碑學士文 남은 비 학사의 글.
千年有流水 천년을 흐르는 물이 있어서,
落日見歸雲 지는 해에 돌아가는 구름을 본다.

송도(松都) 기생 진랑(眞娘)이 그가 창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서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언방은 자신이 언방의 아우인 양 속이면서, “형님은 없소. 그러나 나도 제법 노래를 하오.”하고 드디어 한 곡조 불렀다. 진랑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나를 속이지 마시오. 세상에 이런 소리가 어찌 또 있겠소. 당신이 바로 진짜 그 사람ियो. 모르기는 하지마는 면구(綿駒)와 진청(秦靑)인들 이보다 더 잘하겠소?” 하였다.

[허균, 『성용지소록』]

· 진랑(眞娘)은 개성 장님의 딸이다. 성품이 엄매이지 않아서 남자 같았다. 거문고를 잘 탔고 노래를 잘했다.

[허균, 『성용지소록』]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언방이 아우인 양 속이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황진은 이언방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음악적 안목을 갖추었고, 황진이도 거문고를 잘 탔고 노래를 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진은 용모와 재주가 한때에 뛰어나고 노래도 절창(絶唱)이었다. (중략) 유수(留守) 송공(宋公)이 처음 부임했을 적에 마침 절일(節日)을 당했다. 낭료들이 부아(府衙)에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진랑(眞娘)이 와서 뵈었다. 그녀는 태도가 압전하고 행동이 단아하였다. 송공은 풍류인(風流人)으로서 풍류장에서 늙은 사람이다. 한 번 그녀를 보자 범상치 않은 여자임을 알고 좌우를 돌아다보면서 말하기를, “이름은 헛되이 얻는 것이 아니로군!”하고, 기꺼이 관대(款待)하였다. (중략) 술이 취하자 비로소 시비(侍婢)로 하여금 파라(叵羅)에 술을 가득 부어서 진랑(眞娘)에게 마시기를 권하고, 가까이 앉아서 혼자 노래를 부르게 했다. 진랑은 매무새를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는데, 맑고 고운 노래 소리가 간들간들 끊어지지 않고 위로 하늘에 사무쳤으며, 고음 저음이 다 맑고 고와서 보통 곡조와는 전혀 달랐다. 이에 송공은 무릎을 치면서 칭찬하기를, “천재로구나.”했다. 악공(樂工) 엄수는 나이가 70세인데 가야금이 온 나라에서 명수요, 또 음률도 잘 터득했다. 처음 진랑을 보더니 탄식하기를, “선녀로구나!”했다. 노래 소리를 듣더니 자기도 모르게 놀라 일어나며 말하기를, “이것은 동부의 여운이로다. 세상에 어찌 이런 곡조가 있으랴?”했다.

[이덕형, 『송도기이』]

위의 인용문은 이덕형의 『송도기이』의 일부분이다. 풍류인이었던 송공과 음률도 잘 터득하고, 가야금의 명수였던 악공 엄수가 칭찬하는 찬사들을 통해 황진의 음악적 재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나타난 기록의 일부분으로 황진은 거문고 연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음악인이었으며, 그녀의 거문고도 또한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황진옥의 가야금. 진옥은 송도의 맹인 여자의 딸이다. 시를 잘했고, 노래를 잘 불렀으며, 거문고를 잘 연주하여 송도의 삼절(三絶)이 되었다. 진옥의 거문고는 그 뒤에 번갈아 유전(流轉)하였는데, 대장(大將) 이황(李滢)의 소유물이 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승선(乘船) 이원묵(李元默) 집안의 물건이 되었다고 한다.⁵⁷⁾

여기서 황진옥은 황진이이다. 이규경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 황진이가 가지고 있던 거문고가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황진이의 손때가 묻은 것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⁵⁸⁾

다음은 김성기(金聖基)⁵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영유(李英裕, 1743-1804)의 「기악공김성기사(記樂工金聖基事)」의 한 부분이다.

젊은 시절 성기를 따라 비파를 배운 것이 꽤 오래였더랍니다. 갑진년(1724) 겨울, 성기가 갑자기 서호의 자기 집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국상(國喪)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였답니다. 고사(瞽師, 주세근을 가리킴)의 손을 잡아끌고 빈집의 밀실에 들어가더니 손수 온돌에 불을 넣고는 초연히 서로 마주앉아 비파를 꺼내 몇 곡을 타더니, ‘이는 고려의 옛 곡조다. 옛 곡조는 오직 이 곡만이 남았으니 대개 송경의 기녀 황진이에게서 나온 것인데 김성천(金成川) 집 여종이 악기를 탈 줄은 모르고 입으로 곡조를 전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눈물을 떨구면서 ‘내가 홀로 이 곡을 타서 그 오묘함을 터득하여 일찍이 스스로 아껴 남에게 전해주려 하지 않았더니, 이미 늙었는지라 이제 너에게 가르치니 경솔히 남에게 전하지 않아야 한다’ 하더랍니다. 드디어 그 술대를 당기고 손을 움직이는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더랍니다.⁶⁰⁾

위의 인용문에서 황진이가 김성천 맥의 여종에게 전수한 것을 다시 김성기가 전수받았으며, 김성기가 죽기 직전에 주고사(朱瞽師)에게 유일한

5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2007, 355쪽, 재인용.

58) 안대회, 앞의 책, 355쪽.

59) 김성기는 황진이의 음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소개하도록 한다.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에서는 “김성기는 자(字)가 자호(字濠) 이고, 호는 어은(漁隱), 또는 강호객(江湖客)이다. 숙종 조에 거문고와 통소, 젓대로 명성이 있었다.” 고 그를 소개하고 있으며, 정내교(鄭來橋)의 「김성기의 전기(金聖基傳)」는 “거문고 악사 김성기는 본래 상의원에서 활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성품이 음물을 좋아하여 일터에 나가 물건을 만들지 않고 남의 뒤를 따라다니며 거문고를 배웠다. 거문고 기법의 정수를 터득하고 나자 마침내 활을 버리고 거문고를 전문적으로 연주하였다. 기량이 뛰어난 악공들이라도 모두들 그보다 기량이 뒤졌다. 또 통소와 비파도 다룰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모두 극치에 이르렀다.” 고 묘사하고 있다. 조수삼(趙秀三)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는 “거문고 악사 김성기(金聖基)는 왕세기(王世基)로부터 거문고를 배웠다. 왕세기는 새 음악을 연주할 때면 언제나 비밀에 부쳐두고 전수하려 하지 않았다.” 고 전해진다. 김성기의 스승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 이야기는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안대회, 앞의 책, 338-339쪽, 재인용.

60) 이영유, 「기악공김성기사(記樂工金聖基事)」, 김탁환, 앞의 책, 331쪽, 재인용.

고려의 곡조를 전수하는 장면이다. 이 기록을 통해 고려의 곡조가 황진이
를 거쳐 조선전기의 가객 김성기로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기녀 황진이는 고려의 음악을 배워서 알고 있었으며, 김성기(金聖
基)가 음악을 배웠다는 왕세기란 스승이 개성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
측을 할 수 있다. 김성기가 복원해 놓은 옛 음악인 <삭대엽 평조 제일>
의 곡은 실제로는 황진이의 시조로 널리 알려진 <어저 내일이야>이다.
김성기가 복원한 고음악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황진이의 음악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⁶¹⁾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황진이는 거문고 연주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
랑하는 음악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성격과 외모

문학·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빼어난 외모와 얽매이지 않는 독특한 황
진이의 성품은 황진이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으
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황진이 소설 작가들이 황진이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황진이의 성격과 외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황진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다.

① 가정(嘉靖)초 송도(松都)에 이름난 창기(娼妓)로 진이(眞伊)라는 자가 있었는
데, 여자이면서도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협한 기개가 있었다.

[유몽인, 『어우야담』]

② 성품이 얽매이지 않아서 남자 같았다.

[허균, 『성용지소록』]

③ 진량이 비록 창류(娼流)로 있기는 했지만 성품이 고결하여 변화하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관부(官府)의 주석(酒席)이라도 다만 빚질과
세수만 하고 나갈 뿐, 옷도 바꾸어 입지 않았다. 또 방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서 시정의 천예는 비록 천금을 준다 해도 돌아다보지 않았으며, 선비들과 함께
놀기를 즐기고 자못 문자를 해득하여 당시(唐詩) 보기를 좋아했다.

[이덕형, 『송도기이』]

61) 안대회, 앞의 책, 356쪽.

①과②의 두 문헌은 모두 황진이가 남성 못지않은 큰 뜻과 자유로운 성품을 지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③은 황진이의 성격이 ①과②의 문헌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③에서는 ‘성품이 고결하여 변화하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는 서술을 통해 소박했던 황진이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선비들과 놀기를 좋아하여 학문을 가까이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서경덕과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남성 못지않은 학식을 겸비했기 때문에 황진이는 뛰어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 또한 황진이의 외모와 성격을 알 수 있는 문헌의 기록들이다.

① 송공의 첩도 역시 관서(關西)의 명물(名物)이었다. 문틈으로 그녀를 엿보다가 말하기를, “과연 절색이로군! 나의 일이 낭패로다.”하고, 드디어 문을 박차고 크게 외치면서 머리를 풀고 발을 벗은 채 뛰쳐나온 것이 여러 번이었다. (중략) 송공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 수연을 베풀었다. 이때 서울에 있는 예쁜 기생과 노래하는 여자를 모두 불러 모았으며, (중략) 붉게 분칠한 여인이 자리에 가득하고 비단옷 입은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다. 이때 진랑(眞娘)은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담담한 차림으로 자리에 나오는데, 천연한 태도가 국색(國色)으로서 광채(光彩)가 사람을 움직였다. 밤이 다하도록 계속되는 잔치 자리에서 모든 손들은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중략) 이때 조사(詔使)가 본부(本府)에 들어오자, 원근에 있는 사녀(士女)들이 구경하는 자가 모두 모여들어 길 옆에 숲처럼 서 있었다. 이때 한 두목이 진랑을 바라보다가 말에 채찍을 급히 하여 달려와서 한참 동안 보다가 갔는데, 그는 관(館)에 이르러 통사(通事)에게 이르기를, “너의 나라에 천하 절색(絶色)이 있구나.” 했다.

[이덕형, 『송도기이』]

② 일찍이 산수(山水)를 유람하면서 풍악(楓岳, 금강산의 별칭)에서 태백산(太白山)과 지리산(知異山)을 지나 금성(錦城)에 오니, 고을 원이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한창 잔치를 벌이는데, 풍악과 기생이 좌석에 가득하였다. 진랑은 헤어진 옷에다 때 묻은 얼굴로 바로 그 좌석에 끼어 앉아 태연스레 이(飢)를 잡으며 노래하고 거문고를 타되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으니, 여러 기생이 기가 죽었다.

[허균, 『성용지소록』]

③ 그녀가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때 비를 피하려 어느 선비의 집을 찾아들었더니, 그 선비가 환히 밝은 등불 밑에서 그녀의 너무도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나 여우의 녀이 아닌가 하고 단정히 앉아 《옥추경(玉樞經)》을 꿰일 새 없이 외어대었다. 황진은 그를 힐끗 돌아보고 속으로 웃었다. 닭이 울고 비가 개자 황진이 그 선비를 조롱하여, “그대 또한 귀가 있으니 이 세상에

천하 명기 황진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거요, 바로 내가 황진이라고.” 하고는 뿌리치고 일어나니, 그 선비는 그제야 뉘우치고 한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덕무, 『청비록』]

④ 황진은 성장하자绝色(絶色)의 미모를 갖추었고, 경서와 사서도 깨우쳤다. 바야흐로 집 오륙 세가 될 무렵, 이웃에 사는 서생하나가 남몰래 눈길을 주며 좋아하여 아내로 삼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침내 이 일로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서생의 상여가 집을 나서서 황진의 집 앞에 이르러, 앞으로 나가려 들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서생이 병이 났을 때, 그 집에서 그 자초지종을 웬만큼 알고 있었다. 이에 사람을 시켜 황진에게 간청하도록 하여 그녀의 저고리를 구해 관을 덮어주니, 비로소 관이 앞으로 나아갔다. 황진은 크게 느낀바 있어서 이에 마침내 차차 창기로 행세했다.

[김택영, 『송도인물지』]

①에서는 황진이의 뛰어난 외모를 짐작할 수 있다. 송공의 첩이 경계하고, 예쁜 기생들 사이에서 꾸미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빛이 나고, 다른 나라의 사신이 칭찬을 할 정도로 황진이의 외모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②에서는 초라한 행색에 태연하게 이까지 잡아가며 연주한 황진이의 모습에도 ‘여러 기생이 기가 죽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①과②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황진이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독보적이었으며, 성격 또한 비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나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모습이 그냥 예쁜 기녀가 아닌 황진이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황진이 역시 본인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③의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선비가 《옥추경》을 외우는 순간에 황진이는 한 단계 올라서서 그를 조롱하고 있던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천하 명기 황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라면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명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내면의 자신감이 외모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④에서 황진이는 황진사의 서녀로 신분이 격상되고, 총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뛰어난 외모로 묘사되고 있다.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착설화는 구비설화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으며, 여러 작품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황

진이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유몽인·이덕형·허균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이야기는 황진이 설화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황진이의 기녀 입적의 배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양반의 서녀였던 황진이가 총각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바 있어 기녀가 되었다는 상황은 극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은 결여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성이 결여된 설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만큼 황진이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록은 『구비문학대계』에서 전승되고 있는 황진이와 관련된 설화이다. 황진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죽음으로 인해 기생이 된다는 내용은 앞서 살펴본 ④의 김택영의 『송도인물지』와 흡사하다. 문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승되는 구비물⁶²⁾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접장이 재상의 딸을 보고 반하게 된다.
- b. 접장이 재상의 딸을 보고 싶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병이 나서 죽게 된다.
- c. 접장의 관이 재상의 딸 집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 d. 재상의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적삼을 올려주었더니, 관이 움직였다.
- e. 자신 때문에 죽게 된 남자에게 죄가 될 것 같아 좋은 일을 하기위해 기생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송도인물지』의 서사구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기생이 된 이후에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생의 딸이 황진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황진이와 관련된 유사한 일화가 당시에 많이 구전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 『한국구비문학대계』 2집7책, ‘기생이 된 재상의 딸’, 381-384쪽,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접장이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재상의 딸이 시수를 해구 이렇게 들어오는데 참 그림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눈에 삼삼한 게 아주 참 잠이 안 오드래. (중략) 이내 못 보구 와서 책을 놓구선 시전 서전을 배울래두 정신이 없드래. 아주 맘이 그리만 가서 병이 나. 그래 인제 결국은 이 접장이 병이나 죽었거든요. 병이 나 죽었는데, 행상에다 꾸며가주 가는데 그 재상의 그 안 마당으루 이렇게 좀 거리가 멀지 않게 떠나는데 행상이 거기가 붙드래. 생전에 떨어지지 않드래. (중략) 적삼을 하나 갖다간 그 행렬에다 책 던져주거던. 적삼을 인제 행상에다 없으니까 그 인제 떠나갔지. 갔는데 그 재상의 딸이, “내가 이 [칭취 불능] 같은 젊은, 내가 남의 남자를 갖다가서 이렇게 됐는데 죄가 안 되겠느냐?”고만 기상으루 나갔드래. “기상으루 나가 거주구서는 좋은 일이나 해 본다. 이렇게 해가지구 안된다.” (하략)

3. 교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황진이 설화는 구전되던 이야기의 기록이다 보니 세속적인 흥밋거리로 각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황진이와 교유인물과의 관계는 황진이의 남성편력 위주로만 표출된 것 같다. 물론 황진이의 신분이 기녀였고, 그녀의 문학세계 또한 애정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단순히 이들 설화가 황진이의 외적인 매력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교유관계로 설정하고, 문헌의 편찬 연대별로 인물을 서술할 것이다.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함께 논의하면서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을 바라보고자 한다. 황진이는 교유하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모습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난 황진이의 교유인물은 이사종과 이생이다. 두 사람과의 교유에서 황진이는 스스로 함께할 사람을 택했으며,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1) 이사종

이사종과의 일화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나지만 허균의 『성웅지소록』에서 등장하는 이언방과 줄거리의 공통점으로 인해 동일인물이라고도 보는 견해⁶³⁾도 있다. 이언방과의 일화는 황진이가 이언방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는 줄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언방은 음

63) “이언방과 이사종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똑같은 명창들로 시작하고, 만나는 대목에 각기 자기의 이름을 속이고 밝히지 않은 것을 황진이가 그 노래로 알아맞히었다는 이야기는 어찌면 두 사람이 同一人인지도 모른다.” 김용숙, 「황진이의 전기적 연구」, 강전섭 편, 앞의 책, 182쪽.

악적 재능으로 분류하였고, 이사종은 교유관계에 포함시켜 살펴보겠다.

선전관(宣傳官) 이사종(李士宗)은 가곡을 잘 불렀다.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송도에 갔는데, 천수원(天壽院)시냇가에서 안장을 풀고 관(冠)을 벗어 배위에 얹고서 누운 채로 가곡 두서너 곡을 큰 소리로 불렀다. 진이 또한 길을 가다가 천수원에서 말을 쉬고 있다가 그 노랫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는 말했다. “이 노랫가락이 매우 특이하니 평범한 촌사람의 친한 곡조가 아니다. 내 듣기에 서울에 풍류객(風流客) 이사종이 있어 당대의 절창이라고 하던데,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도록 했더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이에 자리를 옮겨 곁에 앉아서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이사종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와서 며칠을 머물게 하고는 말했다. “마땅히 그대와 함께 6년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튿날 3년 동안 살림살이할 재물을 이사종의 집으로 모두 옮기고는 위로 부모님을 섬기고 아래로 처자식을 돌보는 비용을 모두 자기가 마련하였다. 진이는 직접 비구(臂鞲)를 착용하고는 첩의 예를 다하며 이사종의 집에서는 조금도 돕지 못한 것이 3년이였다. 이사종이 진이 일가를 먹여 살리기를, 진이가 이사종을 먹인 것과 똑같이 하여 갚아 또 3년이 되었다. 진이가 말하길, “업(業)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약속한 기일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는 작별을 하고 떠나갔다.

[유몽인, 『어우야담』]

황진이가 노래로써 이사종을 알아 본 것은 허균의 『성웅지소록』에 나타난 이언방과의 일화와 비슷하며, 황진이의 음악적 안목을 확인 할 수 있다.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16세기에는 황진이와 이사종의 사랑의 방식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기생과의 희롱은 양반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써 남자들의 성도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⁶⁴⁾는 점을 상기시켜 보았을 때 “선전관이었던 이사종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기녀인 황진이와 신분과 조건, 규범, 풍속을 초월하여 나누었던 순수한 사랑은 조정안팎과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누는 것은 애정뿐만이 아니라 시와 소리였으며 남녀의 성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⁶⁵⁾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녀의 사랑은 지속적일 수 없다. 기녀들이 지었다는 시 대부분이 진실하면서도 절절한 사랑을 담아 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든 헤어져야만 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황진이와 이사종의 파격적인 만남 또한 이미

64) 변원립, 『역사 속의 한국 여인』, 일지사, 1990, 130쪽.

65) 안남연, 「황진이의 제조명」, 『한국어문학연구』 제 4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악어문학회), 2007, 169쪽.

헤어짐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6년이란 약속된 시간 안에 냉정하게 떠나가는 황진이의 행동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황진이가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고, 함께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황진이의 평등한 의식도 엿볼 수 있다.

(2) 이생

재상가의 아들이라고만 전해지는 이생과의 금강산 유람 일화를 통해 여자이지만 뜻이 크고 높았던 황진이의 성격과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진이는 금강산이 천하제일 명산(名山)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맑은 유람을 하고자 했는데,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상가(宰相家)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람됨이 호탕하고 속기(俗氣)가 없어서 세속의 규범을 떠난 유람을 함께 할 만 하였다. 진이가 조용히 이생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에 중국 사람도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국에 태어나 자라면서 선산(仙山)을 지적에 두고도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우연히 선랑(仙郎)과 짝하였으니 정히 신선의 유람을 하기에 좋습니다. 산의(山衣)와 야복(野服)으로 빼어난 경물을 마음껏 찾아보고 돌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생에게 하인을 데려오지 말도록 하고 배옷 차림에 초립(草笠)을 쓰고 직접 양식을 짊어지게 하였다. 진이 자신은 소나무 겨우살풀이로 만든 둥근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칠푼 적삼과 무명 치마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떠났다.

금강산에 들어가 깊은 곳까지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다. 여러 절에서 걸식했는데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 중들에게 양식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생은 이를 허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산 숲 먼 곳까지 두루 돌아다녔는데, 기갈로 인해 초췌해져 예전의 용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시골 유생 십 여 명이 시냇가 소나무 숲에 모여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 진이가 그곳을 지나다가 절을 하니 유생이, “여사장(女舍長)도 술을 마실 줄 아는가?” 하며 술을 권하니, 진이가 사양하지 않았다. 이윽고 술잔을 잡고 노래를 부르니, 노랫소리가 맑고 높아서 그 음향이 숲과 골짜기를 울렸다. 여러 유생들이 매우 특이하게 여기고 술과 안주를 주니 진이가 말하였다.

“첩에게 종이 한 명 있는데 매우 굽주렸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생을 불러 술과 고기를 주었다. 당시 양쪽 집안에서는 두 사람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소식조차 듣지 못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어느 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까만 얼굴로 돌아오니 이웃 사람들이 보고는 매우 놀랐다. [유몽인, 『어우야담』]

황진이는 세속의 규범을 떠나 유람을 함께 할 사람으로 이생을 택했다. 재상가의 아들인 이생이 하인을 데려오지 않고, 초라한 차림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생의 성격도 비범하였던 것 같다.

신선의 산으로 여기던 금강산 기행을 통해 황진이는 세속의 삶을 벗고 신선의 삶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구걸하거나 몸을 팔아 중에게 식량을 얻기도 하였다. 이생 또한 이를 허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생과 황진이 모두 자신들의 의지로 스스로 고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행의 목적이 금강산 유람이라는 것에서, 둘은 세속적 가치와는 무관한 높은 정신적 경험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생과 황진이는 세속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예인(藝人)으로서의 모습

서경덕· 소세양· 지족선사· 벽계수를 통해 황진이가 가진 예인(藝人)으로서의 모습과 교유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설화에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소세양은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에 굴복한 사람으로서,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유혹에 굴복한 한 남성으로서, 벽계수는 황진이의 자의식을 펼치는 계기로서 설화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경덕

30년 수도를 한 지족선사를 파계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던 황진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서경덕의 명성은 문헌설화에 자주 등장하며,

황진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황진이 관련 문헌설화의 대부분은 황진이를 여러 남자를 섭렵한 재주 있는 기생정도로 파악하며, 근현대 작가들이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창작한 소설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중기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칭송하며 서경덕의 제자이자 화담학파의 대모로까지 평하기도 한다.⁶⁶⁾

다음은 서경덕과 황진이의 고유관계가 나타난 문헌의 기록들이다.

① 진이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이 처사(處士)로서 행실이 고상하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학문이 정수(精粹)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허리에 실띠를 묶고 『대학』(大學)을 옆에 끼고 가서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예기』(禮記)에 ‘남자는 가죽 띠를 매고 여자는 실띠를 맨다’ 고 했습니다. 저 또한 학문에 뜻을 두어 실띠를 두르고 왔습니다.” 화담은 웃으며 받아들여 가르쳤다. 진이는 밤을 틈타 곁에서 친근하게 굴면서 마등(魔登)이 아난(阿難)을 어루만진 것처럼 하기를 여러 날 하였다. 그러나 화담은 끝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몽인, 『어우야담』]

② 일찍이 화담 선생(花潭先生)을 사모하여 매양 그 문하에 나가 뵈니, 선생도 역시 거절하지 않고 함께 담소했으니, 어찌 절대(絶代)의 명기가 아니라?

[이덕형, 『송도기이』]

③ 평생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호)의 사람됨을 사모하였다. 반드시 거문고와 술을 가지고 화담의 농막[墅]에 가서 한껏 즐긴 다음에 떠나갔다. 매양 말하기를, “지족 선사(知足禪師)가 30년을 면벽(面壁)하여 수양했으나 내가 그의 지조를 꺾었다. 오직 화담 선생은 여러 해를 가깝게 지냈지만 끝내 관계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성인이다.”하였다. (중략) 진랑이 일찍이 화담에게 가서 아뢰기를, “송도(松都)에 삼절(三絶)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니 선생이, “무엇인가?” 하자, “박연폭포와 선생과 소인(小人)입니다.”하니, 선생께서 웃었다. 이것이 비록 농담이기는 하나 또한 그럴듯한 말이었다.

[허균, 『성웅지소록』]

①에서 황진이는 서경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험하고자 찾아가서 서경덕을 유혹하지만 실패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황진이는 ‘마등(魔登)이 아난(阿難)을 어루만진 것’ 처럼 서경덕을 유혹한다. “마등은 마등가(摩登伽)로 고대 인도의 하층계급을 일컫는 말이다. 마등가 출신의 환술(幻術)에 능한 여인이 음란한 모습으로 변해 아난을 유혹하려 한 이야기가 『능

66) 김탁환, 앞의 책, 315쪽.

엄경』에 전한다.” 67) 황진이를 이러한 여인에 비유한 것을 통해 편찬자의 관점을 알 수 있다. 황진이는 부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에 반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경덕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②에서는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는 ①의 이야기는 생략되고, 서경덕을 존경하여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담소할 정도의 친분과 황진이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조되고 있다. ③에서는 ①과 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파계 시켰다는 내용이 황진이의 독백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문헌설화에서는 양반지식인들이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황진이의 행동보다는 서경덕의 학문과 인품을 중심으로 설화를 향유했기 때문이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유혹하지 못했다는 좌절감보다는 정신적으로 존경할만한 남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서경덕을 성인이라 칭하였을 것이다. 황진이가 서경덕과 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경덕이 계층이나 성향에 대한 편견 없이 널리 인재를 만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구비문학대계』에서 전승되고 있는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문답’ 68)의 내용으로 문헌설화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서사 단락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양반이지만 환경 때문에 기생이 된 황진이가 학식 있는 서경덕을 유혹하고

67)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돌베개, 2006, 133쪽.

68) “그때 사회에 있어서는 황진이는 참 그으... 자기 그 생활에 있어서는 양반에 지내지... 이...기가... 참 넉넉할 수 있는 인간인디 비해서 그 자기주위 환경적이루다 참 기생이라는 그런 자리를 가지구 있는디. 그때 사회에 있어 서화담은 차암 기가 맥히게 그 이성관계라던지 모두덜 자기 생명과 같이 갖추구서 지내는 사렘인디. 이 서화담을 위트게 좀 께여가지구서 같이 좀 하룻 저녁을 지냈으면- 하는 심산에서 글 한 짝을 저놓구서,(중략) 각 선비덜이 황진이덜 위트 계던지 또 같이 좀 지내보구 자기 아내루두 삼어보구 싶어서 별 글을 다 가서 저 바쳐두 그것이 맞달 안하. (중략) 나중이는, 서화담이 워면 글을 쫓느냐야 하며는, (중략) 비쳐 가지구서 이게 위 아래가 둘이 뻑꺼던? 이 글을 저 놔는디야, 자기 남편을 상쨌다구 황진이가 달려붙었어. 불으니까 서화담이 [웃으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며는, “하 놀에는 오로지 그것이 달이 하나 떴지마는, 물 속이 비치는 달은 그게 실물이 아니다야. 나는 그런 정도에 정신을 가지구 진 글이다야.”그래가지구서 둘이 화담을 했다능 기여.” 『한국구비문학대계』 4집 5책,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문답’, 1080-1081쪽,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자 했다.

b. 황진이는 서화담을 유혹하여 하룻저녁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지어 놓고 이 글에 화답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겠다는 소문을 냈다.

c. 이성을 같이 한 묶음으로 묶은 뜻으로 지은 글이었지만,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없었다.

d. 선비들이 황진이를 아내로 삼고 싶어 글을 바쳤지만 황진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e. 서경덕이 지은 글을 보고 황진이는 서경덕을 남편으로 삼겠다고 했다.

f. 서경덕은 웃으며 자신의 글을 설명하며, 둘이 화답하였다.

이 이야기는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기 위해 찾아가지만 실패한다는 문헌설화의 이야기를 수용하되, 이성관계가 부각되어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고자 했지만 서경덕은 자신의 뜻을 설명하며 끝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문헌설화의 서사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향유층이 달랐던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서사가 새로운 사건의 첨가 없이 유사하게 전승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아마도 서경덕과 황진이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점과 문헌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로 윤색되어 전승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경덕과 황진이가 글 문답 한 이야기가 구비설화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토대로 시적상황을 재구성해 본다면 황진이와 서경덕의 교유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황진이와 서경덕의 교유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① ㅁ음어 어러 後(후) | 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운산)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형여 권가 흐노라⁶⁹⁾

② ㄴ 언지 無信 흐여 님을 속였관디
月沈三更에 온 쫓지 전혀 업너
秋風에 지는 님소리야 님들 어이 흐리오.⁷⁰⁾

69)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19쪽, 재인용.

70) 임주탁, 앞의 논문, 17쪽, 재인용.

③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불과 같아 가고 아니 오도다.⁷¹⁾

①의 시조는 서경덕의 작품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황진이라는 사실은 『동국가선(東國歌選)』⁷²⁾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경덕은 제자가 되어 배우러 오겠다고 약속한 황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식과 덕행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서경덕은 그 약속에 마음이 어린다. 마음이 한 번 혼미해지니 어떤 일이든 손에 잡히질 않는다. 하는 일이 모두 다 어린 것이다. ‘만중운산’은 서경덕이 현재 자리하는 공간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경덕은 기다림이 부질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황진이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못내 버리지 못하고,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황진의 기척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각이 반복될수록 황진이에 대한 야속한 심정은 커지게 마련이며, 결국 서경덕의 내면에 황진이에 대한 ‘불신(不信)’을 키워가게 한다. 위의 시조는 바로 서경덕의 그런 마음 상태를 그려내고 있다.⁷³⁾ 그런데 황진이는 서경덕이 ①의 시조를 부르고 있을 때 찾아왔던 것이다. 『동국가선(東國歌選)』의 기록은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서경덕의 생각과는 달리 황진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밤중에 서경덕을 찾아와 ②의 시조를 지어 부른 것이다.

이야기 문맥을 따져보면 황진이는 한 번도 서경덕을 속인 일이 없고 약속한 날이 달이 없는 밤중인데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서경덕의 노래를 엿들었을 때 되레 야속한 마음을 가질법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까지 찾아왔건만 약속 상대인 서경덕은 자기에

71)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412쪽, 재인용.

72) “서화담(徐花潭)과 약속이 있어 밤에 찾아갔는데, 화담이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초연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노래를 지어 응답하였다.” 임주탁, 앞의 논문, 20쪽, 재인용.

73) 임주탁, 앞의 논문, 20쪽.

대한 불신만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 내지 않은 채 황진이는 서경덕의 마음 상태를 읽고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담아 ②를 지어 부른 것이다. ‘지는 님 부는 바람’ 이 자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만들었다지만, 그것은 황진이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계절은 미풍에도 나뭇잎이 쉬이 떨어지는 가을이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곧잘 떨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자연 현상이다. 그 소리가 서경덕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하였다면, 불신의 원인은 황진이한테 있지 않고 서경덕에게 있다. 황진이인들 자연 현상인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님들 어이후리오’ 라고 반문한 것이다.⁷⁴⁾

여기에서도 황진이 특유의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시조가 각각 황진이와 서경덕의 작품이라는 대는 많은 이견이 있다. 하지만 황진이가 서경덕과 교유할 만한 지적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짐작된다. ③의 작품 역시 황진이가 서경덕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다.⁷⁵⁾

(2) 소세양

양곡 소세양과 황진이의 교유관계는 임방의 『수촌만록』에 전해진다.

양곡 소세양은 젊은 시절에 스스로 배짱이 있다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여색에 빠지면 남자가 아니지.” 그는 송도 기생 황진이의 재주와 인물이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여러 친구들과 이렇게 약속하였다. “내 이 계집과 더불어 30일만 함께 지내고, 30일이 지나면 즉시 헤어지겠네. 그리고 다시는 털끝만큼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네. 만약 이 기한이 지나서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자네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네.”

그가 송도에 가서 황진이를 만나보니 과연 뛰어난 여인이었다. 그리하여 소세양은 그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며 한 달을 기한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이제 내일이면 그녀와 헤어져 가야만 하였다. 소세양은 황진이와 함께 개성 남쪽 누

74) 임주탁, 앞의 논문, 20-21쪽.

75) “창작동기는 화담의 죽음 즉, 임과의 영이별이고 창작정신은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좌절인데 이 경우 있어야 할 것은 사모하는 화담과 해로하는 것이다.” 김연옥, 「黃眞伊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216쪽.

대에 올라 술잔치를 벌였다. 황진이는 조금도 이별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다만 한 가지를 청하였다.

“상곡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 한마디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변변치 않지만 시 한수를 바쳐도 되겠습니까?” 소세양이 허락하자, 황진이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읊시 한편을 써서 주는 것이었다.

달 비치는 뜰에 오동잎은 다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가 노랗게 피었네/
다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사람은 천 잔의 술에 취해버렸네/
흐르는 물은 거문고 가락에 맞춰 서늘하고/
매화 향기 피리 소리에 들어 향기롭구나/
내일 아침 이별한 뒤에/ 그리운 정이 푸른 물결처럼 퍼져 나가리라.

(月下庭梧盡 霜中野菊黃 樓高天一尺 人醉酒千觴
流水和琴冷 梅花入笛香 明朝相別後 情意碧波長)

소세양이 그 시를 읊조려 보고 탄식을 하며 말하였다. “에라!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하고는 다시 놀러 앉았다.

[임방, 『수춘만록』]

소세양은 친구들과의 내기의 대상으로 채주와 미모가 뛰어난 황진이를 선정하여, 30일만 지내기로 한다. 약속했던 30일이 되는 날 소세양은 황진이의 시를 듣고 더 머물렀으며 내기에도 실패하게 된다. 소세양은 자기의 장담을 스스로 탄식하며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다.

소세양은 윤임과 더불어 여러 상소를 통해 정쟁을 하다가 결국 향리로 물러난 기록이 『중종실록』에 있다. 이를 토대로 그의 사람됨과 40세 전 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⁷⁶⁾ 그러나 『수춘만록』에는 소세양과 이별할 때 지었다는 한시에 대한 구체적인 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를 분석한 과정은 생략되고, 그 시가 거둔 성과를 중심으로 시평을 대신하는 것은 당시의 시화서에서 자주 쓰이는 시평방식이라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진실성과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소세양의 태도이다.

이 시에는 서리까지 내려 춥고 스산한 쓸쓸한 가을날 밤,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슬픈 마음이 담겨 있다. 한잔 두잔 이어지는 술에 취해 있으며, 거문고 소리와 물, 피리소리와 매화의 향기로움은 이별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안타까워 지금까지 이루어왔

76) 이병렬, 「역사적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이태준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송실어문』 14, 1998, 송실어문학회, 439쪽.

던 사랑의 정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끝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황진이는 이 시를 통해 소세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소세양은 이 시에 담긴 설득적인 황진이의 표현력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만했던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고,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도 느껴진다.⁷⁷⁾

당대의 뛰어난 문사였던 소세양은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도 알아본 것으로 추정된다.

(3) 지족선사

지족선사는 허균의 『성웅지소록』에서 서경덕과 대비되는 인물로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구비설화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나타난다. 『구비문학대계』에서 지족선사와 관련되는 이야기 2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족선사를 훼손시킨 황진이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구비문학대계』에 실린 ① ‘황진이 일화’⁷⁸⁾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77) “소세양은 처음 정(情)에 끌리는 남녀관계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사대부에게 정식의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란 항심(恒心)이 깨져야 하며 가변적이고 흔들리기 쉬운 애정이 본질이어서 곤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남녀사이의 욕구는 일회적인 관계에서 해소하면 그로써 충분 것인데, 그 일회적이어야 할 것에 혹하여 빠져 든다면 우습지 않은가. 소세양의 장담은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 내면을 부정하거나 위선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황진이가 마지막 날에 작별의 서글픔을 진심으로 노래하자 그 진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그 뒤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으나, 황진이는 분명 소세양과 헤어진 뒤에도 그리움에 찬 나날을 보냈으리라.” 조세형 「그리움과 자존심」,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30쪽.

78) 『한국구비문학대계』 6집 8책, ‘황진이 일화’, 740-743쪽,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이 지족 화상이라고 한다 치면 화상이라 한다 치면 불교지. (중략) 서화담 화담 서화담이 가만 생각해 본게 이것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불교친지가 된다. 말여 그것여. 불교 유교가 싸우는 때여. 화담이 유교여. (중략) 불교를 깨뜨릴 사람이 누구냐 한다 치면 밋이나 황진이란 말에. (중략) 그 여자가 그래서 그 황진이는 또 누구냐면 자기 제자여. (중략) 불러가지고, 네가 뭐시냐? 네 내 말을 듣는다치면 밋이나 유교가 발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유교가 발전을 못허고 이 시상은 전부 스님이 된다. (중략) 소네기가 올 것 같으면 그대로 맞고 들어갔다. 여름이야 여름이다, 얇은 옷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오라. (중략)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인자 선생님 전부 가르켜 줬다 그말이여. 그래서 인자 갔는디 백암을 인자 천마암은 들어가기 전에 비가 왔어. 쏘네기 막 퍼 붓는디 그대로 맞은게. 얇은 옷을 거시기한게 밋이기 알몸하고 똑 같다 그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불교를 대표하는 지족선사가 있었다.
- b. 그때는 불교와 유교가 충돌할 시기였다.
- c. 유교로 대표되는 서경덕이 불교를 깨뜨릴 사람으로 황진이를 택하였다.
- d. 황진이는 서경덕의 제자였고, 서경덕이 시키는 대로 지족선사를 찾아가서 행동하였다.
- e. 황진이의 유혹에 지족선사가 궤절 당했다.
- f. 지족선사를 궤절시킨 황진이가 서경덕도 유혹하고자 했다.
- g.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 h.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작품이 ‘하루저녁 쉬어가는 것은 그것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자고 가.’ 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 i. 불교가 유교보다 지조가 없다고 한다.

『구비문학대계』의 ② ‘송도 삼절’ 79)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십년공부를 목적으로 공부하던 망석증이 있었다.

이여. 그래서 본께 거기를 천마암을 들어가서 지족화상이 어찌게 됐냐면, 솔에 손익의 덮석은 딱 잡고 그런게 아무 정신도 없이 전부 불공이다가 거시기 인자 지성들었던 말이여. 그런히 하루는 저기 기생이 말여. 춤을 출 것 같은 말이여. 알몸 같은께 전부다 인자 여름에 그것 얇은 옷을 입고 역부러 인자 나체여. 나체는 아니라도 그렇단 말에 춤을 춤을 춘다고 요래. 부처도 그것을 보면 웃고 돌아선다 그것여. 춤을 추면 이냥 낭 말그럽게 애교를 아냥 떨고 인자 거시기 한께. 그런게 아 지족화상이 그 한번 껍 돌아보가 눈을 딱감고는 이냥 불공만 목탁만 두드려. (중략) 화답이 그때 당시는 인자 사랑을 혈란게 황진이를 시켰어. 그런데 화담 선생이 시킨 일여. 그래서 인제 황진이 머시냐 발길로 똑 차 버렸다는 것이여. 뒤져버리게 화상이 떨어져 죽어라. (중략) 알았다고 그말이여. 그런게 그때 불교를 깨뜨려 버렸어. 서화답이 깨뜨려 버렸어. (중략) 그 지족화상도 나한테 왜 정절 지조를 깨뜨려가지고 불교를 깨뜨려졌는디, 유교도 깨뜨린다. 그러고 갔드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인자 그 지조를 깨뜨릴라고 가서는 인자 간께 선생님은 뭘시냐 그거 황진이가 와도 눈을 안떠버리고 잠을 자. 잠을 자고 있는께 그냥 계속 잠을 자거든. (중략) 불교를 깨뜨리고 유교를 못 깨뜨렸다가거여. 황진이가 그런게 황진이가 거시기 않는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장해하며 뭘시냐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일월이 만공산하니 하루 저녁쉬어가는 것은 그것을 빨리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자고 가. 그런게 불교가 유교만치 지조가 없다는 거여.”

79)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9책, ‘송도 삼절’, 931-933쪽,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이 망석증이 거서르 약 근 십 년 뉘 십 년 계학을 하고 간 사람이 여하간 구 년이나 했다. 했는데 그래 황진이기생이 가 가지고 애 이 놈망석을 씨길뻘이 없다고 그래 가 가지고 그 망석중 공부하는데 가 가지고 하룻밤 자고가자 칸다. 그 심심산골에 망석중이 가마이 생각해 보이, 저 거로 저냥 놔두면 이 심심산골에서 내보내뿌른 범한테 물려갈 기고 사람이 그 인명을 구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다 카지만 내 지조만 굳으면 고만이지 그럴 수가 있느냐. (중략) 황진이 기생이가 졌에 가서르 방에 눕어 자는데, 책만 디다 (들여다) 보고 글만 일으는데 (읽는데) 여자가 졌에 눕었어도 눈도 끄떡 안보는 기라. (중략) 아무리 지조가 굳다 카지만는 여자가 옷을 벗고 눕고가 있는데 백설결은 궁디를 쭉 내 놓고 있는데 환장할 지경 아인가, (중략)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로 하고 망석을 했는데, 그래 황진이가 그 망석중은 거서르 망석을 씨긴 데(시켰는데), 우리나라서르 명망 제일 높은 사람이 그누구냐? (중략) 그래 황진이가 서경주한테 가 가지고, 서경주한테는 아무리 그런 놀음을 체리고 작동을 쳐도 서경주는 안 꼬여.”

- b. 공부한지 9년이 되었을 때 기생 황진이가 찾아왔다.
- c. 처음에 망석중은 지조를 지켰지만 계속되는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갔다.
- d. 망석중의 십년공부가 무산이 되었다.
- e. 황진이는 망석중을 유혹했던 방법으로 서경덕을 유혹했다.
- f. 서경덕은 끝내 넘어가지 않았다.

①과 ②의 이야기의 주요 화소는 문헌설화와 비슷하다. 그러나 문헌설화는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지만 실패하고 존경한다는 기록에 충실 한다면, 구비설화는 지족선사를 유혹하는 황진이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훼손시키는 방법이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성적인 묘사가 확장되어 구체적으로 구연되고 있으며, 음담패설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확대되어 구전이라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①의 자료에서는 서경덕이 황진이를 시켜 지족선사가 훼손되는 이야기가 첨가 되는데, 이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문헌설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불교보다는 유교가 뛰어나다는 종교에 관한 인식의 차이, 지족선사와 서경덕의 행동의 차이를 통해 설화를 향유한 민중과 사대부의 상이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설화에서는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황진이의 행동보다는 서경덕의 인품이, 구비설화에서는 지족선사를 파계시키는 황진이의 행동과 성적묘사가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만으로는 황진이가 교유한 인물의 양상의 일면만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족선사와 황진이의 교유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이라.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쏜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열어예어 가는거.⁸⁰⁾

위의 시는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파계시키고 이별 한 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⁸¹⁾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내용은 황진이와 지족선사와의 교유를

80) 이능화, 이재곤 역, 앞의 책, 412쪽, 재인용.

81) “이 시는 30년 동안 面壁誦經에만 전심했다는 知足禪師를 파계시키고 이별한 후에 지은 것으로

불교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윤색하여 전승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서경덕과 지족선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문헌설화에도 전해지지만 구비설화에도 전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황진이 설화의 향유층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표현되는 형식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벽계수

황진이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유몽인·허균·이덕형 세 사람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황진이와 벽계수 일화는 구수훈의 『이순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서유영이 1873년에 편찬한 『금계필담』에도 전해진다.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되어 두 문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① 종실(宗室) 벽계수는 스스로 절조(節操)가 굳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황진이에게 유혹을 당하지만, 자기는 유혹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쫓아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얘기를 들은 진이가 말 잘하는 사람을 시켜 벽계수를 지정된 곳으로 유인해 오도록 했다.** 진이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거지 차림으로 벽계수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그의 말벗이 되었다. 벽계수가 거지에게 사는 곳을 물어 개성 송악(松嶽)밑이라고 말하니, 때마침 가을인지라 벽계수는 걸인에게 송악의 가을 경치를 얘기하라 했다. 걸인은 유창한 언변으로 송악의 가을 경치를 얘기하니, 벽계수가 흥취를 못 이기어 걸인에게 같이 가 구경할 것을 제의 했다. 그래서 벽계수를 유인해 일부러 빙빙 돌아, 저녁에 달이 뜬 다음 경치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 벽계수가 나귀를 타고 경치에 마음이 끌려 있는데, 마침 진이가 나귀를 몰고 나타나 고삐를 잡은 채 노래를 불렀다. 즉,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靑山裏碧溪水莫誇易去一到滄海後難復回明月滿空山暫休且如何)” 이렇게 읊었는데, ‘명월’은 진이의 호이다. 노랫소리를 들은 벽계수는 달밤에 한 미인의 청아한 노래를 듣고 그것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나귀에서 떨어졌다. 곧 진이가 가까이 가서 “왜 나를 쫓아버리지 못하느냐?” 하고 비꼬니, 벽계수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져 있다. (중략) 그러나 도위시 할 수 없는 것은 작가가 미친한 기생으로서 고승을 무릎 꿇게 했으나, 그에게 있어 승리와 정복의 자부심보다 실망과 허무가 컸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내심으로 믿고 싶었던 수도자의 고고함이 작자에게 아쉬움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에 선사를 시험해보고자 했던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유혹과 작위 또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본다. 작자는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인간적 신뢰가 사라진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의 슬픔이라면 단순히 이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화형, 「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421쪽.

번지니, 뒤에 과거시험에, “노래를 듣고 나귀에서 떨어지다(聞歌墮驢)” 라는 제목을 출제하기도 했다. [구수훈, 『이순록』]

② 황진이는 송도의 이름난 기생으로 아름다움과 기예가 함께 뛰어나서 그 명성이 온 나라에 가득했다. 왕족 중에 벽계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황진이를 한 번 만나 보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손곡 이달에게 계책을 물었다. 이달이 말하기를,** “황진이는 천하의 풍류객이 아니면 그 마음을 사기 어려운데, 공은 내 말을 따라 그 뜻을 이루겠는가?” 하니 벽계수는 말하기를, “내 마땅히 그대의 말을 따르지.” 라고 했다.

손공이 말하기를, “공은 본래 거문고를 잘 타니 동자로 하여금 거문고를 가지고 따르게 하고, 공이 당나귀를 타고 황진이의 집 옆의 누각에 올라 술을 마신 후 거문고 한 곡을 탈 것 같으면 황진이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 그대를 보러 올 것이니, 그대는 보아도 못본 체 하고 일어나서 곧 당나귀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게. 그리하면 황진이가 반드시 그대를 뒤 쫓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취적교를 지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대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했다. 벽계수는 그의 말에 따라 당나귀를 타고 동자로 하여금 거문고를 가지고 따르게 하고 황진이의 집을 지나 누각에 올랐다. 그가 술을 마시고 거문고 한곡을 탄 후 곧 당나귀에 올라 떠나가니, 과연 황진이가 뒤따라 와서 거문고를 든 동자에게 물어 그가 벽계수라 하는 사람임을 알고는 곧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기를, “청산리 벽계수야 쉬지 않고 감을 자랑마라, 한 번 큰 바다에 이르면 다시보기 어려우니, 어찌 잠깐 쉬어가지 않을 소냐. 명월이 공산에 가득하니 놀다 가면 어떠하리.” 하자, 벽계수가 이 노래를 듣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취적교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당나귀에서 떨어지니, 황진이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벽계수는 멋진 선비가 아니라 풍류객에 불과하구나.”** 하고 곧 돌아가 버렸다. **벽계수는 부끄러워 스스로를 한탄해 마지않았다.** [서유영, 『금계필담』]

①에서는 스스로 절조가 높고 자신을 좇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벽계수를 황진이가 유인 하지만 ②에서는 황진이의 명성을 들은 벽계수가 황진이를 만나기 위해 이달에게 계책을 물어본다. 만남의 동기부터 두 문헌은 차이를 보이지만, 황진이가 벽계수를 조롱하는 행동에는 두 문헌상의 차이가 없다. 기녀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양반의 풍류에 종속되지 않고 양반을 농락하는 황진이의 주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황진이와 벽계수 이야기는 양반의 풍류의식과 기녀의 자의식이 구현되는 양상 중 풍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녀담으로 분석되고 있다. ②에서는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를 읊은 뒤, ‘벽계수는 멋진 선비가 아니라 풍류객에 불과하구나.’ 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벽계수의 그릇과 됃됨이를 간명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그런 인물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능

력이 있어야 하는데, 황진이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벽계수가 취적교⁸²⁾를 건너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아픔과 그리움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벽계수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진이는 취적교의 의미를 상기시켜 보았을 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인물로 해석 할 수 있다.⁸³⁾

①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벽계수를 데려오고, ②에서는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쓴 이달이 계책을 세워주고 있다. 하지만 이 설화는 황진이와 벽계수의 관계는 표면에 드러나지만 벽계수와 황진이를 만나게 해준 사람의 관계는 이면에 숨어버린다. 아마도 “설화의 향유자들은 벽계수의 실존이나, 이달의 개입보다는 詩語에 숨어있는 중의성, 사건이 빚어내는 통쾌함 등에 더 큰 관심”⁸⁴⁾을 가졌던 것 같다.

『금계필담』의 서문에 의하면 편찬자 서유영은 ‘책의 내용이 비록 근거가 확실하지 못할지라도 옛일을 평론하거나 심심풀이의 자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편찬자가 이러한 의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재창작하여 책을 저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벽계수와 황진이의 관계는 황진이 시조의 초장 ‘청산리 벽계수야 쉬지 않고 감을 자랑마라’에서 창안하여 이야기를 재창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황진이의 능력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⁸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들은 황진의 삶과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진이는 교유하는

82) “취적교는 죽음을 슬퍼하고 옛날을 기린다는 내력을 지닌 다리이다. 진나라 상수는 뜻이 원대하나 성글었던 해강과 마음이 밝으나 자유로웠던 여안을 이웃하여 살았는데, 이들은 모두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상수가 다시 이들을 찾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불며 옛날을 생각하고 둘이 함께 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은 것이 <사구부(思舊賦)>인데, 이를 계기로 ‘취적(吹笛)’은 떠나감을 아파하고 옛날을 그리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임주탁, 앞의 논문, 25쪽.

83) 임주탁, 앞의 논문, 25쪽.

84) 이동준, 앞의 논문, 445쪽.

85) 벽계수와 황진이의 교유는 시조에서 창안되어 꾸며진 이야기 혹은 이창곤이라는 사람으로 추측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벽계수는 조선 인종조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이종숙이며, 그의 묘는 원주 문막 동화리에 있다”고 밝힌 글이 있어 주목된다. 강원 원주교육청의 박문성(朴文聖·54·평원문화연구소장)씨는 계간 『시평』 2004 겨울호에서 「황진이의 벽계수는 이종숙이다」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생과 이사종과의 교유 속에서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황진이는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는 주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서경덕과 지족선사의 이야기는 문헌설화 뿐 아니라 구비설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문헌설화에서는 지족선사에 비해 서경덕의 인품이 부각되고, 구비설화에서는 황진이의 여성적 매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두 이야기를 통해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향유층의 의식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임방의 『수춘만록』·구수훈의 『이순록』·서유영의 『금계필담』은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이 서사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황진이와 교유하는 인물과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황진이의 작품세계가 조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소세양은 황진이가 읊은 시에 감동하여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벽계수 또한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황진이가 읊은 시에 반응하였다. 소세양과 벽계수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 문헌과 편찬자는 모두 다르지만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생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흥미로운 요소와 더불어 시인으로서의 황진이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황진이가 율곡 이이·송강 정철·서애 유성룡을 평가⁸⁶⁾한 기록이 『이순록』과 『청야담수』에도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인물들의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강의 시대만을 가지고 창작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황진이가 다양한 계층, 여러 성향의 인물들과 교유하는 모습 속에서 황진이의 진가를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과

86) “오늘날 세 사람의 대인이 있으니, 바로 율곡과 송강과 서애다. 율곡은 참 성인이고, 송강은 군자며, 서애는 소인이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그녀가 대답하였다. (중략) 며칠 뵈는동안 이처럼 사랑해 주시면서도 끝내 나를 범하지 않으신 분은 오직 율곡 대감뿐이었어요. 그 분께서 나를 불러보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주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으니, 그 분은 참으로 성인이지요. 그 뒤에 송강이 또한 빈상이 되어 송도를 지나가셨답니다. (중략) 저녁에 친침을 하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같은 명물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 송강 대감은 돌아오시는 길에도 또한 그리 하셨지요. 나를 보고 그냥 보내주지 않은 것은 사내들의 예사로운 일이었어요. 그 처사를 광명정대하게 하면 곧 군자지요. 서애 대감도 사신으로 이곳을 지나시다가 나를 불러보셨답니다. (중략)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지인을 보내어 나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모시게 하고는 이른 새벽에 물러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처사가 극히 명쾌하지 못하였어요. 이 때문에 그 분이 소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작자미상, 『청야담수』, 김동욱 역, 『국역 청야담수』, 보고사, 2004, 295-298쪽.

그에 관련되는 황진이의 작품을 연관시켜보면서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들의 일화가 단순히 황진이의 남성편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황진이의 내면세계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최후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시화집은 한시에 대한 비평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황진이 설화는 황진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행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편찬자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황진이의 유언에 관한 언급 역시 문헌마다 다르게 전해진다.

① 훗날 진이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살면서 성품이 분방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소. 죽은 뒤에도 나를 산골짜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마땅히 큰길가에 묻어 주오.” 지금 송도의 큰길가에 진이의 묘가 있다. 임제(林悌)가 평안도사(平安都事)가 되어 송도를 지나면서 진이의 묘에 축문을 지어 제사지냈다가 끝내 조정의 비방을 입었다. [유몽인, 『어우야담』]

② 내가 갑진년에 본부(本府)의 어사(御史)로 갔을 적에는 병화(兵火)를 막 겪은 뒤라서 관청집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나는 사관을 남문(南門) 안에 사는 서리(書吏) 진복(陳福)의 집에 정했는데, 진복의 아버도 또한 늙은 아전이였다. 진량과는 가까운 일가가 되고 그때 나이가 80여 세였는데, 정신이 강건하여 매양 진량의 일을 어제 일처럼 역력히 말했다. 나는 물기를, “진량이 이술(異術)을 가져서 그러했던가?” 하니, 늙은이는 말하기를, “이술이란 건 알 수 없지만 방 안에서 때로 이상한 향기가 나서 며칠씩 없어지지 않았습디다.” 했다. 나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여러 날 여기에서 머물렀으므로 늙은이에게 익히 그 전말(顛末)을 들었다. 때문에 이같이 기록하여 기이한 이야기를 더 넓히는 바이다. [이덕형, 『송도기이』]

③ 죽을 무렵에 집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출상(出喪)할 때에 제발 곡하지 말고 풍악을 잡혀서 인도하라.”하였다. 지금까지도 노래하는 자들이 그가 지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또한 특이한 인물이었다. (중략) 대저 송도는 산수가 웅장하고 꾸불꾸불 돌아서 많은 인제가 나왔다. 화담의 이학(理學)은 국조(國朝)에서 제일이고, 석봉의 필법(筆法)은 해내외에 이름을 떨쳤으며, 근자에는 차씨(車氏) 부자와 형제가 또한 문명(文名)이 있다. 진량도 또한 여자 중에 빼어났으니, 이것으로써 그의 말이 망령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허균, 『성용지소록』]

④ 황진이 죽게 될 즈음, 집안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저는 천하 남자를 위하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죽거든 금수(衾襪)도 관도 쓰지 말고, 옛 동문 밖 물가 모래밭에 시신을 내버려서 개미와 땅강아지, 여우와 삿갓이가 내 살을 뜯어 먹어, 세상 여자들로 하여금 저를 경계 삼도록 해주세요.”라 했다. 집안사람이 그 말대로 했는데, 한 남자가 그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었다. 지금 장(長湍) 입우물재(口井峴) 남쪽에 황진의 무덤이 있다. [김택영, 『송도인물지』]

①은 황진이를 추모하다 조정의 비판을 받은 임제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편찬자 유몽인의 개인적인 의식을 알 수 있다. 유몽인은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황진이의 작품은 배제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과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서 황진이의 성격과 외모에서 ‘성품이 고결하여 변화하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는 이덕형의 『송도기이』의 내용과도 차이를 보인다. 유몽인은 『어우야담』에서 황진이의 행적은 그대로 신고 있지만, 마지막 서술 단락에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 말을 하는 황진이, 그리고 황진이를 추모하는 임제에 대한 조정의 비판을 담고 있다. 한편 황진이의 유언은 우리나라 습속대로 산골짜기 조용한 곳 아닌, 사통팔달하는 개성 큰길 옆에 무덤을 써달라는 것이다. 이는 황진이 자신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모습으로, 죽은 뒤에 찾아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가능성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②는 황진이의 죽음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①의 문헌과는 다르게 황진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이하고 신비한 황진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③에서는 편찬자 허균이 황진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화담 서경덕이 아낀 제자이기도 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만나기 위해 화담으로 갔고 서경덕이 그녀를 문하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황진이는 서경덕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도 교류하였을 것이다. 서경덕의 제자 중에서 황진이와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바로 허엽이다. 허엽이 스승인 화담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 황진이를 만나 그녀의 인생역정을 들었고, 이것이 아들 허균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본다면 『성웅지소록』에는 황진이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⁸⁷⁾ 허균은 황진이를 화담의 이학(理學), 석봉의 필법(筆法), 차씨(車氏) 부자와 형제의 문명(文名)에 견주어 황진이의 뛰어난 점을 평가하고 있다. ④에서 황진이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이 구절은 천하의 남자들과 어울리느라 또는 남자들과의 관계에 치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녀의 반성이 담긴 유언이다. 여기에서 반성의 초점은 그녀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남자들과 어울렸다는 점에 있다.⁸⁸⁾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시신을 버려, 동물들에게 자신의 살을 뜯기는 고난을 자처한다. 허균의 『성용지소록』에서 곡하지 말고 풍악을 울리는 것을 당부하는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김택영은 고려 충신의 후예인 개성 사람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사관임을 자부하여 중국에 망명하여 조선망국사인 『한사경』을 쓴 명분론자였다. 가부장적 사대부 집안의 명분론적 입장에서, 여성의 자유분방함을 경계하려는 목적에서 보수적인 평가⁸⁹⁾를 내렸다. ①②③문헌은 17세기 전반기에 발견되는 황진이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기록은 다른 기록들에 비해 ‘기이성(奇異性)’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전체 삶 중에 탄생과 죽음은 다른 삶에 비해 환상적인 경우가 많다. 탄생은 태몽을 중심으로, 죽음은 기이한 행적으로 칭송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여러 문헌에 실린 황진이 설화 기록의 양상을 성명(姓名)과 기명(妓名), 신분과 출생설화의 변용, 재색(才色), 교유인물, 최후 기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번호	자료	저자	출생	유언	화담	지족	이사종	이언방	이생	엄수	양곡	송공	벽계수	임제	총각	작품 소개
1	『어우야담』	유몽인		○	○		○		○					○		
2	『송도기이』	이덕형	○		○					○		○				

87) 김탁환, 앞의 책, 317쪽.

88)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171쪽.

89) 박광용, 앞의 논문, 58-59쪽.

타난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들은 소설로 변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황진이 설화는 끊임없이 문헌에 기록되었으며, 편찬자마다 다르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시는 지식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양이었고, 남성을 상대하는 기녀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지녀야 했다. 황진이는 남성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시적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시에도 뛰어났다’는 문헌설화의 서술만으로는 황진이의 시적 능력을 제대로 조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분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시에만 집중하였던 시평집의 내용과 황진이의 작품에 대한 해석도 살펴보았다.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들도 문헌설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서경덕과 황진이의 교유는 유몽인·이덕형·허균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경덕의 문집에서는 황진이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반 사대부 문집에는 기녀와의 교유를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남성들과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 황진이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교유인물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작품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문헌설화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논의된 4편의 구비설화는 문헌설화와 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서경덕과 대비되는 인물인 지족선사의 예를 통해 황진이의 행동과 성적매력을 중심으로 황진이 설화를 향유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황진이 설화는 어느 것 하나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황진이의 개인적 삶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화를 토대로 황진이의 삶을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설화의 기능적 측면인 열린 구조로써,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⁹⁰⁾ 그렇기 때문에 황진이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황진이 설화는 Ⅲ장의 황진이 소설에 나타난 설화의 수용 및 변용의 양상을 확인할 틀거리로 사용할 것이다.

90) 심치열, 앞의 논문, 313쪽.

Ⅲ. 황진이 설화의 소설적 변모

황진이 설화와 소설은 서사라는 동일한 맥락을 구비하고 있다. 황진이 설화 안에는 인간 황진이의 세밀한 내면까지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황진이라는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된다. 따라서 근대 소설가들은 황진이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즉, 근대 소설작품들을 통해 황진이 설화는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계속 발전해 나갔다. 본 장에서는 황진이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재창작된 현대 소설작품들을 분석하여 황진이 설화가 소설 장르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시대적 상황과 작가 의식에 따라 변모되어 온 황진이 소설을 각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1930년-1950년대 소설 속 황진이

1895년경부터 1910년 사이에는 ‘역사·전기류 문학’이란 양식이 존재했다. 역사·전기소설은 1905년 을사 5조약 이후 대량으로 창작 발표되기에 이른다. 특히 애국계몽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역사·전기소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국권을 상실한다는 위기감의 확대에 비례하여 이른바 역사·전기 문학의 생산량도 증가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전기소설은 근대계몽기의 정치적·사회적 담론의 생산물이자 철저히 시대적 산물이었지만, 그 문학적 형식은 전류(傳類)문학이나 군담계 소설과 같은 전대 문학의 양식을 이어받고 있다. 조선후기 야담에서 발원한 ‘서사적 논설’의 글쓰기 방식은 ‘인물기사’와 같은 단형서사들로 이어지며, 이들은 다시 ‘역사·전기소설’ 생산의 토대가 된다. 조선후기 야담의 문학적 성과는 왕조의 몰락과 함께 단절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대계몽기라는 시대적 제 조건 속에서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

로 전이되고 계승된 것이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이르면 상당수의 활자본 고소설들이 활발하게 생산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들 중 전대의 역사소설이나 민족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독자층의 확대를 통해 역사소재 활자본 고소설들은 근대의 역사소설이 발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1920년대는 역사를 민족적 삶의 일부로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층 고조된 시기였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학적 체계로 굳어져 이른바 근대 사학이 성립되었다. 역사에 대해 고조된 관심은 1920년대 후반 역사의 문예화를 운동의 차원에서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야담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야담운동은 역사적 사실을 끌어와 대중의 흥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계몽하고자 했다.⁹¹⁾ 황진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1920년대의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재조명된다.

황진이의 일대기를 본격적인 서사물로 재구성한 자는 차상찬이다. 그의 글이 실린 『별건곤』 1929년 8월호는 한 권의 잡지가 거의 기인기담으로 채워진 ‘기인기담호(奇人奇談號)’로 특별 기획되었다. 황진이는 “통쾌무쌍 기인편”에서 ‘여류 대기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곧 역사성이 기이성 및 대중성과 결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 글을 쓴 차상찬은 황진이 외에도 많은 고전 여성 이야기를 발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근대에 이르러 이야기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고전의 ‘여성’을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여류대기인 개성 명기 황진이」의 의의는 자료의 정리 및 이야기의 소비와 유통에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전의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황진이의 일대기를 재구성하고,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전의 신문들에서 황진이의 작품을 단편적으로 소개한 적은 있으나, 일대기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은 그로부터이다. 차상찬 등에 의해 주도된 고전 여성 이야기의 기술은 적극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는 여성 이야기의 한 출발점이다. 즉, 그의 고전 여성의 이야기는 역

91)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62-166쪽.

사를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양식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서, 기이성을 내세운 여성 이야기가 역사성과 결합하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행사한 예이다. 야담 운동의 실천가였던 그에 의해 여성 이야기의 소비 차원에는 ‘오락’과 ‘계몽’의 맥락이 하나 더 보태지게 된다.⁹²⁾

이렇듯 한국의 근대 역사소설은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 및 1920년대 초반의 역사 단편류 등을 전사(前史)로 하여 1930년대에 이르면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부각된다. 1930년대의 역사소설의 창작은 사회적 여건의 악화라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일제는 조선인의 완전한 일본인화에 큰 비중을 두고 식민지 정책을 전개시켰는데, 이러한 식민지 정책은 곧 신문·통신·잡지 등 언론과 사상에 대한 탄압과 검열로 이어졌다. 객관적 현실의 악화는 현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결국 작가들은 과거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역사소설 창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⁹³⁾

1930년대에는 역사소설이 신문연재소설란⁹⁴⁾에 확고히 정착되고 번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전대 서사문학의 잔영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 시기의 역사소설은 야담 혹은 설화의 일부를 제재로 삼는 한편 고소설의 서사 기법을 끌어오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담화적 층위에서의 교섭 양상으로 파생됐다. 정확히 말해 전대 서사문학 전통의 수용과 함께 그에 대한 담화상의 모방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전대 서사문학의 잔류가 이 시기 역사소설에서 현저히 목격되는 부분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이 빈곤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중 독서물로서 흥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외적 강제가 큰 요인이었다.⁹⁵⁾ 신문소설을 통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은 매우 직접적이다. 독자의 반응은 즉시 편집자와 작가에게 전달된다. 소설 텍스트의 표층적 서사요소 즉, 줄거리·배경·주인공의 성격·표면적 메시

92) 우미영, 앞의 논문, 172-173쪽.

93) 이승윤, 앞의 논문, 102쪽.

94) 신문과 소설의 관계는 특별하다. 문학사에서 중요한 장편소설은 거의 신문에 연재되었으며, 연재 소설은 신문 판매부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였다. 황진이 소설도 1980년대까지 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다.

95)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13-117쪽.

지 등에 독자의 관심과 이해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신문소설은 독자의 사회심리와 문화적 유행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매개라 할 수 있다. 신문소설의 독자야말로 그 계층적 부면이 가장 넓었다.⁹⁶⁾ 그러나 1935년 이후에는 신문의 상업주의적 속성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문연재소설도 점차 통속성을 띠기 시작한다. 그러나 장편소설의 발표지면이 신문뿐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은 저널리즘의 상업적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 대중독서물로 인기를 누린 역사담물의 주요 소재들이 역사소설로 수용되었던 것처럼 황진이 설화 역시 신문지면을 통해 소설화되었다.

황진이를 처음 소설화 한 이태준은 사실 ‘황진이를 쓰기보다 읽고 싶어 한 사람’⁹⁷⁾이었다. 그러나 황진이에 대한 작가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성면에서는 높은 평가⁹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태준의 『황진이』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의의도 있다.

9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 역사, 2003, 324쪽.

97) “실상, 나는 황진이(黃眞伊)를 쓰기보다 읽고 싶어 한 사람이다. 중앙(中央日報)에 있을 때 몇 분 선배에게 두루 황진이를 청해 보았으나 모다, 한번 써보고는 싶으나 기약을 할 수 없노라 하여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것인데, 내가 동보(洞報)의 객원(客員)으로 나왔으며 첫 청(請)을 받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황진이였다.” [이태준, 『황진이』, 224쪽]

98) 이태준의 『황진이』에 대한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평론가들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황진이에 대한 작가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소설적으로는 그다지 훌륭한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야담이나 야사를 통해 전해지는 기록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을 뿐, 황진이에 대한 새로운 인물해석이나 형상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엄격한 계급 중심의 조선 신분사회를 비판하는 대목이 삽입되어 있기는 하다. 황진이의 서녀라는 황진이의 신분적 한계는 이른바 ‘서자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이태준 자신의 그것과 어느 정도 겹쳐지면서, 양반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지 못한 듯 보이고, 기생이 된 후의 황진이의 삶은 야사에서 전하는 대로 무수한 남성 편력의 그것으로 그려진다.” 황도경,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홍석중과 전경린의 『황진이』-」, 김재용 편, 앞의 책, 대훈, 2006, 133쪽. 반면 김미영은 이태준의 『황진이』는 ‘담백한 미를 가진 기생’의 형상화에 탁월함을 보이면서, 최근의 작가들이 황진이를 ‘신비화’ 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미영,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참조.

1) 봉건적 유교이념의 반항자- 이태준의 『황진이』

이태준의 『황진이』는 상편·중편·하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황진사의 서녀로 어머니 현금과 함께 송도에 사는 황진이는 글에 능하며 자색이 아름다웠다.
2. 황진이는 양반가의 자제들과 혼담이 있었으나 서녀라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당하고,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3. 황진이를 짝사랑 한 글방 총각이 상사병으로 죽게 되고,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4. 황진이가 속적삼을 덮어주자 관이 움직였다.
5. 총각의 죽음을 계기로 황진이는 기생이 된다.
6. 기생이 된 황진이는 송도 유수 송화영과, 김참판 그리고 기생 성산월이 참여한 꽃놀이에 참가한다.
7. 황진이는 시와 노래로 성산월을 압도하고, 송유수의 유혹을 기지로 피한다.
8. 김참판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 전 혼담이 오갔던 김지학의 아버지다.
9. 황진이는 김참판이 여는 시회(詩會)에 가다가 남편이 될 뻔한 김지학을 만나게 된다.
10. 황진이는 시회 대신 김지학과 함께 귀범사의 지족선사를 찾아간다.
11. 황진이는 절에서 내려와 그들 부자를 농락하기 위해, 김지학과 하룻밤을 보낸다.
12. 다음날 황진이는 김참판이 보낸 백마에 김지학을 태워 보낸다.
13. 황진이는 시문에 능한 소세양과 함께 30일을 보낸다.
14. 황진이는 이별하려는 소세양에게 시를 지어 주고, 소세양은 더 머물게 된다.
15. 황진이는 소세양의 편지로 벽계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여자에 대해 벽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벽계수를 유혹한다.
16. 명창 이언방·악공 엄수·선전관 이사종과의 만남이 차례로 그려진다.
17. 기생 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황진이는 예전에 목격했던 지족선사를 찾아간다.
18. 황진이의 유혹에 지족은 태연하게 대처한다.
19. 황진이는 지족에게 소리치고 흙덩이를 던져본다.
20. 황진이는 움직이지 않는 지족을 보며 자신은 도(道)에 애달픔이 아니라 정(情)에 애달팠음을 깨닫는다.
21. 황진이는 서경덕에 대한 칭송을 듣고 그를 찾아가 유혹하나 서경덕은 움직이지 않는다.
22. 황진이는 서경덕을 송도삼절로 칭하고 스승으로 섬기지만, 구속을 느낀다.
23. 황진이는 이사종을 만나 6년을 함께 지내보지만, 이사종과 헤어지는 것보다 청춘과 헤어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24. 세월이 지나 황진이는 옛 일을 회고하다 문득 지족선사가 그리워진다.
25. 무안을 당한 것에 복수를 하기위해 황진이는 송악산으로 향한다.
26. 황진이는 의연하게 앉아있는 지족을 향해 위선 덩어리라고 소리친다.
27. 황진이는 지족의 옆에서 잠들었는데, 지족의 떨리는 손길을 느꼈다.

28. 황진이와 지족은 다음날 지족암을 나섰다.
 29. 황진은 금강산으로 가리라 하여 동쪽을 택하고, 지족은 북쪽을 향하여 갔다.
 30. 황진은 이미 고인이 된 화담 선생의 묘에 들러 안부를 전하고, 금강산 길을 향해 나섰다.

이태준의 『황진이』의 줄거리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황진이 설화가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에 있어 인물은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 되어 작품의 성격과 주제를 전달해 준다. 때문에 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소설의 세부 내용은 잊어버려도 인물의 특성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소설이 ‘인간의 탐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인물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태준의 『황진이』에서는, 인물의 특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설화 속 인물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기본적인 성격을 창조하고, 설화의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오, 너 이새끼 용쇠 녀석이구나?” (중략)
 “거짓말이지? 글방은 무슨 글방, 글방에 다니는 녀석이 이런 짓을 해?” 그러나 자세히 보니 소년의 옷에 군데군데 먹이 묻기는 하였다. “응 이새끼야?” (중략)
 “오-라, 훈장네 제사 두 번만 지내단 너희 모두 불한당 새끼 되겠구나. 망할 자식들…… 뭐구 다 끌러와라, 굶은 걸루만 뺏겠구나.” (중략)
 “이새끼 왜 저 개구멍으로 썩 못겨나가? 하늘에서 은사슬이나 내려오길 기다리니? 하는 편잔을 받고야 더퍼더필 수챗구멍으로 가서 배밀이를 해 기어나갔다.
 [이태준, 『황진이』, 15-18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자신의 집에 월담하여 배서리를 하는 글방 충각을 혼내는 대목이다. 황진은 남성과 내외하지 않고 잘못을 꾸짖고 거침없이 욕도 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태준은 설화의 한 줄 기록이었던 ‘여자이면서도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협한 기개가 있었다’는 대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황진이의 성격을 짙 짙하고 거침없이 묘사하였다.

주는 것은 비록 한 벌 적삼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그 비인 적삼 속에는 처녀로서의 명예 전부가 싸여 가는 것이다. (중략) “이것 내다 줘. 이 적삼으로 관을 덮어주라고.” (중략) 진이의 적삼과 당혜가 나간 뒤에야 얼마 안 있어 위-형 소

리는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다. (중략) ‘날더러 온전한 양반이 아니라고! 인전 날더러 또 온전한 처녀도 아니랄 테지! 흥…… 구구한 도덕이나 그 따위 고열한 제도에 묶여서 살 나도 아니다!’ 하루 아침은 약그릇을 갖다놓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다. 진이는 양치부터 하고 열른 녹어지지 않는 입술을 바르르 떨다가, “나기……기생이 되겠어요.” 하였다. [이태준, 『황진이』, 85-89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자신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상여에 적삼을 덮어주고, 기생이 되기를 결심하는 장면이다.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모티프는 황진이의 외모를 부각시키는 이야기의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태준은 절름발이 양반인 황진이가 ‘구구한 도덕’이나 ‘고열한 제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기생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황진이가 기녀가 된 것은 반상철폐를 주장하는 저항과 동시에 여성 해방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된다. 즉, 기녀가 된 것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현실세계로 뛰쳐나가자 하는 적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선택은 비인간적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대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만큼 이태준도 저항적 주제를 직접 전달하기 보다는 은유적이며 대중적인 취향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인물의 살아있는 성격 부여와 작가의 재해석은 이 작품이 황진이 설화와는 구별되는 글쓰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이태준의 『황진이』는 설화의 단순 재현이 아니며, 여전히 봉건적 신분제가 존재했던 1930년대의 상황을 반영한 ‘다시쓰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담은 태연히 팔을 벌려 실 한오리 걸드리지 않은 명월을 품어준다. 그러나 품었을 그뿐, 조금도 다른 빛이 보이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명월은 삼절의 하나로 화담의 도덕을 찬탄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에게서 너무 자연을 삭탈하려는 데는 오히려 반감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준, 『황진이』, 205-207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화담 서경덕을 찾아가서 시험해보는 대목이다. 그런데 화담은 그녀의 유혹 앞에서 태연하게 잠이 든다. 다음날 아침 황진이는 송도삼절을 말하며, 화담에게 배움을 청한다. 하지만 황진이는 화담의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구속이 느껴지고, 본성을 억누르는 화담에게 오히려 반감을 가진다. 이태준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와 화담 서경덕과

의 관계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태준에게 애송이 김지학은 황진이와 상대가 안 되는 인물로, 서경덕이나 소세양등은 유교주의에 함몰된 인물들로서 자유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들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지족은 그 모든 것들을 탈속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99)

‘아픈 건 아픈 게여. 다른 별 건 아니여…… 얼마나 단순한 말인가? **구태 속살 경영할 건 아니여……** 얼마나 번두리 없이 넓은 말인가? **지족이야말로 거물이로다! 불잡을 모서리가 없는!** 생각이 고쳐 든다. 명월은 무릎을 치며 일어났다. 이런 거대한 사나이를 가져봄이 흐뭇하다. (중략) 날이 트이자 지족과 명월은 함께 지족암을 나섰다. [이태준, 『황진이』, 220-221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자신에게 6년 전 무안을 주었던 사내 지족선사를 그리는 대목이다. 이 소설에서 지족은 설화에서처럼 과거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으로 형상화된다. ‘구태속살 경영할 건 아니여’ 라는 말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상편에 비하여 중편과 하편은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되며, 다음과 같은 전기적(傳奇的) 요소의 기이담(奇異譚)도 수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손은 앞에 놓인 물대접을 다가놓더니, 종이쪽에 고기 어(漁)자를 써서 담그는 것이다. 그러자 물만 담겼던 대접 안에 웬 손뼉 같은 붕어 한 마리가 꼬리를 철썩거리 물을 엮지르는 것이다. 명월은 입을 딱 벌리었다. 그러나 화담은 빙그레 굳이 웃을 뿐이더니 아우가 들었던 붓을 받아 자기는 용 룡(龍)자를 써서 흘러가는 냇물에 던지는 것이다. [이태준, 『황진이』, 202-203쪽]

이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독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차원에서 수용된 것이다. 당시 신문저널리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문소설이기에 가능한 시도이자 신문소설이기에 마땅히 수용해야 할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삼입하고 그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이태준의 『황진이』는 황진이 역사소설 모본의

99) 김미영, 앞의 논문, 94쪽.

하나로 탄생했다.¹⁰⁰⁾ 이태준의 『황진이』에 나타난 내용을 황진이 설화의 제 요소들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⁰¹⁾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수용 및 변용 양상	이태준의 『황진이』
I	신분 및 출생	생물연대	×	명확하지 않다.
		출생	×	병부교에서 만난 황진사와 진현금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진현금은 황진사의 소실이라 황진이가 온전한 양반이 아니라는 설정이다. 황진이의 어머니 진현금이 악기를 다루거나 맹인이었다는 이야기는 형상화되지 않았다.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기생이 되는 계기가 되며, 상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모티프이다. 상편에서는 황진이의 심리가 잘 표현되었다.
II	재색(才色)	문학적 재능	○	기생이 되기 전부터, 시와 그림·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느질 솜씨도 언급 된다.
		음악적 재능	○	
		성격과 외모	○	신비화 된 외모와 꾸미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호탕한 성격으로 그려진다. 황진이 설화의 서사를 대부분 계승하였다.
III	교유인물	소세양	○	황진이 설화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물과의 교류 관계를 그렸다. 허균의 『성웅지소록』에서만 간단히 언급되는 지족선사와의 이야기가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서경덕과의 관계가 부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황진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이상형이 제시된다.
		백계수	○	
		지족선사	△	
		서경덕	△	
		송공	○	
		이사종	○	
		이연방	○	
염수	○			
IV	최후 기록	이생	×	황진이 혼자 금강산을 떠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이생과의 금강산 유람에 관한 이야기는 형상화되지 않았다. 황진이의 죽음과 길가에 무덤을 만들라는 유언이 나오지 않은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유언	×	
		임제	×	
V	작가 의식	작품의 삽입	○	황진이의 시는 6수가 등장하며 중편과 하편에서는 24수의 시가가 집중적으로 제시된다. 사건의 전개는 극도로

100)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4쪽.

101) 기호로 나타낸 수용양상은 황진이 설화 모티프의 수용과 변용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는 설화의 내용적 계승을 나타낸다. 작가의 새로운 해석 없이 서사만 확장된 것도 계승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와 ▲표시는 변용의 여부이다. 변용은 반드시 활용한 모티프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야 한다. △는 황진이 설화를 토대로 비교했을 때 부분적인 변용, ▲는 작품전체를 통해 볼 때 서사적 긴밀성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변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황진이 설화에서는 파계한 지족선사의 모습만 나타났지만 이태준은 깨달음을 얻어 파계한 지족선사의 모습을 그렸다.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 지족선사는 새로운 인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는 삭제되어 나타 않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표에서 설정된 기준은 이태준의 『황진이』 뿐만 아니라, 이후 작품을 살펴볼 때도 적용될 것이다.

			축약되고 과도한 시의 삽입으로 인해 서사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기생이 되기 전 혼담이 오고갔던 김판서의 자제 김지학과 과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설적 특성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변용으로 볼 수 있다.

<표5> 이태준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표5>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황진이 설화 분석을 토대로 이태준의 『황진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 모티프로서 황진이 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이태준의 『황진이』에서 살펴본 사건이나 인물을 표시했다. 황진이 설화에서는 최후 기록에서 황진이를 평가한 편찬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소설에서는 황진이 작품의 삽입,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의 창조 등의 장치를 통해 작가 의식이 드러난다. 한편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부분을 재색(才色)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이태준은 황진이가 기생이 된 배경으로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태준은 양반이 될 수 없는 신분제도를 비판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앞서 밝힌 바 있듯 황진이 설화의 단편적 기록이 허구적 서사로 확대·재생산되는 한편 근대적 매체인 신문을 통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최초의 황진이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그리고 후대 작가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2) 설화에서 복원된 여성시인 -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

1955년에는 박종화의 단편 「황진이의 역천」이 잡지 『새벽』에 발표되었다. 박종화의 작품은 진현금과 황진사의 만남부터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소세양과의 교유, 서경덕과의 교유 등 기존의 황진이 설화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편 양식임에도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수용 양상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
I	신분 및 출생	생물연대	×	명확하지 않다.
		출생	○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출생 설화의 서사를 계승하여 확장하고 있다. 황진이의 어머니 진현금이 맹인이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황진이는 글 잘하고 문필 좋은 양반과 혼인을 하고 싶어했으나, 절름발이 양반이라는 것을 꺼려 거론하는 이도 없었다. 진이를 보고 반한 총각이 병이 나서 총각의 어머니가 자식을 살려 달라 부탁한다. 그러나 황진이와 진현금이 거절하여 돌려보내고 얼마 후 총각이 죽게 된다. 사춘기에 든 황진이에게 이 사건은 충격이 된다. 총각의 죽음은 기생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II	재색(才色)	문학적 재능	○	어릴 적부터 사서와 삼경을 읽은 뒤에 읊 짓기, 부(賦) 짓기와 글씨 쓰고 난초 치며 거문고 즐까지 고를 줄 알았다. 어머니 현금이 정성껏 가르쳤기 때문이다.
		음악적 재능	○	
		성격과 외모	○	신비화된 외모와 꾸미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외모 부분의 서사를 계승하여 확장하였다.
III	교유인물	소세양	○	문헌설화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물과의 교유관계를 그렸다. 작가의 새로운 해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벽계수	○	
		지족선사	○	
		서경덕	○	
		송공	×	
		이사종	×	
		이연방	×	
		염수	×	
이생	×			
IV	최후 기록	유언	○	김택영의 『송도인물지』에서 나타난 유언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임제가 황진이를 위해 지은 시가 나타난다.
		임제	○	
V	작가 의식	작품의 삽입	○	황진이의 시는 4수가 작품의 서두에 소개되며, 황진이를 흠모한 작가의 화답이 나타난다.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짧은 단편소설이라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의 창조 없이 문헌설화의 서사를 계승하여 확장시켰다.

<표6>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 양상

박종화의 작품에서는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의 서사만 확장되었을 뿐 대부분은 황진이 설화의 내용들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박종화는 1925년 『신여성』에서 당대 기생에 대해 “구역이 나도록 추

하고 당하다” 라는 평가를 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옛 조선조 기생은 그와는 대립되는 “훌륭한 예술가” 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태준에게서도 나타난다. 「기생과 시문」에서 상허는 진짜 기생은 “고전” 이 되어 사라지고 만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월탄과 상허에게 우아함과 교양을 두루 갖춘 조선시대의 품격 높은 기생은 당대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사라진 존재이다. 이 과정에서 옛 조선 기생은 이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전범이 된다. 이처럼 근대의 지식인들에게서조차 조선시대 기생에 대한 동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동경하는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기생 또는 “고전” 적인 “진짜” 기생은 유교적 양반 남성의 예절과 도덕의 범주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황진이’에 대한 동경은 곧 조선조 유교적 양반의 남성과 예절과 도덕의 범주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황진이’에 대한 동경은 곧 “세련된 교양인”으로서 조선시대 사대부의 “고급한 취향과 취미”에 대한 동경이다.¹⁰²⁾ 이러한 박종화의 관점은 존경하는 황진이에 대한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지니겠다는 작품의 초입부에서도 드러난다.

진이眞伊의 시조는 오늘날 네 수가 전해 온다. (중략) 진이보다 사백 년 뒤에 진이가 살고 있던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사백 년 전의 진이를 흠모하여 이렇게 황진이의 시조를 화답해본다. [박종화, 「황진이의 역천」, 44-45쪽]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박종화는 황진이를 시적화자로서 만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황진이가 죽음에 이르러 유언을 남기고 문인 임제의 시조를 삽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¹⁰³⁾ 이처럼 박종화는 황진이를 훌륭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1930년 이후에는 역사소설이 확고히 정착되고 번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전대 서사문학의 잔영은 여

102) 우미영, 앞의 논문, 184-185쪽. 이 논문에 따르면 박종화는 1935년 8월 「삼절부」란 제목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충하여 「황진이의 역천」을 다시 발표하였다고 한다.

103)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율곡 이이와 시대를 같이했던 천재시인 임제는 황진이를 만나보려고 일부러 개성까지 내려갔다가 황진이가 여러해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자 진이의 무덤을 찾아서 술 한잔을 붓고 이런 시를 읊어서 진이를 조상하였다. (중략) 천재 시인 임백호도 이대도록 마음속으로 황진이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다.”

[박종화, 「황진이의 역천」, 77-78쪽]

전혀 존재했음을 앞서 살폈으며, 박종화의 작품도 전대 서사문학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황진이를 여성시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육체적·정신적 사랑의 실천인- 정한숙의 『황진이』

1955년에는 정한숙의 장편 『황진이』와 박종화의 단편 「황진이의 역천」이 나란히 신문과 잡지에 발표되었다. 이태준은 황진이의 성적매력보다 깨달음을 얻는 구도자·저항인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하였으나, 정한숙은 육체의 에로티즘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황진이의 모습을 그렸다. 황진이 소설에서 동일하게 서사화되는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는 정한숙의 작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한숙의 작품에서 황진은 신분의 갈등이나 혼사장애 없이 총각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육신의 즐거움이 영혼의 기쁨에까지 승화할 수 없는 것 따위는 인간 시초부터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던 황진은 총각의 죽음을 통해 ‘상사의 즐거움이란 마음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나비가 깃들이지 못할 꽃이라면 요화(妖花)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적 충격은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진이 역시 내디딘 발걸음을 거둘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근처 총각이 저로 하여금 죽었사온즉 아무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미색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온즉, 장차 이 일을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미색을 탐내는 사내들 옆으로, 미색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내들 옆으로…….”

진이는 그럼으로써 이미 죽어버린 총각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았고, 자기가 풀어야 할 업원(業冤)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한숙, 『황진이』, 23-24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다. 황진은 총각이 자신에게 마음조차 표현 못하고 죽은 것은 문벌의 탓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문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총각의 영혼을 위로

하는 마음에서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황진이가 기생이 된 이후의 삶은, 여러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한 육신의 즐거움으로 정신적 승화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한숙의 황진이 묘사에서는 선정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뜨거운 숨길이 그들의 목을 몇 겹이고 휘감아 놓을 뿐이었다. 유수의 품에 달라붙은 진이의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심장의 고동이 젓가슴에 부딪혀 거센 파도를 일으키지만, 온몸이 떨리도록 스치는 흥분은 언제까지나 진이로 하여금 유수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게 했다. [정한숙, 『황진이』, 42쪽]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정한숙의 작품에는 자극적인 성적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서사 전개상 꼭 필요하다거나 인물 형상화에 긴요하다고 볼 수 없는 이 같은 장면의 배치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주력한 신문 소설 일반의 미학이기도 하다.¹⁰⁴⁾ 한편 정한숙의 작품에서는 송유수의 소설 춘화 등 다른 여성과의 갈등도 중요한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

송 유수의 소설로서 반발하는 투기심이 분명하지만, 그를 대하여 만좌를 소란하게 하느니보다는 진이는 무언의 대상으로 자리를 정돈하려 했다. “네 무슨 요약한 뜻이 있어 이렇듯 기쁜 잔칫날 소복을 하고 왔느냐! 이는 무슨 곡절이 있음이니 밝히지 않는다면 내 그냥 두지 않으려다.” [정한숙, 『황진이』, 91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를 질투하던 소설 춘화가 송유수의 어머니 수연(壽宴)에서 황진이를 나무라는 대목이다. 이처럼 다른 여성과의 애정갈등과 질투의 감정이 주요한 사건으로 그려지는 것 또한 통속성을 미덕으로 치는 신문소설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완결된 장편소설이 아니라 연재분량을 고려하여 벽계수·이사종·소세양·지족선사·서경덕과의 교유를 각 장별로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이어서 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세양과 황진이는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묘사되고

104) 김병길, 앞의 논문, 5쪽.

있다. 소세양은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에 감동된다.

떡물이 마르지 않은 채전을 받아든 양곡은 그의 문장도 문장이지만 그 차고 넘치는 시흥(詩興)과 다정에 머리 수그러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과연 그대는 여걸이로다!”

양곡은 이런 찬탄을 하며 다시 한 번 진이를 바라보았다.

장부로 태어났다면 당대의 적수였음을 생각하니 양곡은 그가 여자임을 새삼스레 애석히 여기는 것이었다. [정한숙, 『황진이』, 120쪽]

위의 인용문은 수학의 길이 멀고 아득한 소세양이 황진이가 읊은 시를 듣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정한숙의 작품에서 소세양은 황진이의 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한편 정한숙의 작품에서 가장 큰 서사적 변용을 일으키는 인물은 지족선사이다. 황진이 설화에서는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그러나 정한숙은 지족선사를 ‘티끌세상과 열반의 변두리’를 오가며 해를 보내고 삼십년 수행에 도통을 이루지 못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열반이여……!

지금 천지를 뒤집을 듯이 흔들거리는 세파를 물리치며 이기고 사는 이와 같은 순간이 열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지족선사는 새로운 행복감에 다시 한 번 진이를 힘껏 껴안았다. [정한숙, 『황진이』, 220쪽]

작가는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파계하게 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초월한 정신적 승화에 닿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소설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한숙의 『황진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수용 양상	정한숙의 『황진이』
1	신분 및 출생	생물연대	×	명확하지 않다.
		출생	○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출생 설화는 서사화되지 않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황진이의 아버지를 병부교 다

				리 위에서 만났다고 회상하고 있다.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아무런 갈등의 상황 없이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으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고 황진이는 기생의 길을 선택한다.
II	재색(才色)	문학적 재능	○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즐겨 읽었다는 서술과 작품의 곳곳에 삽입되는 시들을 통해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이 조명되고 있다.
		음악적 재능	○	거문고를 연주하는 황진이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문학적 재능에 비해 음악적 재능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성격과 외모	○	관능적인 외모와 꾸미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여성들의 질투로 인해 황진이의 외모가 더욱 부각된다.
III	교유인물	소세양	○	임방의 『수춘만록』에 나타난 내용은 형상화되지 않는다. 송공 어머니 수연에 참여하였던 소세양이 황진이를 찾아와서 시를 주고받는다.
		벽계수	○	구수훈의 『이순록』의 서사와 비슷하지만, 황진이가 시를 통해 벽계수를 시험한다. 벽계수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지족선사	△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유혹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결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서경덕	○	정한숙이 그린 황진이는 육체적 즐거움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서경덕은 정신적 승화에도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송공	△	문헌설화와 달리 정한숙의 작품에서는 송공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송공과의 만남은 정신적 승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사종	○	소세양으로부터 이사종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되고, 이사종과의 만남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난 서사가 확장된다.
		이생	○	이생과의 금강산 유람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난 서사가 확장된다. 이생은 풍류인으로 묘사된다.
		엄수	×	
		이연방	×	
IV	최후 기록	유언	×	
		임제	×	
V	작가 의식	작품의 삽입	○	작품의 곳곳에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만이 삽입되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송공을 모시는 기생 계심이 형상화되고, 금강산 유람을 하다 젊은 남자 두 명을 만나게 되는 사건, 서경덕을 기다리며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사건이 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표7> 정한숙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양상

정한숙도 이태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수용과 변용을 통해 황

진이 설화를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황진이 소설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이태준의 『황진이』,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 정한숙의 『황진이』를 살펴보았다. 박종화의 작품은 이태준의 관점과 동일하게 “고전”적인 기생의 모습과 설화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며 소설화했음을 알 수 있다. 설화의 원형을 보존하여 소설화하는 것은 현대 독자들에게 황진이라는 인물을 재인식시킨 일차적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태준이 유혹자로서의 황진이의 이미지를 배제시켰다면, 1950년대의 정한숙은 황진이의 여성적 매력을 극대화시켜 신문연재소설이 갖는 대중적 속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태준과 정한숙의 작품은 서로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황진이 설화의 고유성과 신문소설의 특징을 공유했다. 세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난 특성은 후대의 작가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거나 변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2. 1970년대 소설 속 황진이

1) 억압된 욕망의 구현자- 최인호의 「황진이」

상업적 대중소설이 확산되는 1970년대에는 황진이 소설도 많이 창작되었다.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단형의 역사소설은 잡지에 발표되고, 장형의 역사소설은 신문에 연재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일상용어로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몇몇 작가들은 대중적인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최인호를 들 수 있다.

1972년에 발표된 최인호의 소설들을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억압의 기제는 ‘유신헌법’의 선포였다. ‘유신헌법’의 선포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완전히 ‘공포정치’의 그것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인호의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억압’은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텍스트에 등장하는 각종의 비의적

(秘意的) 수사와 상징체계들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1972년에 잡지에 연속으로 발표된 「황진이」 또한 수사적(修辭的) 문장에 실린 ‘이미지’ 들이 포화상태를 이루며 소설 전체를 가로지른다.¹⁰⁵⁾

「황진이1」은 1972년 3월에 『현대문학』에 발표되었고, 「황진이 2」는 같은 해 10월 『문학사상』에 발표되었다. 「황진이1」은 이사종과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며, 「황진이2」는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통해 ‘육체적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심리적 변화과정을 그리면서 원초적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황진이1」은 ‘상사뱀’과 ‘송도(松都)의 달’ 두 편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뱀은 너의 고운 잠자리를 파고들어 독기로 너의 얼굴을 핏고, 빛나는 비늘로 너의 몸을 씻었다. 그리고 너의 몸을 타고 올라 날름이는 혀로 너의 잠든 혼을 불러내어 천 년보다 깊은 정을 맺어 너의 끊어오르는 핏속에 뜨거운 정액을 뿌리었거늘 황진이, 그대는 그 뱀이 너의 몸이 죽어 한층의 흙이 될 때까지 너의 목을 감고 있음을 어이 긴 한숨 한번 내보이지 않고 참아내었던가.

[최인호, 「황진이1」, 12쪽]

위의 인용문은 앞서 황진이 설화에서 살펴보았던 상사뱀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를 시적인 문장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상사뱀 설화¹⁰⁶⁾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한을 품고 죽은 자가 상사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총각은 죽어서 뱀이 되어, 잠들어 있는 황진이를 찾아온다. 기존의 황진이 소설에서는 황진이가 총각의 상여에 속옷이나 적삼을 덮어주는 것에서 상징적인 혼례를 치르고, 죽은 영

105)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1972년의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소설집2 『황진이』, 문학동네, 2002, 299쪽.

106) 이 작품에서는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이야기를 상사뱀 설화 모티프와 결합시켜 황진이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준다. 『구비문학대계』에서 상사뱀 설화로 분류될 수 있는 이야기는 46편 정도이다. 이야기의 유형별로 기본형, 변이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사뱀 설화의 기본형은 자신의 간절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한을 품고 죽어서 뱀으로 변신한 상사주체가 상사대상을 불행하게 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변이형은 상사대상이 상사주체가 헤코지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혼합형은 기본형의 일부와 변이형의 일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상사대상은 상사주체의 원한을 풀어주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혼을 위로 하였다. 반면 최인호의 「황진이 1」의 경우 상사뱀 설화를 활용하여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곁핍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묘사된다.

「황진이1」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송도(松都)의 달’에서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한양에서부터 찾아온 사내가 피리 소리로 황진이를 유혹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황진이 설화에서 살펴본 이사종과의 교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풍문에 의하면 송공대부인(宋公大夫人)의 수연(壽宴) 석상에서 이름난 기생치고 하나 빠짐없이 가지각색의 오색찬란한 비단옷 차림과 현란한 노리개와 분연지 등으로 단장하여 미색을 다투고 있었는데, 유독 황진이만큼은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건만 광채가 사람을 움직일 정도로 그 존재는 한 떨기의 청순한 국화꽃과도 같은 이채를 띠어, 보는 이마다 칭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며, 외국의 사신이 ‘여국유천하절색(汝國有天下絶色)’이라 감탄하였다고 하니, 천하의 대장부인 주제에 어디 한번이라도 내가 황진이의 사람됨을 직접 보고 오겠노라 했던 것이다. [최인호, 「황진이1」, 22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의 소문을 들은 사내가 황진이를 찾아온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이사종과 황진이의 이야기는 예술가와 영혼의 교감을 이루는 진정한 사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사종은 ‘한갓 관기녀(官妓女)에 불과한 주제로서 어디 제까짓 게 얼마만한 인물인가 내 한번 보고 오겠노라고 술좌석에서 공언’ 하고 찾아와서 ‘황진이 내가 너를 시험하여 보리라’ 하고 피리소리로 황진이를 유혹한다.

그 소리는 그의 호흡을 타고 튀어오른다. 피리의 혈(穴) 하나하나를 눌러내릴 때마다, 소리의 실이 풀려서 은빛으로 영긴다. 그의 손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릿느릿 그의 피리를 더듬는다. (중략) 황진이는 피리 속에서 투명한 손이 튀어나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피리의 곡(曲) 음률 하나하나가 현란한 비늘이 되어 자라고 있었음을 의식한다. 그녀의 뜨거운 피를 피리 소리는 불러 춤추게 한다. [최인호, 「황진이1」, 25-26쪽]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사내는 관능적인 피리 소리로 황진이를 유혹하고 있다. 사내의 피리 소리에 감동한 황진이는 가야금 소리로 화답하며 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자

연과 하나 되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본원적 생명의 힘으로서의 성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생명의 힘으로서의 욕망의 문제는 「황진이2」로도 이어진다. 「황진이2」는 30년 간 수도하여 생불이 되었다는 지족선사를 황진이가 찾아가 하루를 지내며 그를 유혹한다는 줄거리이다. 「황진이2」의 부제는 마라(魔羅)의 딸 이다. ‘마라(魔羅)는 욕계(欲界)의 대왕 마라(魔羅)’를 뜻하며,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마라의 세계에서 보낸 마라의 딸로 인식한다. 황진이는 지나가던 길에 동냥을 원하는 장남에게서 지족선사에 관한 명성을 듣게 된다. 지족선사의 은덕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걸인의 모습을 황진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하늘을 가리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바다를 채우고 남는 것을, 십 년도 아니고 이십년도 아니고 열손가락을 또 열 번, 그 열 번을 또 열 번 해도 헤아리지 못하는 삼십 년의 긴 세월을 홀로 면벽하고 선을 하여, 거의 해탈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그 스님의 욕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무엇으로 가릴 수 있었는가 궁리하고 또 궁리하였던 것이다. (중략) 핏속에 끓는 정욕은 무엇으로 다스리고, 망령되어 불붙는 욕망은 무엇으로 감출 수 있단 말인가. (중략) 눈부신 상복을 입고, 시험하여보리라. 내 너를 시험하여보리라. [최인호, 「황진이2」, 32-33쪽]

위의 인용문은 금욕과 절제로 욕망을 안으로 숨기고 있는 지족선사를 찾아가려고 황진이가 결심하는 대목이다. 황진이는 ‘지족스님을 만나리라는 기대와, 그리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녀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정념, 독기, 잔인한 적개심으로 더욱 두근’ 거리게 된다. 황진이는 지족선사에게서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가리고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하얀 소복을 입은 황진이가 비를 맞은 채로 지족선사를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한다. 황진이는 지족선사가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 시작한다. 이를 본 지족선사의 마음속에서는 심한 갈등이 일어난다.

그처럼 크나큰 반딧불이의 욕망, 지족의 욕망은 황진이의 한 손에 걸리었다.

손 밖을 뚫어나갈 수가 없다.

인간의 욕망은 한갓 벌레의 욕망과 뜻이 같아서, 인간의 욕망이 한갓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인간의 욕망이 한갓 미풍에 떨리는 나뭇잎과 같아서, 하늘을 가리는 인간의 욕망이 한갓 한줌의 손아귀에 갇혀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밝힌 채 떠나고 있다. [최인호, 「황진이2」, 49쪽]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황진이는 결국 지족선사의 숨겨진 욕망을 풀어내는데 성공한다. 욕망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물과 산과 달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움직임 그 자체이고 그것이 결국은 타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만들어 내는 힘으로 그려지는데, 황진이는 이 생명원리로서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었던 셈이다.¹⁰⁷⁾

즉, 최인호는 비유적 상징과 묘사를 통해 지족선사의 파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황진이의 ‘에로스’를 통해 억압된 현실로 부터의 구원을 그리고자 한 작가의 의도는 설화의 상징을 해석해야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두 작품을 압도하는 신비한 분위기와 황진이를 둘러싼 ‘성적 탐미’는 은근히 다가온다. 최인호는 설화의 비유를 통해 황진이를 억압된 욕망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2) 여성의 시각으로 본 선망의 대상자 - 한무숙의 「이사종의 아내」

1976년 『문학사상』에 발표된 한무숙의 「이사종의 아내」는 이사종의 아내 ‘살이’가 외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II장에서 살핀 바 있듯이 기록에 의하면 이사종과 황진이는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다. “진이는 직접 비구(臂鞴)를 착용하고는 첩의 예를 다하며 이사종의 집에서는 조금도 돕지 못한 것이 3년이였다”고 전해진다. 이 짧은 서술은 가부장 사회인 조선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사종과 황진이를 지켜봐야했을 이사종 아내의 입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한무숙의 작품은 이사종의 아내를 전경화하여 작품의 서술자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새롭으며, 또한 고어들을 십분 활용하

107) 황도경, 앞의 책, 134쪽.

여 의고적 문장에 우리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만고절부(萬古節婦) 한마님께 불의악처(不義惡妻)의 망언, 송구 민망하오나 외롭고 서러운 심기 한마님께만 호소하옵는 대죄를 용서하오시고 가련히 여기소서.

오늘밤도 사랑에서는 어느 장화(牆花)를 꺾고 있사온지 귀가치 아니하옵고 존고께서는 사직골 작은 소고(小故:시누이)택에 행차하시어 준행 남매만 어미와 집에 머물고 있사와 오래도록 지필(紙筆)을 대하고 있사옵니다. (중략) 오목이가 문득 “나리마님 보선은 참 야릇하게 떨어지시오니까. 볼보다 굵치가 더 많이 떨어져와요.” 하옵니다. 백합같이 선인같이 춤추는 그 모습이 안전에 떠오르매 **사람과 춤은 남이 보고 춤으로 하여 심히 떨어진 보선 굵치만 지어미가 다스리고 있나이다.**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286쪽]

위의 인용문은 이사종의 풍류 때문에 아내가 겪는 고민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남편은 춤꾼이라 보통 사람들과 달리 버선이 뒤꿈치가 먼저 떨어진다. ‘사람과 춤은 남이 보고 춤으로 하여 심히 떨어진 보선 굵치만 지어미가 다스리고 있나이다.’ 라는 절제된 표현을 통해 그녀의 서글픈 심정이 드러난다.

요물인즉 세간에 횡자(喧藉)한 송도기녀(松都妓女)로 기명을 명월이라는 황진이(黃眞伊)온데 **용색(容色)이 절묘하여 황홀 찬란하오며 백일이 빛을 잃는다 하옵니다.** (중략) 일찍이 면벽(面壁)수 십년의 만석선사(晩釋禪師)를 유혹하와 과거케 하온 대죄를 저질렀사오며 수신 학덕이 당대 으뜸인 서화담 선생은 끝내 굽히지 않나하였다 하오나 요사스러운 요녀의 유혹은 적지않이 도심을 흔들었다 하옵니다. (중략)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송도아이가 지나다가 노랫소리를 듣고 단박에 그 애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래요. **영웅능지영웅(英雄能知英雄)이라고 그 아이 역시 천하 명창이 아니옵니까.** (중략) 하루는 벽계수 영감이 송도 만월대에 달구경을 가셨다 하더이다. 이 행차를 미리 알고 진이가 소복단장으로 그곳에 가 기다렸다 하오니 그저 끄적할 뿐이옵니다. 옛 궁전의 잡초 우거진 옛터에 달은 밝고 교묘하온데 소복단장의 젊은 계집이 나타났사오니 때와 장소를 생각해보소서.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287-291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널리 알려진 황진이 설화의 내용이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동시에, 황진이의 매력이 역설적으로 표현된다. 남편인 이사종과 황진이의 만남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 명창을 알아본 황진이와 이사종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는 시고모, 그리고 태연히 ‘아들이 데리고 살면 며느리지요’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의 배반보다 더 섭섭하고 외롭게 다가온다. 황진이와 상대 남성의 이

야기가 주를 이루는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다.

사리 밝고 투기 없고 체체한 시앗 가진 본댁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옵나다. 차라리 간악하고 발칙하고 방자하게 구오면 이렇듯 외롭고 슬프지는 아니하올 것이오이다. 스스로가 이토록 초라하옵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오며 자격지심에 마음이 시들어가지는 아니하올 것이옵나다.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293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정숙한 아내가 ‘요사스러운 요녀’ 황진이에게 좌절감을 느끼는 감정이 서술되고 있다. 차라리 황진이가 악인이어서 정실인 자신이 대놓고 혼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황진이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황진이를 향해 부르는 노래를 남편 이사종의 노래를 우연히 듣고 마침내 절망한 아내는 미움과 질투심마저 내버린 채 ‘시앗 본 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낸다.

송곳집 진이의 높은 학식과 잡기라 할지라도 자즈러진 가무현악하오며 찌르는 듯한 재치를 따라가지 못하오니 지아비 마음을 어찌 겨누어 차지할 수 있겠사오리잇가. 마음을 암담하게 아프게 던져버리오니 남이 현숙하다 하더이다. 하오나 불현듯 노여움이 솟아 쫓아가 머리채라도 끌어 잡아 치고 싶을 때가 있었사오니 그것은 그 구미호가 어쭈잠잠게 제법 사리에 맞추어 인사를 차릴 때였나이다. 요물이 험기가 있사옵고 인사가 밝아 기녀생활에서 모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옵고 때마다 마음 쓰고 뜻하지 않을 때도 선물이 잣사오니 물리치면 정처(正妻) 지체에 투기 증오가 되옵고 받자니 오장육부가 뒤집혔사오니 특히 기일마다 풍성 깔맞힌 재물 받쳐드리니 제상에 진설하며 손이 떨렸삽나이다. (중략) 체념과 체면치레로 살며 그저 자복(子福)만 누리볼까 하나이다.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297쪽]

아내는 ‘재치를 따라가지 못하오니 지아비 마음을 어찌 겨누어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체념에 이르게 된다. ‘마음을 암담하게 아프게 던져버리오니 남이 현숙하다 하더이다.’라는 말로 그동안의 사정을 서술한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질투심은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얻지 못한다. 아내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황진이의 재주와 품성의 빼어남은 그녀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종가집 중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소설은 들끓는 증오와 미움의 아수라(阿修羅)로부터 체념과 포기의 삭막함에 이른 16세기 사대부가(家)의 한 부인의 내면을 1인칭 고백체의 편지 형식으로 마무리한다. 당시의 여인들이 겪어내야 했던 인내와 순종이라는 미덕의 이면에 숨겨진 한과 절망,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팽팽한 소설적 긴장을 자아내기도 한다.¹⁰⁸⁾

한무숙은 기존의 작품들과는 달리, 황진이의 남성편력을 지켜보고 그 사이에서 질투와 고통을 느끼는 당대의 여성을 화자로 하여 황진이를 새롭게 재해석했다. 순종하는 여성, 일부종사하는 여성과 그 반대쪽에 서 있는 황진이라는 인물을 대조적으로 부각시켜 여성으로서의 삶이 가지는 모순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3) 여성적 매력이 강화된 재능인- 정비석의 『황진이』

한무숙의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정비석의 『황진이』는 일대기적 구성, 작가의 편집자적 논평, 한시의 활용 등 서술 형식에서는 초기 황진이 소설의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주인공의 재능이 미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의 서술과 매우 유사하다. 선정적인 성적 묘사 역시 정한숙의 『황진이』의 서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석은 기존 소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를 확장하는 한편 설화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정비석은 독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따라서 소설이란 독자의 공통된 흥미를 반영하여 독자의 감정에 자극을 주는 문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즉, 그는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황진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성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1970년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장된 성적 표현으로 황진이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

108) 김철, 「아홉 장의 편지가 전하는 것- ‘이사종의 아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 연구원, 2004, 168쪽.

한 성적 표현과는 대비되는 여성으로서의 전통적 덕목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황진이 어머니 진현금을 ‘고려 때부터의 명문(名門) 진씨 가문의 무남독녀 처녀’ 로 그리고 있으며, 맹인 악공이란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개성상인의 기질이나, 망석중의 유래, 마의태자 일화와 같은 서사들도 곳곳에 배치하여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무전승 기록과 같은 고증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편집자적 논평 형식의 이 같은 고증은 역사소설 일반의 특징이기도 하다.

정비석의 『황진이』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수용 양상	정비석의 『황진이』
I	신분 및 출생	생물연대	○	정확한 생물연대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중종(1506-1544)초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38세에 황진이가 죽는다.
		성명과 기명	○	이름: 진이(眞伊) · 꿈에 보름달을 삼키고 잉태한 아이라고 해서 아명(兒名)을 명월(明月)이라고 부른다.
		출생	○	진현금과 황진사의 만남은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서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황진이의 성품이 쾌활한 것은 아버지 황진사를 닮아서라고 서술된다.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총각의 죽음은 기생의 신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작가가 생각하는 정조관념이 과도하게 표출된다.
II	재색(才色)	문학적 재능	○	박종화의 「황진이의 역천」과 유사한 서술로 황진이의 재능을 서술한다.
		음악적 재능		
		성격과 외모	○	문헌설화나 기존의 소설과 다르지 않은 성격과 외모가 묘사된다.
III	교유인물	송공(송원준)	○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송공 서사가 그대로 계승되어 확장되었다.
		이사종	○	부운거사 김경원을 통해 황진이는 이사종의 이름을 알게 된다. 6년을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서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소세양	○	기한이 열흘이거나, 내기의 내용이 약간 변용되었지만 설화의 내용과 유사하다.
		벽계수(이창곤)	○	구수훈의 『이순록』에 나타난 서사가 계승 · 확대된다.
		염수	○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서사가 그대로 계승된다.
		지족선사	△	만석선사를 유혹하는 모습은 구비설화에 나타난 서사를 계승하고 있다.
		서경덕	△	서경덕과의 처음 만남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서사를 따르고 있다. 서경덕을 유혹하는 황진이의 행동에

			초점을 두어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태준의 『황진이』와 유사한 기이담을 수용하여 서사화 했다. 서경덕의 죽음이 황진이에게는 큰 충격으로 자리하며, 서경덕을 위해 상(喪)을 입고 3년 동안 절개를 지킨다.	
		이생	△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타난 서사가 계승되는 한편, 유람을 하다 남루한 차림으로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승무>춤을 재현하는 사건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황진이를 선녀로 착각하는 내용이 비교적 길게 서술된다.
		이연방	×	정비석은 허균의 『성웅지소록』에서 나타난 이연방과의 일화를 황진이와 이사종과의 만남으로 변용하고 있다.
IV	최후 기록	유언	○	김택영의 『송도인물지』에 나타난 ‘내가 죽거든 방탕한 여자들의 경계로 삼게 하라’는 황진이의 유언의 한 부분을 소재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곡을 하지 말라는 허균의 『성웅지소록』에 나타난 유언도 함께 서술하여, 문헌설화의 서사를 계승하고 있다.
		임제	○	황진이의 무덤과 임제에 관한 이야기는 작가후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작가 정비석은 황진이의 무덤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예술가나 풍류 명기로서의 황진이를 추앙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천한 성분의 여성으로서 유산층인 양반 계층에 저항한 계급 투사로서 황진이를 추앙하는 뜻에서 그녀의 무덤을 소중하게 보존” 한다는 북측의 상황에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V	작가 의식	작품의 삽입	○	이태준의 『황진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많은 시들이 삽입되고 있다.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황진이의 한시 <別金慶元>을 모티프로 부운거사 김경원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여 서사화하였다.

<표8> 정비석의 『황진이』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의 수용 및 변용양상

<표8>에서 알 수 있듯 정비석의 작품에서는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가 대부분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진이 설화에서 나타난 이연방과의 서사는 이사종과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서술하고 있다. 황진이의 한시로 전해지는 <別金慶元>을 모티프로 부운거사 김경원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였다. 정비석의 『황진이』는 1976년 조선일보에서 연재되던 『명기열전』(名妓列傳)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명기열전』은 30여 명의 뛰어난 기생들을 각 지방의 특색을 배경으로 그 생애를 그려냈기 때문에

작가가 황진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재주 있는 ‘기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정절을 지닌 여성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 나는 그 어른하고 살은 섞은 일은 없어도, 그 어른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나의 어른이었으니, 나는 그 어른을 위해 상(喪)을 입고 3년 동안 절개를 굳게 지키자.’ (중략) 서경덕은 명기인 자기로서도 꺾을 수 없었던 도도한 남성이었다.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고 싶었던 오직 그 한 분의 남성이었던 까닭에 사후에도 이처럼 알뜰히 흠모하게 되는 것일까 싶었다.

[정비석, 『황진이』, 316-317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서경덕의 죽음 이후에 3년 동안 절개를 지켰다고 다짐하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기생으로서의 황진이의 매력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도 황진이에게 부여되고 있다.

1970년대에 많은 황진이 소설이 창작되었던 데 반해 1980년대에는 정비석의 『황진이』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것을 제외하면, 황진이 소설은 단 한 편도 발표되지 않는다. 1980년대 공백기를 지나 1990년대 역사소설의 붐 속에서 황진이 소설도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황진이 소설은 더 이상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지 않고,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의 유행은 어느 한 시기 탄압의 혹독함 속에서 비판의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또는 변혁의 민중적 의지가 일시적으로 차단당한 듯이 보이고 그 진로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 등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격적인 현대 역사소설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20·30년대도 그러하였고 70년대를 지나 역사소설의 새로운 중흥기라 할 수 있는 80·90년대도 그러했다. 두 시대는 그 특성이나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혁에 대한 기대의 좌절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1990년대 초반에는 『소설 동의보감』을 필두로 다시 역사소설이 붐을 이룬다. 이와 같은 독서경향은 당시 사회주의 이념의 와해와 사상의 탈중심화 현상이 나타난 데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동일한 현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90년대를 살아가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한 권의 책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독자들의 취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 아래의 새로운 인건 생산품……낮익은 영웅설화의 교훈을 담보로 한 아류 역사소설, 야담류일 뿐’이란 평가였다. 이러한 모습은 1910년대와 2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의 유행과 관련한 프로문학 진영의 평가나, 야담의 성행과 관련한 작가들의 대응 방식과 그 대로 겹친다.¹⁰⁹⁾

1993년 발표된 최정주의 『황진이』는 전 3권으로 황진이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정주의 작품은 기존의 황진이 소설들 처럼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를 수용하지만, 허구적 사건과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황진이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다. 허구의 인물을 통해 기존의 일화를 대대적으로 각색한 이 작품은 ‘황진이’ 서사가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어 본격적인 역사소설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준다.¹¹⁰⁾

1994년에 출간된 문정배의 『황진이』는 문헌의 사실적 측면과 기존의 황진이 소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발문에서 작가는 기존 황진이 소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흥미 위주로 허구화된 황진이 설화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편집자적 논평, 한시의 활용, 황진이와 관련 없는 일화의 배치, 고증에 주의를 기울인 점 등 서술 형식에서는 기존의 소설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비석이 문헌설화의 일화를 중심으로 소재목을 붙여 장을 구별했다면, 문정배는 황진이가 창작한 한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서사의 중간에 그림이 배치된다는 점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유인물과의 선정적인 성적 묘사는 정한숙, 정비석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있다. 이 작품은 문헌으로부터 소설적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점 때문에 작가의 역사적 논평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작가의 지나친 개입은 서사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109) 이승윤, 앞의 논문, 169-170쪽.

110) 김병길, 앞의 논문, 11쪽.

이처럼 1990년대의 황진이 소설은 그 시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채 대부분 황진이 설화를 그대로 계승하거나 기존 소설의 서사구조를 답습하는 작품이 일반적이었다. 오히려 1990년대의 황진이 소설은 2000년 이후에 황진이 소설의 유행 속에서 뒤늦게 재조명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70년대의 황진이 소설 속에 나타난 특성을 작품별로 분석하였고, 1990년대의 황진이 소설의 경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972년에 발표된 최인호의 「황진이」에서는 황진이 설화의 일부분만 수용하여, 심미적으로 극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인호는 낭만적 재해석의 방식으로 황진이 설화를 소설 창작에 수용하였다. 1976년에 발표된 한무숙의 「이사종의 아내」는 황진이 설화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사종의 아내의 목소리를 전경화시켜 황진이의 모습을 그려냈다. 최인호와 한무숙의 작품은 한 인물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편양식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비유적 상징으로 극복하였다.

1976년에 신문에 연재된 정비석의 『황진이』는 신문소설의 특성과 황진이 설화의 고유성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초기소설의 특성과 황진이 설화를 계승·변용하면서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으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황진이의 이미지를 정형화시키고 말았다.

황진이는 아름다운 외모로 남성을 유혹하고, 훌륭한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박연폭포·화담 서경덕과 더불어 ‘송도삼절’로 자부한 매력적인 기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작품들은 기존에 형성된 황진이의 모습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의 황진이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2000년 이후 소설 속 황진이

역사소설의 형성사를 되돌아보면 먼저 기존의 산문양식을 변화시키며 역사·전기류의 양식이 마련되고,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계몽적인 역사서 사물이 번성한다. 근대문학의 전형기(銓衡期)라 일컫는 19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역사소설이 발달하는 한편 대중에게는 야담이 인기를 끈다. 197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소설은 중요한 문학적 화두가 되었고, 2000년대에도 여전히 역사소설 유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소설의 변천과정 속에서 황진이 소설도 변용의 정도만 달리했을 뿐 끊임 없는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2000년대 이후 황진이 소설 6권이 새롭게 출간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 평단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탁환·전경린·홍석중 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황진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다. 특히 2004년 8월 거의 동시에 발간된 홍석중과 전경린의 『황진이』는 남과 북, 여성작가와 남성작가라는 상반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홍석중의 『황진이』는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원작 소설이 영상물로 전환 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황진이의 다양한 변모를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작품은 현재의 문화 향유방식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세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였다.¹¹¹⁾ 하지만 이 세 작품에 비해

111) 이 세 작품은 국내 소설분야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베스트셀러 순위가 판매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황진이라는 동일한 콘텐츠 안에서도 어느 것이 더 많이 읽히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될 수 있다. 각 서점별로 베스트셀러순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것을 참고로 하면, 전경린의 『황진이』는 2004년 8월 5일에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되었다. 출간된 이후 꾸준히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에는 국내 소설부분에서 2위, 국내도서 전체 20위의 판매량을 보였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전경린과 비슷한 시기인 8월 15일에 출간 되었으나, 남한의 창작과 비평사에서 제정한 제 19회 만해문학상(2004)을 수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더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2002년 8월 12일에 출간당시보다는, TV 드라마 <황진이>(KBS,2006)의 원작으로 알려지면서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2000년대의 또 다른 황진이 소설들 역시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다양한 모티프는 소재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¹¹²⁾하면서도 상상력이 확대된 작품¹¹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¹⁴⁾ 이렇게 역사소설의 통념을 깬 형식 실험은 황진이 소설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역사물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의 모티프는 변용의 정도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인 창작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역사물의 유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견 1990년대와 유사하다. 여기에는 동일한 현상을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별다른 책임감 없이 역사를 지나치게 변형하고, 현실에서 소재를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학적 도피’라고 보는 비판적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점에서, 역사를 현실의 거울로 적절히 사용하는 데다 문학적 완성도가 높다’는 긍정적 평가이다.¹¹⁵⁾

변용이란 기존의 것을 바꾸되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황진이 설화를 소설화하는 과정에서도 사건과 인물의 변용은 필수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 바 있다.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에 얼마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은 황진이

112) 임종욱의 『황진이는 죽지 않는다』(어문학사, 2008)는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모티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113) 최학의 『화담명월』(나남출판, 2005)은 황진이 관련 소설 중에서 허구적 상상력이 가장 많이 드러난 작품이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서경덕의 제자인 ‘서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 ‘서기’는 그 여인이 서경덕의 두 번째 부인인 황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스승의 옛 자취를 좇아 금강산으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진이는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 이 작품은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사실적 요소를 뒤엎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화담명월』의 작가 최학은 “전설은 꿈의 또 다른 양상이다. 역사의 인물 화담 서경덕은 자신의 전설 속에서 더욱 짙어진 삶을 갖는다. (중략) 그러나 소설은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마련이다”라는 말을 통해 사실과 허구, 역사와 소설의 경계 짓기가 무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바뀐 시대, 바뀐 이야기 구조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의 황진이와 서경덕을 그려냈다.

114) 한편 2000년 이후의 작품 중에서도 황진이 설화를 그대로 계승한 작품을 볼 수 있다. 황원갑은 「기생의 역사를 바꾼 기생의 여왕 황진이」(『나를 여왕이라 부르라』, 마야, 2007)에서 김탁환과 비슷한 형식인 일인칭 독백체로 황진이의 삶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황원갑의 작품에서는 황진이 설화의 단편적인 일화들만 나열될 뿐, 인물의 내면세계나 새로운 해석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 작품이 수록된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에는 황진이 뿐만 아니라 유화부인, 소서노, 허황옥, 도미의 아내, 우황후, 한주, 미실공주, 평강공주, 선덕여왕, 천추 태후, 문정왕후 등 여성의 삶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려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지니지 못한다.

115) 정여울, <팩션- 문학의 위기, 역사 속에 살 길이 있을까>, 한국일보, 2007. 8. 19. 참조.

설화의 충실한 재현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를 적용하고 풀어내는 독특한 방식이 주목된다. 유려한 문체와 풍부한 상상력, 분명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황진이 설화를 변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를 거쳐 이미 다양하게 작품화 되어 있는 황진이란 인물을 새로운 관점과 표현으로 전과 다르게 형상화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한 모티프만 가지고 잘 설정한다고 해도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엮어내는 것이 작가의 능력이고, 그 과정에서 작가의 창조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먼저 이 세 작가가 황진이 설화의 어떠한 모티프들을 수용하였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수용양상 ¹¹⁶⁾		
			김탁환	전경린	홍석중
I	신분 및 출생	시대배경	○	○	○
		성명과 기명	○	○	○
		출생설화	○	○	○
II	재색(才色)	문학적 재능	○	○	○
		음악적 재능	○	○	○
		성격과 외모	○	○	○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	○
		송공	○	○	○
		염수	○	○	○
		이연방	○	○	×
III	교유인물	이사종	○	○	○
		서경덕	○	○	○
		지족선사	○	○	○
		이생	○	○	×
		소세양	○	○	○
		벽계수	○	×	○
IV	최후 기록	유언	○	○	○
		임제	×	×	○
V	작가 의식	작품의 삽입	○	○	○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	○

<표9> 2000년 이후 소설에 나타난 황진이 설화 모티프

<표9>에서 나타나 듯 세 작가도 앞서 살펴 본 소설들처럼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를 대부분 수용하여 서사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생이 된

116) 이 표에서는 모티프의 수용 유무만을 (○)(×)로 나타내었다.

극적인 상황, 아름다운 외모, 황진이와 교유한 남성과의 일화 등은 황진이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모티프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모티프라 할 지라도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출되는 서사적 해석 및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세 작가가 기존에 누적된 황진이 설화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부여하여 변용하고 있는지를 각 작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새롭게 부활한 학인(學人)- 김탁환의 『나, 황진이』 117)

역사와 문학은 긴밀하게 중첩되는 서사의 축을 공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소설은 강력한 사건이나 아름다운 사람이 먼저 있기에 좀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실존인물에게 더 큰 감동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삶은 현재의 독자들에게 보다 진실한 체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인칭 시점으로 황진이의 삶이 회고되면서, 극적인 사건보다는 시와 음률에 대한 열망, 서경덕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등 그녀의 내면세계가 고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잠비(여름비)에 자주 빠지던 작년 여름. 망극한 일을 겪은 후부터 딱 짜인 일상이 바뀌었어요. 스승이 아니 계시니 꽃뭇이 고요하고 꽃뭇이 고요하니 세상의 티끌과 먼지를 끈덕지게 살필 자신이 없어졌답니다. (중략) 허태휘는 내 이름(眞)을 믿고 회고의 글을 부탁하였겠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만 남았네요. [김탁환, 『나, 황진이』, 10쪽]

위의 인용문은 김탁환의 『나, 황진이』의 도입부분으로 스승 서경덕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방향성을 잃은 황진이가 서경덕의 제자 허태휘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손을 앞 둔 황진이는 자신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117) 이 작품은 대중관과 주석관 두 가지 판본이 있다. 본문에 각주가 달린 주석판을 출간한 것은 “역사소설도 야사 위주의 짜깁기로부터 탈피하여 철저한 고증과 문체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황진이 의 생애를 재구성한 기존의 소설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서경덕의 죽음을 중심사건¹¹⁸⁾으로 배치하여 황진이 의 생애를 재구성 하고 있다. 이처럼 황진이 의 삶에 있어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서경덕에 대한 추억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유를 통해 학인(學人)으로서의 황진이 의 면모가 나타난다.

『나, 황진이』에는 황진이 가 창작한 작품이 9편 정도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김탁환은 기존의 황진이 소설들과는 달리 작품을 직접 삽입하지 않고, 황진이 가 창작한 작품을 모티프로 하여 서사적 맥락 안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① 이 긴 동지의 밤 허리를 베어두어도, 벽한서(辟寒犀, 추위를 없애주는 능력을 지닌 나무) 미리 방안에 옮겨두어도, 함께 예를 논할 수 없음을 안타깝지만, 스승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밤에 10년 배움을 살피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242쪽]

② 기다림이 클수록 스승은 더 먼 곳으로 가시겠지요. 석상의 피리소리만 꽃뭇을 감쌀 뿐입니다. 산은 옛 산이지만 물은 옛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흘러질 때가 되었나 봅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290쪽]

①은 황진이 의 시조<동지달 기나긴 밤을>¹¹⁹⁾, ②의 인용문은 <산은 옛 산이로되>를 염두에 두고 서사화한 것이다. 이 같이 황진이 가 창작한

118) 서사물에 있어서 사건적 요소들은 상호 관련적이고, 구속적이며, 수반적인 관계에 있다고 논의 되어 왔다. 채트먼은 관계의 논리뿐만 아니라 서열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서사적 사건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첫째는 서사적 계기가 되고 플롯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핵사건(kernels)이고, 둘째는 핵사건을 보충하고 완성시키는 구실을 하는 주변 사건(satellites)이다. 핵사건은 서사적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다. 서사 텍스트에서는 주어진 어느 지점에서 핵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나타난다. 이러한 핵사건들은 앞의 사건들의 결과로 보면서, 그와 같은 계속적인 선택의 상황들을 뒤따라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하찮은 사건-주변사건은 플롯의 논리를 혼란시키지는 않지만, 제거될 경우 그 서사물이 미학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게 한다. 주변사건은 선택을 수반하지 않으며, 다만 핵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을 완결 지을 뿐이다. 반드시 핵사건들의 존재를 내포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변사건의 기능성은 핵사건들을 보충하고 다듬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푸른 사상사, 2003, 63-67쪽)본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김탁환·진경린·홍석중은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마다 그 사건의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작가들은 동일한 사건을 어떠한 비중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채트먼의 용어를 참고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19) 冬至스 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들내어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룬님 오신 날 밤이여드란 구뵈구뵈 퍼리라
최원석, 「동지(冬至)에 대한 단상」,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315쪽, 재인용.

작품을 모티프로 한 시의 삽입은 서사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¹²⁰⁾ ①은 황진이가 10년 동안 서경덕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시간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②는 소설의 결말에 나타나는 대목으로 황진이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정리하는 대목이다. <산은 옛 산이로되>에 대한 작품의 해석은 II장의 서경덕과 황진이의 교유관계에서 살펴본 바 있었다. 이 작품은 서경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황진이가 읊은 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탁환은 이러한 시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황진이와 서경덕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듯하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은 황진이가 창작한 시조 가운데서도 표현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라고 한다. 이 시조의 창작 동기는 이사종과 6년 동거를 하고 헤어진 후에 지어진 것이라는 해석과 서경덕과의 교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김탁환은 후자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황진이와 서경덕의 정신적 교유를 그려낸 듯하다.

황진이 설화에서는 서경덕을 유혹하는 황진이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서경덕이 황진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제 간의 예의를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진이는 소문들이 스승 서경덕의 참모습이 가리지 않을까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¹²¹⁾ 김탁환은 황진이를 화담의 제자로서 동학들과 사상과 학문을 논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황진이 소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가 김탁환의 작품에서는 중심사건으로 존재

120) ① 만월대까지 둘러보고 싶었지만 눈가에 물기라도 맺힐까 저어하여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가을 같은 늦봄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김탁환, 『나, 황진이』, 52쪽] ② 은하수 같고 옥구슬 같은 박연의 장쾌함이 눈부실수록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랍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01쪽] ③ 내가 아무리 청산(靑山)의 뜻을 가져도 사내들이 그저 녹수(綠水)의 정만 품었던 까닭이겠지요. [김탁환, 『나, 황진이』, 154쪽]

①의 인용문은 황진이의 한시<만월대회고>, ②는 한시<박연폭포>, ③은 시조<청산은 내뜻이오>를 염두에 두고 서사화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황진이의 작품은 소재양, 이생과의 교유 속에서도 서사화 된다.

121)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려고 할 때, 특히 나 같은 기녀가 어떤 사내와의 만남을 원할 때, 그것을 무조건 운우지락(雲雨之樂, 육체적 사랑)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스승의 위대함이 어찌 황모란 기생과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스승이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제 간의 예의를 다했기 때문이지요. 스승과 내가 한 베개를 베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찌 스승의 위대한 사색에 작은 흠집이나마 낼 일이겠는지요. 나로 인해 스승의 참모습이 가려지는 것 같아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248쪽]

하지 않는다.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에 와서야 그의 짧은 인생이 가없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왔더라면, 부부의 인연은 맺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벗은 될 수 있었을 것을.

그의 상여가 내 집 앞에 머문 것은 사실입니다. 바위처럼 상여가 무거워져서 나아가기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부탁을 받고 저고리 한 벌을 내어주었지요. 밖으로 드러낼 용기는 없었지만 나를 향한 마음이 단단하고 무겁기는 했나 봅니다. 허태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기생이 되었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몽달귀신이 된 것을 내 탓이라 여겼다면 일찌감치 머리를 깎고 불제자가 되었겠지요. 인연을 끊는 데 범피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상사병으로 죽은 사내 때문에 기생이 되는 여자도 있던가요. 그가 나를 연모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기생수업을 받고 있었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10쪽]

이전까지의 황진이 소설에서는, 총각의 상여에 적삼을 얹어 상징적 흔례의 의미를 드러내고, 당시의 정조 관념을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김탁환은 다만 총각 부모의 부탁에 저고리를 내어 주었다고만 서술한다. 더욱이 부부의 인연까지는 아니더라도 벗은 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다. 황진이는 기생이 된 이유를 총각의 죽음으로 추정하는 이들에게 만약 죄책감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면 당연히 불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 할 정도로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다.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설화적 요소를 약화시켜, 다만 무거워 나아가지 못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황진이는 총각이 죽기 전부터 기생수업을 받고 있던 것으로 설정하였다. 황진이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서사의 내용이 전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탁환은 김택영의 『송도인물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서사화하는 것은 황진이의 출생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황진이의 출생 설화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전해진다. 『송도기이』에서는 황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과 현금의 만남이 신비롭고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김택영의 『송도인물지』에서 황진이의 아버지 황진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김탁환은 황진이의 아버지 황진사가 소문을 통해 이미 현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황진사와 현금의 만남을 우연적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술 인줄

알면서도 마셨다는 현금의 대담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는 다음의 인용문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와 관련된 일들, 특히 내 기억이 미치지 않는 시절을 회고하며 흐뭇해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나에게 대한 당신의 끝없는 애정을 확인시키지요. 나를 낳고 사흘 동안 방에 울금향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웃어넘기더라도 돌도 되기 전에 가야금을 뜯었고 세 살부터 추임새를 넣어가며 단가(短歌)를 불렀다는 자랑을 들을 때면 내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넌 기억 못하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마음씨 좋은 외숙부까지 칠정(아전들이 업무를 처리하던 청사)에서 끌어내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43쪽]

넉넉한 살림이 자랑할 일은 아니겠지만 작은 동호(東湖, 독서당)까지 딸린 외가는 나에게 작은 축복이었지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움의 시간이 두름으로 이어지니 전후좌우의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07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자신의 성장과정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배움을 익힐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주변 인물들이 황진이를 향해 보내는 사랑도 아낌없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는 부재했지만 황진이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장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황진이의 외가가 송도의 아전 집안이라는 것은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온다. 서리는 문서의 기록과 수발을 책임지는 아전이었고, 문자 해독과 작문, 베껴 쓰기 등에 능해야 했다.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서책을 가까이 접하는 유일한 존재가 서리였다. 김탁환은 황진이가 어려서부터 서책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던 것을 이러한 외가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김탁환은 황진이 설화의 일부분을 수용하여, 황진이의 성장과정을 추측하는 한편 허구적 인물인 백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였다. 백무를 통해 춤사위와 기생다움을 배울 수 있는 필연성을 부여하였으며, 어머니 현금을 통해서 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가야금을 가르쳤습니다. 추잠(秋蠶, 가야금의 일종)에 손가락 끝이 벌겋게 멎을 때까지, **배운 것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꿈에 그날 익힌 가야금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중략) 열손가락을 제각기 놀릴 수 있는 비법도 그때 터득한 것입니다. 덕분에 손끝마다 이렇게 굳은살이 붙었지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열살을 넘겨 음률에 눈을 뜬 후부터는 거문고를 끼고 살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여린 맛이 나는 가야금보다 단순하고 날카로운 듯해도 강하고 힘이 넘치는 거문고가 내게 더 어울렸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75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어머니 현금에게 가야금을 배우던 일을 회상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황진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배운 것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황진이가 가진 열정을 읽어낼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고 미화되지 않고,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음률을 터득한 이후에는 강하고 힘이 넘치는 거문고를 끼고 살았다는 서술을 통해 호협하고 기개가 있었다는 황진이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김탁환은 황진이와 다른 남성과의 교유관계를 묘사할 때,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황모가 벽계수(碧溪守)에게 마음을 열었다지만 나는 그에게 손목 한번 허락한 적 없지요. (중략) 음률로 친교를 맺으러 왔다면 취적교에 닿기도 전에 돌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문고를 지고 와서 진심을 담아 연주했다면 하룻밤 대작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의 거문고 솜씨는 균계일학이었던 거든요. [김탁환, 『나, 황진이』, 140-142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벽계수를 지음(知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다. 벽계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소문에 대해 자신은 손목 한번 허락한 적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다. 황진이는 음률로 친교를 맺으러 온 것이 아닌 벽계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황진이가 벽계수를 향해 읊었다는 <청산리벽계수야>시조는 삽입되지 않고 있다. II장에서 살펴 본 바 있듯 황진이와 벽계수의 교유는 당대인의 열망이 담긴 허구성 짙은 서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화의 향유자들은 시어(詩語)에 숨어있는 중의성, 사건이 빚어내는 통쾌함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사건이 빚어

나는 통쾌함보다는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모습, 진정한 마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황진이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양곡이 그때 한 달 말미로 송도를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 능하다는 기생 황모도 만나고 흠모하던 용재와 읍취현의 발길을 더듬어 천마산을 둘러볼 요량이었습니다. 천마산을 둘러보는 일이야 보름이면 족하니 나머지는 황모와 사귀는 시간이었지요. 황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름만에 귀경길을 서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송도로 오기 전 벗들에게 어떤 장담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중략) 그날이 꼭 한 달은 아니었지요. 양곡이나 나나 그런 어쭙잖은 내기로 귀한 만남을 그를 칠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만남은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천마산뿐 아니라 다른 곳을 둘러보며 시흥을 만끽하기를 원했고 나는 그를 따를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쉬움은 컸지만 통쾌하며 볼 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48-149쪽]

위의 인용문은 소세양과의 교유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소세양이 본받을 점도 많고 시에 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것까지 모두 포기해가며 따를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임방의 『수춘만록』에서 나타난 한 달 간의 내기로 귀한 만남을 그르칠 까닭이 없다고 말한다. 다른 곳을 둘러보며 시흥을 만끽하길 원한 소세양을 따를 형편이 아니라는 말로 소세양과의 사랑을 축소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벽계수와 의 교유에서도 관련된 시가 서사화 되지 않았으며, 소세양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읊은 시도 서사화 되지 않았다. 황진이가 진심을 다해 읊은 시를 통해 태도를 마음을 바꾼 소세양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내고 그리는 정을 나도 모르겠다고 노래한 양곡까지 시우로 돌린다면 황모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한 사내는 누구냐고, 따지듯 묻는군요. (중략) 가지 않으니 왔던 걸까요. 6년 넘게 나의 비로(毘廬, 태양)였던 사내를 추억할 때가 되었네요. (중략) 제일의 소리꾼 이사종(李士宗)이 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중략) 그와 함께 송도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이며 아내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53-167쪽]

위의 인용문은 소세양과의 인연도 사랑이 아닌 지적 교유였다고 말하는 황진에게, 그렇다면 진정 사랑했던 이는 누구인지 허태회가 묻자

이사종과의 추억을 이야기 해주는 대목이다. 소리꾼 이사종과의 만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작가는 주어진 상황이나 세간의 풍문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사랑한 연인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황진이의 진솔한 모습을 강조하다. 또한 여러 편의 시 인용을 통해 이사종과의 사랑이 슬픔으로 표현되는 것도 인상적이다.

처음부터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
내였습니다. 잠깐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정이란 또 끈질긴 놈이라서 마음은 벌써
멀어졌으면서도 낙엽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김탁환, 『나, 황진이』, 234쪽]

위의 인용문은 이사종과 이별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나게 된 이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작품에는 황진이 설화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고 있다. 황진이가 명화도적을
만나 재물을 빼앗기고 살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굶는
날이 태반이었고, 한 끼 더운밥을 위해 몸을 팔기도 했다. 배고픔을 채울
요량으로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부르며 쌀과 개고기를 얻어먹기도 했다.
이 같은 서술은 육체적 고행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정신적 지향을
추구하는 도학자적인 면모까지 부각시키고 있다. 즉, 김탁환은 황진이 설
화의 내용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고 인물에게 새로
운 성격을 부여했다.

한편 여정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생은 황진
이에게 이별을 고한다. 이생의 아버지는 일찍이 조광조에 대한 거짓 상소
를 올렸고, 여기에 실망한 이생이 집을 떠나왔던 것이다.

김탁환은 서경덕은 물론 유학에 바탕을 둔 조선의 기초를 세운 정도전
을 고평하거나 조광조를 배신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름과 집
을 버리고 떠도는 이생을 통해 조광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²⁾
이처럼 황진이라는 인물과 주변인들의 설정으로 통한 16세기 조선 사회의
복원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

122) 황도경, 앞의 책, 142쪽.

다. 이때 1인칭 고백체의 서술은 황진이로 분한 작가 김탁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 된다.

유수들 중에는 학덕이 높고 음률에 능한 이도 있었지요. 허태회가 궁금하게 여겼던 10년 전 송공과의 일도 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에 가능했답니다. 문신 정시(庭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의 실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김탁환, 『나, 황진이』, 128쪽]

위의 인용문에서 송공은 학덕이 높고 음률에 능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송공의 묘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개성유수 송공이 송순(宋純)과 송렴(宋謙)으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김탁환은 송공을 송겸으로 밝힌바 있다. 송겸이 문신 정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는 『중종실록』(중종 29년, 1534)의 기록을 토대로 김탁환은 송겸의 학식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함께 황진이와 교유할 수 있는 인물의 자격도 가늠한 것이다. 즉, 황진이와 교유한 인물들은 황진이의 고백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층이나 성향에 대한 편견 없이 널리 인재를 만났던 서경덕이 황진이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고전문학 연구자에서 출발한 작가 김탁환은 ‘역사의 문학화’, ‘고전의 대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줄곧 진지한 고민을 하던 가운데 『나, 황진이』를 통해 황진이라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선 중기의 생활·문화사까지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한양과 송도의 거상은 그 뿌리가 같지만 돈 앞에서는 이런 인연도 무시됩니다. (중략) 요즈음 대국과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은(銀)이 필요합니다. 철물·우마·금은·주옥·보석·염초·군기 등을 나라 밖 상인들과 거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사롭게 은을 캐거나 유통시키다가 잡혀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지만 진사(眞絲)와 채단(綵緞)·호박영자(琥珀纓子)·백옥입식(白玉笠飾)을 대국에서 은밀히 들여오기 위해서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탁환, 『나, 황진이』, 131-132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16세기 국제교역에서 은이 차지하는 위치와 송도 상인들의 생활상이 황진이의 고백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김탁환은 다른

작품에서 이미 조선중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진바 있다.¹²³⁾ 이러한 인식은 “최근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대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반성하고, 평가 절하된 중세 속에서 오히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움직임”¹²⁴⁾과도 연결된다.

김탁환은 서구의 근대에 대한 강조를 반성하는 한편 이 작품이 페미니즘과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작은 재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시사는 작은 역사라는 통념을 뛰어넘어 작품으로부터 당대 사회의 총체성까지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작가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김탁환은 철저한 고증에 입각하여 황진이의 내면세계를 밀도 있게 재현하고 있다.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어서 역사가 매력 있다”는 김탁환은 자신과 닮아있는 역사 속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다. 특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역사 속 이야기들을 철저한 고증 과정을 통해 복원해내면서, 자신 또한 ‘이야기꾼’임을 자칭하고 있다. “실질적 관심이나 이해에 근거해서 얘기를 펼쳐나가는 것은 타고난 재능을 지닌 수많은 얘기꾼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진정한 얘기는 드러난 형태로든 숨겨진 형태로든 간에 유용한 그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얘기꾼이란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다.”¹²⁵⁾ 라는 벤야민의 이론대로 ‘이야기꾼’을 정의하면 김탁환도 독자에게 삶의 진실을 전해줌으로써 지혜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번 펼치면 덮을 수 없는 소설, 역사와 교양이 풍부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소설에 도전하는 김탁환의 작업을 통해 학인(學人)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황진이를 만날 수 있다.

123) 김탁환은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에서 필사소설의 유통과정과 작품세계를 김만중을 중심으로 복원한바 있다. 『방각본살인사건』같은 역사추리소설을 통해 조선 중기라는 시대사적 배경을 놓치지 않고, 필사소설에서 방각 소설로 넘어오는 과정까지 담아내기도 했다. 김탁환의 이러한 소설쓰기 방식은 고전을 대중화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124) 정제서, 「중세에 살기의 욕망과 소설의 갱신」, 김탁환, 『나, 황진이』(대중판), 푸른역사, 2002, 발문, 273쪽.

125)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169쪽.

2) 민중과 낭만적 사랑의 주체자 - 홍석중의 『황진이』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의 현실 속에서 황진이 소설이 양측 모두에게 폭넓은 인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이기도 한 홍석중은 북한에서 역사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북쪽 문학의 특성-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주체문예이론에 철두철미한 문학-에 익숙한 남쪽의 연구자들과 이러한 문학에 매우 낯설거나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에게 홍석중의 『황진이』는 참신함 그 자체였으며, 북쪽 문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¹²⁶⁾ 창작과비평사에서 제정한 제 19회 만해문학상의 수상은 홍석중의 『황진이』가 남·북한 문학에 끼친 영향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홍석중의 『황진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황진이>(장운현, 2007)의 제작은 남·북한 문학이 소통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 황진이의 출생과 기생이 되는 과정, 2편은 벽계수·지족선사·서화담과의 일화, 3편은 황진이가 기생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나타난다.

홍석중의 『황진이』의 1편은 민중들의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곶보네 마방집 풍경으로 시작된다. 이는 작가의 민중적 시각을 확인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권위적 설명이나 서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을 드러냄으로써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객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¹²⁷⁾

“아무리 완악스러운 량반이라두 남의 생눈알을 뽑아 놓았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지. 배가 건너 기슭에 닿자 먼저 내린 량반이 놈이를 기다리구 서 있다가 안됐노라구 사과 비슷한 소리를 중얼거리는데 놈이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 량반을 자빠뜨려놓고는 손가락으루 우버서 왼쪽 눈알을 뽑아놓고 채찍 든 바른손을 잡아서 마른 나무 꺾듯 뼈를 분질러버렸다네.”

126) 고명철, 앞의 논문, 45쪽.

127) 황도경, 앞의 책, 149쪽.

사람들은 가려운 등허리를 긁고 난 것처럼 시원해서 싱글벙글했다. 병어리가 웃는 뜻은 양반 욕하자는 뜻이라더니 좌중의 누구 하나 놈이가 너무했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홍석중, 『황진이』 1, 18쪽]

위의 인용문은 유두날 마방집에 모인 동네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다. 황진사택 하인인 놈이가 서울 가는 길에 겪었던 일을 마방집 곱보주인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양반에게 당한 것을 똑같이 되돌려주었다는 서술에서 놈이의 성격과 양반에 대한 민중들의 증오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놈이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진이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간다. 진이를 보고 사랑에 빠진 탁발승이 진이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몽둥이찜질을 당한 이야기와 진이의 출중한 외모가 화제가 된다.

“아니야. 본 사람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걸 자넨 못 들었나? 월궁항아님두 그 덕 아씨하구 나란히 세우문 무색해질 만큼 곱게 생겼다네. 게다가 사서삼경에 무불통지하구 척 붓을 쥐구 앉으면 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장이라더군. 그뿐인가? 글씨가 명필이구 또 거문고나 가야금의 기예는 어찌나 절묘한지 날아가던 학이 후원 숲에 내려 앉아 편편이 춤을 춘다지 않나.” [홍석중, 『황진이』 1, 27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황진이의 외모와 재능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황진이의 외모와 재능이 미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황진이 소설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동네사람들 재담 속에 주인공 ‘황진이’와 놈이를 등장시킴으로써 민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황진이와 놈이의 삶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 128)하고 있다. 마방집에 모인 사람들은 황진이에게 글을 받아 오는 것으로 유두국수 내기를 시행 하였는데, 그 내기를 시행할 사람은 늘 말없이 조용한 또박이었다.

총각의 순진한 생김새와 멍청한 태도가 진이의 동정을 사고 웃음을 자아냈다. (중략) “여기에…… 한 글자만……”
총각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원하는 그의 눈길도 떨렸다.
진이는 곧 알아차렸다. 가끔 장난군 사내들이 이런 내기를 한다. (중략)
진이는 군말 없이 베풀자기를 땅에 퍼놓고 숯덩이를 들어 활달한 초서체로 명월이라는 두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써주었다.

[홍석중, 『황진이』 1, 95쪽]

128) 김미영, 앞의 논문, 94쪽.

위의 인용문은 내기의 시행자 또복이가 담을 넘어 들어가 황진이에게 글을 받는 대목이다. 또복이는 목소리와 눈길의 떨릴 만큼 연약한 성격으로 추측된다. 그에 반해 황진이는 사내들의 내기임을 알고 군말 없이 또복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이태준의 『황진이』에서도 이 같은 서술 상황이 나타난다. 이태준이 그린 황진이가 배서리를 하던 글방 총각을 향해 서슴없이 욕을 던지던 모습과 또복이를 대하는 황진이의 태도 사에는 어딘가 유사성이 있다. 단아하고 조용한 사대부가 규중 처자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황진이의 대담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네가 입을 사내 옷도 변변한 게 없지 않니? (중략) 진이의 무모한 성격 속에서도 가장 무모한 것은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무분별한 열정과 대담성이었다. 그런 열정으로 그는 규중처자의 정도를 넘어 글과 음악에 열중했으며 그런 호기심으로 사랑채 서재에서 『주역』을 훑쳐다 놓고 밤새 초불 밑에서 눈씨름을 했다. (중략) 진이도 그러했다. 언제부턴가 그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막힌 손바닥만한 후원이 자신을 가두어놓은 조롱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는 담 너머로 펼쳐진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를 기회를 엿보며 은근히 용기를 가다듬고 있었다. [홍석중, 『황진이』 1, 95-96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자신의 교전비 이금이에게 자신을 돌보아주던 할머니가 피접을 간 틈을 타 남북차림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는 대목이다. 작가의 주석적 개입을 통해 남다른 열정과 대담성을 소유한 황진이의 성격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묘사는 북한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뭐 지금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네 부친의 덕행을 떠들면서 성인이요. 산림척사요 하구 칭찬들을 한다면서? 눈깔에 콩깍질을 썬 시러베 아들놈들 같으니라구……(중략) 그러나 웬걸, 여우는 잠을 자면서두 닭잡는 꿈만 꾸다구 네 부친이 제 버릇을 개 주었을 테냐. 세밑에 집으로 돌아와보니 그동안 일이 생겼는데 네 어미 말이 너를 뺀지 두 달째라는 거야. (중략)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구 지금껏 황진사댁의 고명딸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해월스님의 덕이나라. 바로 그 스님이 집안의 화근도 가시구 억압도 짓지 않을 묘한 방도를 가르쳐줬거든. 우선 내가 임신을 했다구 아래것들한테 소문을 냈지.(중략) 삼칠일이 되어 산모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난 이미 걱정만 대루 네 어미한테 두 길 중의 하나를 고르라구 강박했나라. 집에 남아서 딸까지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던가, 아니면 딸을 두고 집을 떠나서는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을 말던가. 만일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딸을 내 친소생으로, 조급도 구김 없는 황진사댁 정실 소생으로 키우겠다는 걸 내가 네 어미한테 단단

히 다짐을 하구 칠석같이 약속을 했다.

[홍석중, 『황진이』 1, 165-167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사의 부인에 의해 황진이의 출생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황진이의 어머니 현금은 맹인도 아니고, 기생도 아닌 황진사 부인의 교전비였으며, 황진사의 부인의 말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황진사의 부인은 황진이가 어떻게 해서 양반의 딸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황진사의 위선과 가식을 가차 없이 폭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황진사 일개인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양반 사대부요, 그들이 떠받드는 위인이요 성현의 표상이다. 아버지의 실상은 곧 그들의 실상으로 치환된다.”¹²⁹⁾ 즉, 홍석중은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작품 전반에 강조했다.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중략)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째 죽은 혼백한테 바쳐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라는 것이었다.

[홍석중, 『황진이』 1, 185-196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를 사랑하다 죽은 또복이의 상여에 자신이 혼수로 받은 치마를 덮어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작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황진이 설화를 수용하여 형상화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상여에 자신이 혼수로 받은 붉은색 쓰개치마를 얹는 상징적인 혼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는 서술을 통해 작가의 정조관념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홍석중은 기존의 소설들과 달리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여 황진이 설화를 변용하고 있다. 홍석중은 이태준의 작품에서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에 불만을 가

129) 우미영, 「복수(複數)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 김재용 편, 앞의 책, 194-195쪽.

지게 되어 새롭게 그려보았다고 한다.¹³⁰⁾

즉, 파혼의 충격과 상사병 때문에 죽은 총각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생이 되게끔 설정한 이태준과 달리, 홍석중은 늬이라는 인물을 설정해 황진이를 짝사랑하던 늬이가 황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고 파혼하게 만들어 황진이가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황진이의 삶의 여정은 지배계급으로 표상되는 남성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데에 치중된다.

작가는 황진이에 대한 흔한 이야기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 ‘늬이’ 라는 한 화적과 기생 황진이라는 당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하여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있다.¹³¹⁾ 따라서 허구적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홍석중의 작품에서는 황진이 설화 속 인물들도 변용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설화 속 인물들이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2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4년 전에 송도의 류수였던 송 아무개는 소문난 술꾼이었다. 자신이 술독에 빠져서 정사를 하는 지독한 모주군일 뿐 아니라 아래사람을 고르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술이어서 자기가 서울에서 데리고 부임한 다섯명의 비장들이 모두 하나같이 주량이 뛰어난 술꾼들인 것은 말할 것 없고 부임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류수아문과 이 아문에 속한 관속들의 자리 순서를 전부 주량의 순서로 바꿔버렸다.
[홍석중, 『황진이』 1, 289쪽]

위의 인용문은 송공에 대해 묘사되는 대목이다. 홍석중은 ‘송공은 풍류인으로서 풍류장에서 늬은 사람이다’ 라는 문헌설화의 한 줄 설명을 모티프로 하여 송공을 전혀 다른 인물로 형상화했다. 김탁환이 자료에 충실하여 송공을 묘사한 데 반해 홍석중은 송공을 소문난 술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홍석중의 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사대부가 별로 없

130) “상허 선생의 소설에 대해서는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동기가 불만이였다. 내 소설의 남자 주인공 ‘늬이’ 는 처음에는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진이가 기생이 된 뒤로 갑자기 커졌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늬이는 늬이대로 진이는 진이대로 달려가더라.” 인터뷰/ 『황진이』로 만해상 받은 홍석중 씨>, 《한겨레신문》, 2004년 12월 15일, 20면.

131) 김재용, 「남과 북을 잇는 역사소설 『황진이』」, 김재용 편, 앞의 책, 19쪽.

으며, 언제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사대부의 허위의식을 질타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이었던 송공 또한 변용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소세양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현임 령의정으로 있는 윤은보나 현임 리조판서 소세양과 같이 좀 모자랄사 하기는 하나 **성정이 자못 어질고 착한 양반들도 있었다.** (중략) 소세양은 지금의 임금한테서 여러 번 칭찬까지 받은 이름난 문인인데 **어찌나 순박하고 고지식한지 매인열지하여야 하는 기생의 애정이나 리별의 눈물이 얼마나 헤픈 것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양반이었다.** 송도를 떠 날 때 하도 애절해하기에 진이는 **칠언틀시 한 수를 적어주어 그를 위로했다.** (작품 생략) 후에 입에서 입을 거쳐 전해오는 말을 들으면 소판서대감이 진이가 쓴 시를 그대로 표구해서 사랑방 벽에 걸어놓고는 손님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락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홍석중, 『황진이』 1, 314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기생이 된 후 5년 만에 권력과 세도를 가지고 장난 칠 수 있게 된 배경이 작가에 의해 설명되는 대목이다.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도 있지만, 성정이 어질고 착한 윤은보나 소세양같은 양반도 있으며, 소세양이 이름난 문인이이기는 하지만 기생의 애정이나 눈물이 얼마나 헤픈 것인지 모르는 양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소세양에게 황진이가 시를 적어주어 위로 했더니, 그 시를 벽에 걸고 손님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기쁨으로 안다는 것이다. 반면 서경덕은 작품의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진이는 그의 심정을 리해했다. 그리고 감복했다. 그가 이런 처절한 싸움을 벌려 기어코 승리자가 되려는 것은 단순한 유가에서 말하는 도나 례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 불의를 이겨 의를 지키려는 것이요 자기가 자신을 이겨 자기의 격을 지키려는 것이리라. 그보다도 그는 인생의 환희란 그 어떤 속된 욕망을 충족시킨 만족감이 아니라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 욕망을 이겨냈을 때 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세의 모든 욕망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인간인 까닭이리라.

[홍석중, 『황진이』 2, 115-119쪽]

위의 인용문은 서경덕을 유혹하던 황진이가 의를 지키기 위해 욕망과 철저히 싸우는 서경덕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는 대목이다. 서경덕은 고통과 고뇌 속에서 욕망을 이겨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황진이에게 송

도삼절로 칭해진다. 한편 도학군자인 척 하는 벽계수는 황진이에 의해 위선이 벗겨진다. 이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벽계수 이야기가 가진 특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설화의 향유자들이 사건이 빚어내는 통쾌함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홍석중도 북한의 대중들이 흥미 있게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벽계수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애통과 슬픔으로 표현되는 벽계수의 내면세계를 그려내는 것도 인상적이다.

마치 나 자신의 잘못과 부주의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통이 터지는 슬픔과 같은 것이 아프고 쓰리게 가슴을 저미는 것이었다. (중략) 명월의 얼굴은 첫날 충남이가 쌍창바라지로 훑쳐보던 달 빛 속의 모란꽃과도 같이 아름답고 요염한 얼굴이었다. (중략)

뜻밖에 명월의 입에서 「풍입송」의 우아한 선율에 태운 시조 삼장이 시내로의 조용한 속삭임 소리처럼 울려 나왔다. (중략) 충남은 명월이가 안장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아니 설사 손을 뺀다고 해도 자신은 아무런 의지가 없이 이 녀인의 광채에 끌려 그 무슨 요구에나 공손히 순종하게 되리라는 것을 통절한 마음으로 깨달았다. [홍석중, 『황진이』 1, 267-268쪽]

벽계수의 이야기에서처럼 남성이 기생에게 휘둘리는 상황은 고전소설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이다. 홍석중도 다양한 고전소설 속 모티프를 삽입하여 풍성한 서사로 확장시킨 것 같다. 황진이는 어떤 남성을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모성애를 가진 인물로도 그려진다.

한편 홍석중은 지족선사보다는 원목대사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여 이야기를 구성했다. 또 여기서 불교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했다. 황진이가 원목대사를 유혹하는 모습은 기존의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요부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용만 당하던 지족선사는 황진이에 구출되긴 하지만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기생이 된 이후의 황진이의 삶은 주로 남성과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편에서는 작가의 상상력과 허구성에 치중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홍석중은 가공의 인물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 신분제 사회의 비판과 혁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놈이다운 거사요 놈이다운 행동이었다. 사실 그가 당한 처지로 자신을 변명하고 진실을 까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밖에 없지 않은가. (중략) 부중 사람들의 동정이 많이는 화적들 쪽으로 쏠렸다. (중략) 늘 백성들을 산적꼬치 꿰듯 해서 기름가마에 굽고 지지고 볶고 못살게 구는 지옥귀신들이 관속들인데 그 지옥귀신들의 우두머리들인 리방과 호장이 마른벼락을 맞았은즉 우선 그것이 미친개를 범이 물어놓은 것만큼이나 통쾌하고 또, 앞에서는 ‘삼문안의 사대부’ 노라고 거드름을 부리며 뒤에서는 사정없이 갈퀴질을 해오던 그자들이 바로 마방집 사람들을 죽이고 보물을 훔쳐간 도적놈들이라는 것이 백주에 드러났은즉 사필귀정으로 일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 년 목은 체중이 나온 듯 시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홍석중, 『황진이』, 194-195쪽]

위의 인용문은 사람들 앞에서 놈이가 자신의 누명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군을 피해 달아난 이후 황진이가 놈이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다. 놈이는 송도 유수 김희열과 그 부하들의 계략으로 누명을 쓴다. 홍석중은 놈이라는 허구적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혁명 의식을 표출하면서,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놈이는 결국 허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황진이는 자신이 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황진이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그 후의 이야기’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되고 있다. 황진이가 송도를 떠난 후, 안교리 맥노마님의 칠순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황진이가 김희열을 낚향시킨 이야기, 그녀가 가진 문학적 재능이 평가된다.

① “점잖은 사대부로 입에 올리기는 좀 멋쩍은 데가 있지만 뜻은 얼마나 아름답구 재기는 또 얼마나 발랄합니까?”

[홍석중, 『황진이』 2, 307쪽]

② “점잖은 사대부로 입에 올리기는 좀 멋쩍은 데가 있지만 이만하면 재색이 뛰어난 녀중호걸이라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좌중이 흥성거렸다. 진이의 시조가 격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고 뜻이 깊다며 칭찬들을 하는 중인데 (중략) 일전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금강산에 소리를 잘하는 사내 계집 둘이서 유람을 다니는데 모양은 아주 망측한 거지 풀이구 로자는 하나두 없이 그 계집 광대가 이절 저절 중놈들한테랑 식을 빌어서 먹구 다닌답니다.

[홍석중, 『황진이』 2, 307-308쪽]

①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창작한 시조 <동지달 기나긴 밤>을 누군가가 읊고, 평가하는 대목이다. ②의 인용문은 <내 언제 무신하여>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끼어들어 황진이가 금강산 유람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이야기 하는 대목이다.

‘점잖은 사대부로 입에 올리기는 좀 멋쩍은 데가 있지만’이라는 전제는 양반의 허위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러나 시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문인으로서의 황진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시에 당대 명창 박준이 <격양가>를 부르다 중단한다. 이 때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나머지 뒷부분을 부르자 사람들이 냇을 잃고 쳐다본다. 이 같은 내용은 II장에서 살펴 본 황진이와 이생과의 금강산 유람 이야기가 확장된 것이다.

천성이 소리를 좋아해서 우연한 기회를 만나 자기도 모르게 끼여든 것이니 용서하시고 밖에 있는 천네의 하인을 불러 요기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략) 나가며 하는 말이 먼저 길을 떠날테니 선전 나오리께서는 여기 남으시구 싶으시면 남으셔두 좋구 따라오구 싶으시면 천천히 뒤따라오셔두 좋다급쇼.
(중략)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방금 본 진이의 재색만하면 자기들도 리 사중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미쳐서 따라다닐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홍석중, 『황진이』 2, 313-315쪽]

홍석중은 이생을 이사중으로 바꾸어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위의 인용문은 사람들이 이사중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이사중과 황진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듯이 6년을 함께 한 내용이 중심이지만 서사화 되지 않는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사회주의 이념과 민족적 정서의 구현이라는 구호아래 유교적 가부장제가 서로 교직되면서 대중성이 가미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사중과 황진이가 6년 동안을 함께 했다는 부분은 내용이 주는 과격성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남이를 사랑하는 여성다운 황진이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조선조 풍속의 재현과 고유어, 속담의 구사 등 예술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은 점 또한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3) 박애적 사랑의 실천가 - 전경린의 『황진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페미니스트 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엘레인 쇼ALTER(Elaine Showalter)는 “여성 작가는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체험과 의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의 문학 전통에 기여할 수 있다”¹³²⁾고 주장하였다. “모든 자유를 가진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여자들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그녀의 간헐 삶이 문학적 관심사”¹³³⁾라고 밝힌 전경린은 쇼ALTER의 주장에 부합되는 작가로 볼 수 있다.

가족과 자아라는 테마를 천착하는 여성 작가들의 소설은 일상모순의 미미한 영역을 관통함으로써 깊은 공명을 선사한다. 주변부적 존재로서 세상을 읽어내려는 은밀한 욕망과 꿈을 담은 여성 작가들이야 말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성을 투시하고 있다.¹³⁴⁾ 이처럼 소설의 형식을 빌려 현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내면, 일상의 세밀한 문제들을 보여주던 여성 작가들은 2000년 들어서면서 과거의 여성들을 불러내기 시작한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이러한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¹³⁵⁾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영웅담에 중점을 둔 거대서사로서의 역사소설 대신 개인의 내면과 일상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역사물의 재창작이기도 하다.

“불행한 일상을 뒤흔드는 정념의 사랑과 여성성에 대한 성찰, 내면에 대한 깊은 관심, 사물에 대한 강렬한 상징적 비유”¹³⁶⁾를 보여주던 전경린은 “실종된 여성성의 긴 공백을 단번에 메울 수 있는 존재론적 자유혼”¹³⁷⁾의 표상으로 16세기의 황진이를 인간적 면모를 중시한 여성으로 불

132) 박희진, 『버지니아 울프 연구』, 솔 출판사, 1994, 14쪽.

133) 권혁란, 「출판 분야별로 살펴본 여성의 재발견」, 기획회의 엮음, 『키워드로 읽는 책』,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50쪽.

134) 백지연, 「일상성의 신화와 이야기의 욕망」,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1, 136쪽.

135) 김별아의 『미실』(문이당, 2005) 과 『논개』(문이당, 2007), 윤지강의 『난설현, 나는 시인이다』(위즈덤하우스, 2008), 권지예의 『붉은 비단보』(이룸, 2008), 은미희의 『나비야 나비야』(문학의 문학, 2009)등은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136) 백지연, 위의 책, 136쪽.

137)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작가의 말.

러내었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2000년대 황진이 소설 중에서 황진이 설화의 모티프를 가장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역사소설 서사구조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작가는 이 작품이 “엄정한 역사물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자유로움을 확보한 소설”¹³⁸⁾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10대 왕인 폐주 연산군 시대였다. (중략) 현학금은 항상 검은 비단 저고리와 흰 치마만을 입었고 마치 병어리처럼 말이 없었는데 숙성할수록 점점 그 흑해져 열일곱 살이 되자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중략) 연산군이 일곱 달 동안 피의 살육극을 일으켰던 1504년, 연산군 10년이였다. (중략) 채홍준사가 현학금에게 말하기를, 절색을 갖춘 데다 나이 어리고 거문고 기예까지 갖추었으니 최고 점수인 천과홍청이라 했다. (중략) 현학금은 경악하였다. 여염집 아낙을 겁탈하고 비구니까지 잡아 와 겁간한 폭군의 추악한 욕정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했거니와, 약사 기녀로서 은밀하게 지켜온 자긍심이 산산조각 나 오물통에 처박히게 되니, 그런 모습으로는 설사 살아있다 해도 산목숨이 아니었다.

운평에 갇힌 현학금은 의동생인 옥섭에게 약을 짓게 했다. 단호한 의지에 옥섭은 거절할 수 없었다. 현학금은 그 약을 먹고 하룻밤 사이 눈이 멀었다.

[전경린, 『황진이』 1, 17-22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역사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대기적 기술방식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황진이의 어머니 현금의 외면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으며, 천과홍청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본인의 눈을 멀게 하였다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약사 기생으로서의 자긍심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단번에 베어버릴 정도로 현금의 태도는 단호하다. 이것은 황진이가 명기로서의 자질보다 예술가의 특성이 부각되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전경린은 황진이가 맹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모티프로 어머니 현금이 스스로 눈을 멀게 하는 극적 사건을 추가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전경린은 ‘맹인의 딸’, ‘거문고’를 뜻하는 현금의 이름 등 설화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수용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전경린의 작품에서는 앞서 살펴 본 김탁환과 홍석중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황진사와 진현금의 사랑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① 딸을 낳자 한량의 집에서 부인이 찾아와 의논하며 물었다.

“네가 더 잘 알지만 기생이란 백정만 못하지 않느냐. 네 딸이 자라 또 너처럼

138) 전경린, 위의 책.

기생이 되기를 바라느냐? (중략) 딸을 몰래 데려가 내 딸처럼 키워 사대부가에 시집을 보내겠다. 그러니 딸을 맡기고 너는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략) 그 후 여섯 달이 지나 젖을 떼자 현학금은 딸을 한량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전경린, 『황진이』 1, 23-25쪽]

② 삼척일이 되어 산모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난 이미 걱정만 대루 네 어미한테 두 길 중의 하나를 고르라구 강박했니라. 집에 남아서 딸까지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던가, 아니면 딸을 두고 집을 떠나서는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을 말던가. 만일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딸을 내 친소생으로, 조금도 구김 없는 황진사댁 정실 소생으로 키우겠다는 걸 내가 네 어미한테 단단히 다짐을 하구 칠석같이 약속을 했다. [홍석중, 『황진이』 1, 165-167쪽]

위의 인용문 ①은 황진사가 학업에 열중하는 사이에 신씨 부인이 현금에게 찾아가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며, 현금을 떠나 보내는 대목이다. ②의 인용문은 앞서 살펴 본 홍석중의 작품에서 나타난 대목이다. 이 두 작품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점, 딸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현금이 형상화된다는 점 등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전경린과 홍석중의 작품에 나타난 황진사의 부인들은 첩의 딸을 자신의 소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며, 진실을 은폐하고자 한다.

홍석중의 작품에서는 황진이가 부모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면, 전경린의 작품에 나타난 황진이는 친척들의 냉대는 있었지만 넉넉하고 자애로운 신씨 부인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자란다. 현금의 딸 황진이를 돌보는 것은 현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 황진사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현금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병부교 밑에서 주워 왔다는 소문’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황진이가 듣게 되면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다. 황진이는 큰고모를 통해 소문으로만 듣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

“세상을 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낙상한 꼴이니 저대로 두어서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성격이 끈고 자존심이 강한 성미라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습통이 조일 것입니다.” [전경린, 『황진이』 1, 65쪽]

위의 인용문은 하루아침에 기생의 딸이 된 황진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실을 의원 홍경화가 아버지 황진사에게 전하는 대목이다. 황진이의 자존심 강한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홍경화와 진관스님의 도움으로 황진이는 절의 별채에 머무르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이 때 황진이는 우연히 한 선비와 마주친다. 이후 진관스님에게 전해받은 선비의 편지는 황진이를 놀라게 했다.

생각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일이건만, 백설에 덮인 산중에서 흰 옷 입은 그대와 마주선 뒤로 심신에 불이 붙어 날마다 타들어갑니다. (중략)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무시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며, 혼자서 불붙은 몸과 마음을 식히느라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벌하느라 먹지도 않고, 그대를 범하는 꿈이 두려워 잠을 쫓기도 했습니다. (중략) 나는 지금 내장을 다 빼낸 짐승과 같습니다. 내 피가 쉴 새 없이 그대에게로 흘러 나갑니다. 이러니 내가 말라죽은들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전경린, 『황진이』 1, 132-133쪽]

황진이는 선비의 애절하고 섬뜩한 편지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전경린의 작품이 다른 황진이 소설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인물들의 행적보다는 심리묘사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작가의 이러한 심리묘사는 다음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는데, 집에 돌아 온 황진이가 자신의 ‘몸 안에 척추처럼 박힌 커다란 거문고’를 보게 된다는 부분이다.

황진이가 목에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병어리로서의 여성의 운명과 그에 대한 저항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이때 거문고는 기생으로서의 운명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잃어버린 자신의 목소리를 상징한다.¹³⁹⁾

출생의 비밀로 인해 자신의 앞날에 깊은 고민을 하던 중 황진이로 인해 상사병을 얻은 선비가 죽게 된다.

요령꾼들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눈에 고여 드는 땀을 닦느라 인상을 쓰며 팔뚝으로 닦아내니 마치 끊임없이 우는 것만 같았다. 상여꾼들도 팔뚝으로 자주 눈을 닦아냈다.

“상여가 붙었소, 이리되었으니 이 집 아씨를 부르시오.”

“예?” “달리 방법이 없소. 아씨가 나와서 속곳을 얹어 시신을 달래주어야겠

139) 황도경, 앞의 책, 141쪽.

소.”(중략) 그때, 대문 밖으로 소복 차림의 진이 걸어 나왔다. 비에 젖어 흑단같이 검은 머리 아래 박꽃같은 얼굴이 슬픔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눈 속에 단념을 겪은 비통한 평화가 안개처럼 서려 어찌면 희미하게 웃는 것 같기도 했다.(중략) 진이 대문간으로 고개를 돌리자 연두는 두 팔을 부들부들 떨며 진의 흰 속곳을 들고 나타났다. 진은 그것을 받아 자기 손으로 상여위에 얹었다.

[전경린, 『황진이』 1, 163쪽]

위의 인용문은 죽은 선비의 상여 앞에서 황진이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황진이의 감정보다는 인물의 행동 묘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설화가 소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듯하다. 감정 묘사는 배제하고 황진이의 행동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경린 역시 홍석중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결정적인 계기로 두지는 않는다. 즉, 기존 작품들이 상사병에 걸린 총각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생의 길을 택했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것에서 보다 자유로운 면모를 보인다.

소설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아버지 황진사에게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며, 황진이는 동생 난에게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기생이 된 이후의 황진이의 삶은 남성과의 교유와 사랑의 감정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년이 참으로 바보로구나. 기생 된 년의 사랑에는 원래 결실이 없는 법인데 무엇을 바랐다는 말이나? 사내의 몸과 마음이란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해야지 정을 심어 제 손목에 스스로 칼을 꽂다니 참으로 바보가 아니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전경린, 『황진이』 1, 261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에게 한유수를 빼앗긴 그의 첩 죽선이 칼로 손목을 그은 이후에 옥섬이 죽선의 태도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다. 죽선의 일로 황진이는 기생의 슬픈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남성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진 황진이 이야기에서는 기생의 고난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경린은 여성 작가의 세심함으로 기생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른 작품에 비해 비중 있게 그리고 있다.

한양으로 올라가게 된 한유수는 진에게 소설이 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한다.

“불교국에는 시다림이라는 장례가 있다고 해요. 시다림이란 추운 숲, 시체 버리는 곳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유수가 고개를 저었다. “죽은 시신을 숲에 버려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는 장례라고 해요. 저도 끝에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강변에 버려져 밝은 햇볕 속에 평화롭게 누웠다가 밥이 되면 곤충과 새와 짐승들에게 한 점씩 나누어 먹혔으면 해요.”

[전경린, 『황진이』 1, 271쪽]

위의 인용문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한유수와 예성강가에 가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며, 김택영의 『송도인물지』에 나타난 황진이의 유언이기도 한다. 여성의 자유분방함을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편집한 김택영과 달리 전경린은 오히려 “그녀가 역설적으로 큰 자애”¹⁴⁰⁾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마루 끝 쪽에서 이를 노려보고 있던 송유수의 첩이 별떡 일어나더니 진에게로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송 유수의 첩은 진을 일으키고는 따귀를 올렸다. **별안간에 따귀를 맞은 진은 맞받아 두 대의 따귀를 돌려주고 말았다.** (중략) 진은 그녀에게로 다가가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중략) “유수 어른이 여자를 좋아할 사람인데, 어렵겠지만 택이 그 서술로 꼭 붙들어주면, 내게도 좋은 일이니 하는 말이오.” (중략) 소설이란 정실의 손바닥 안에 갇힌 신세이기도 하지요.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과 새 사람들과 부대끼니 얼마나 무섭겠소. 앞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 너무 두려워 말아요. 유수를 지키려면 송도 기생들을 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한통속이 되는 게 나을 거요.” [전경린, 『황진이』 2, 12-14쪽]

첫 정인이었던 한유수와 이별한 후 새 유수가 부임하게 된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덕형의 『송도기이』에 나타난 송공과의 이야기가 계승·확장된 것이다. ‘송공의 첩이 머리를 풀고 발을 벗은 채 뛰쳐나온 것이 여러 번’이라고 서술된 송공 첩과의 갈등을 전경린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확대하였고, 황진이의 행동은 기존의 소설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140) “나에게 소설을 쓸 중요한 영감을 준 부분은 우리 역사의 중세에 태어나 ‘자결적 생애’를 살고 간 바로 이 부분이며, 자기 결정에 혹독할 만큼 충실한 삶을 살고 간 점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지점이다. ‘자애’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것과 바꾼 사람이 얻는 삶의 궁극적 조건이다. 그로부터 이 세계와 타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실제적 삶이 실현된다. 오래전에 진의 유언을 읽었을 때 나는 그녀가 역설적으로 큰 자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경린, 앞의 책, 작가의 말.

① 이년 명월아! 이 말 한마디에 명월은 모든 것을 알아채었다. 가슴에 시퍼런 칼이 박히는 것 같았다. 저편이 모르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기생이란 이다지도 남의 아내들에게 적원을 하는 것인가는 처음 느끼었고 깨달았다. 그길로 치마를 털고 일어서 집으로 내려왔다. [이태준, 『황진이』, 176쪽]

②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해괴망측하게 나오더라도 명월의 입장으로는 사또 부인에 대한 대접을 깎듯이 해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중략) 명월이 머리를 정중하게 수그려 인사를 올리며 <합부인>이라고 과분한 존대를 하는 바람에 사또의 부실은 허(虛)를 찢린 듯 일순간 찢끔하니 놀라는 표정이었다. [정비석, 『황진이』, 65쪽]

③ 비록 얼떨결에 뺨을 한 대 맞기는 했으나, 진이는 꼼짝없이 수척을 들어야 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최정주, 『황진이』 上, 242쪽]

위의 인용문은 이태준·정비석·최정주의 작품에 나타난 송공 첩의 횡포에 대응하는 황진이의 모습이다. 송공 첩의 횡포에 이태준은 깨달음을 얻은 황진이의 모습을 그렸으며, 정비석과 최정주는 소극적이며, 순종적으로 대응하는 황진이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전경린은 첩의 횡포에 두대의 따귀를 돌려주며, 이유 없는 횡포에는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다. 자리가 끝난 후에 첩과의 대화를 통해 정실이 아닌 소실로 힘겹게 살아갈 여성에게 동정을 표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황진이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자주 묘사되는데, 송공의 첩을 포함하여 주변 여성들은 황진이와 갈등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는 불합리하게 강요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경린은 황진이 설화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

한편 황진이의 교유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35년 중종 30년 기생이 된 지 만 5년인 23세에 진은 나라 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실상부한 명기의 반열에 올랐다. 당대 기생으로는 한양의 상림춘과 관홍장, 소춘풍이 송도의 진과 함께 이름을 날리는 정도였다. 진은 광채가 나는 경국지색의 미모와 빼어난 시를 지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여류시인으로서, 그리고 고려의 맥을 잇는 거문고 명인으로서 특히 인정받았다.

[전경린, 『황진이』 2, 95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기생이 된지 만 5년 만에 명기의 반열에 올랐

다는 대목이다. 경국지색의 빼어난 미모와 시를 잘 짓기도 했지만 ‘고려의 맥을 잇는 거문고 명인’으로 특히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나라의 이름난 시인과 관료들이 명기로 소문난 황진이와 교유하기 위해 송도로 찾아들었고, 소세양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황진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준 인물로 소세양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홍석중의 관점과도 비슷하다.

약속한 기일인 한 달이 되어 마지막 날이었다. (중략) 소세양은 낮부터 술상을 찾았다. 햇살이 좋은 것을 보고 진은 술을 마신 소세양에게 목화숨을 넣은 마고자를 덧입히고, 둘이서 목지를 타고 예성강 청연산 아래로 소풍을 나갔다. (중략) 진은 고즈넉하게 소세양을 바라보더니 지필묵을 가져와 글자를 썼다. (중략) **“내 가지 못한다. 아직은 가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도 좋으니, 아직은 못 가겠다.”**

진은 승리자였다. 그러나 진 역시 이별 앞에서 패자였다. **치열한 게임 속에서 진도 어느 사이 소세양에게 마음을 준 것이었다. 다만 죽으라고 내색하지 않을 뿐이었다.**
[전경린, 『황진이』 2, 141-146쪽]

위의 인용문은 약속한 한 달이 다 되는 마지막 날 황진이가 소세양을 향한 시를 적어주는 대목이다. 전경린은 임방의 『수춘만록』에 나타난 소세양과 황진이의 이야기를 계승·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춘만록』 안에 담겨진 의미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인연을 내기라는 흥밋거리로만 치부시키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다. 전경린은 소세양과 황진이의 교유를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둘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기도 한다.¹⁴¹⁾

한편 전경린의 작품에서 성리학적 규범을 제도화시킨 조광조와 유학자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리학의 반대편에는 화담 서경덕을 중심으로 한 주기론자들도 있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통해 ‘공활하고 따뜻하고 명쾌하고 자유로운 시선으로부터 구원의

141) “조광조는 죽었으나 조선은 조광조의 유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림파가 득세하고 성리학은 더욱 강고해져, 지방 향교마다 소학을 가르치고 여자에겐 내혼 읽기를 강요합니다. (중략) 일거수일투족을 정해 일반 백성과 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를 억압하니, 착취하는 쪽에서야 저절로 이익이 넘치지지요.”
[전경린, 『황진이』 2, 121쪽]

가능성' 을 감지하게 된다.

“저는 먼 길을 우회하여 이제 화담에 이르렀습니다. 여자들은 실미를 허리에 묶고 남자들은 가죽띠를 허리에 묶는대지요. 저는 오늘 가죽 띠를 묶고 남자와 닮없는 배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미친한 저를 부디 쫓지 마십시오. (중략) 베개를 가져와 머리 밑에 괴어주고 이불을 덮어주더니 조금 열어두었던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고 마침내 등불도 켜다. 그 뒤 화담은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책상 앞으로 다가가 앉아 고개를 반쯤 숙이고 책을 펼쳤다. 캄캄한 방 안에서 화담은 일정하게 책장을 넘겼다. 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방안에서 얼음이 녹듯 스프르 잠이 들었다.

[전경린, 『황진이』 2, 216-220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서경덕을 찾아가는 대목이다. 앞서 살펴본 유포인의 『어우야담』에서 나타난 내용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지만,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경린의 작품에 나타난 서경덕은 어디에도 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로 설정된다. 야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와는 달리 화담과의 관계에서 육체적, 성적 접촉이나 그런 시도 자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¹⁴²⁾

전경린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황진이와 남성과의 교유는 황진이의 남성편력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황진이는 사랑을 베푸는 인물로 확고해진다. 이것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사종과 황진이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이 길다 하나 3년도 긴 것이어서 부인께서 견디시기 힘들 줄 압니다. 인생이 짧다하나 3년도 짧은 것이니 그로서 이별하면 송도와 한양으로 나뉘니 피 끓는 3년을 일생으로 여겨 살려하니 부디 저를 위협으로 느끼지 마시고 인연으로 여겨 받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략)

이사종은 유향소 사족들의 대표자인 행리들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향악이 백성을 뿔박하는 것을 막기위해 고심했는데, **진의 활약과 응원으로 백성의 지지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진은 결인청을 설치하게 해 관아의 기생들이 짠 비단을 팔고 소문나지 않게 사비를 보태어, 결인과 굶어 죽는 노인과 버려진 어린아이와 학대받는 여자를 위해 동헌 문 앞에서 정오에 배급을 했다. 또 겨울에는 관아 근처 집 한 채를 빌려 길에서 얼어 죽는 이가 없도록 보호소로 썼으며, 비가**

142) 황도경, 앞의 책, 143쪽.

오면 가축과 사람의 분노가 함께 넘치는 천민의 주거 환경을 정비했는데, 그 공을 모두 이사종에게 돌아가도록 자신의 역할을 숨겼다.

[전경린, 『황진이』 2, 174-180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이사종과 함께 6년을 함께 하겠다고 이사종의 부인에게 말하는 대목이다. 자신을 숨기고 남성을 내조하는 여성으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조용히 상대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황진이의 사랑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전경린은 황진이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 황진이 면모를 풍부한 상상력을 덧붙여 보여주고 있다.

정씨부인은 임지에서 기생이 팔려올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들어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진을 보자 자리를 빼앗길까 봐 덜컥 겁이 났다. 한양 땅에는 정실을 핍박하는 윤원형의 첩 난정의 소문이 자자한 때였다. 드러내놓고 첩을 거절할 수도 없고 투기를 할 수도 없었으나 두려움이 정씨 부인을 혼란스럽게 했고 웅졸하게 만들었으며 날카롭게도 만들었다.

[전경린, 『황진이』 2, 182쪽]

위의 인용문은 황진이가 이사종의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첩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부인의 심정이 토로된 대목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한무숙의 「이사종의 아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인내와 순종이라는 미덕의 이면에 숨겨진 한과 절망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전경린의 작품에서는 가부장사회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모습과 내면이 가장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에서 이사종과 황진이의 특별한 만남을 인정해 주었다고 서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전경린은 유교적 규율과 통제 속에 자유롭지 못했던 16세기라는 시대에 반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대부분의 여성을 성리학적 규범의 희생자로 파악하고 있다.

황진이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로 자신의 불행을 대신 겪어야 했던 동생 난이와 자신을 찾지 않는 유수에게 서운함을 느껴 손목을 그은 한유수의 첩 죽선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한다. 그리고 이사종의 부인의 질투·미움의 감정은 너무 쉽게 해결되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

부분의 여성은 황진이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간다.

한편 황진은 꿈을 통해 이사종의 죽음을 알게 되고, 이사종의 식구들을 위해 1년에 3번씩 식량과 비단, 금 등을 대주기도 한다.

이처럼 “전경린은 ‘황진이’의 사랑 방식을 이타적으로, 모성적으로 전개하고 있다.”¹⁴³⁾

전경린의 『황진이』는 황진이의 자유로운 예술가의 면모도 부각되는 동시에 황진이가 베푸는 사랑의 방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인물의 형상화나 서사의 진행에 있어 이상적이고, 신비롭게 보이도록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경린의 작품은 사회 제도에 억눌린 여성의 문제를 분출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로서의 황진이로 그리고 있다. 이는 여성 작가에 의해 재해석된 황진이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 김탁환·홍석중·전경린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세 작품은 황진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작가마다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의 김탁환·홍석중·전경린의 작품에서는 재주 있는 기생의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된 황진이가 아니라 학인(學人), 자유인, 참사랑의 실천인 등으로 변화된 인물 황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세 작가가 기존소설에서 정형화된 황진이에서 탈피하여 인간이자 여성인 황진이란 인물에 깊이 있게 접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작품은 황진이 설화 속 사건들을 토대로 서사를 진행하였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또 다른 인물로 재창조할 수 있었다. 가공의 인물까지 포함하면 이 세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군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이 황진이 설화를 변용하여 소설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도 황진이를 필두로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황진이 소설을 세부적인 모티프에 적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43) 김미영, 앞의 논문, 102쪽.

번호	황진이 설화	세부적 모티프	작가별 황진이 모티프의 수용 및 변용 양상								
			193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이태준	박종화	정한숙	최인호	한무숙	정비석	김탁환	전경린	홍석중
I	신분 및 출생	생몰연대	×	×	×	×	×	○	△	△	△
		출생	×	○	○	×	×	○	△	△	△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	○	○	△	×	○	△	△	△
II	재색 (才色)	문학적 재능	○	○	○	○	○	○	○	○	○
		음악적 재능	○	○	○	○	○	○	○	○	○
		성격과 외모	○	○	○	○	○	○	○	○	○
III	교유 인물	소세양	○	○	○	○	×	○	△	○	△
		벽계수	○	○	○	×	○	○	○	×	△
		지족선사	△	○	△	△	○	△	△	△	△
		서경덕	△	○	○	×	○	△	△	△	△
		송공	○	×	△	○	×	○	○	○	△
		이사종	○	×	○	△	○	○	○	△	△
		이연방	○	×	×	×	×	×	○	○	×
		염수	○	×	×	×	×	○	○	○	○
IV	최후 기록	이생	×	×	○	×	○	△	△	△	×
		유언	×	○	×	×	×	○	△	△	○
V	작가의 의식	임제	×	○	×	×	×	○	×	×	○
		작품의 삼입	○	○	○	○	○	○	△	○	○
		새로운 사건과 인물의 창조	△	×	△	▲	△	△	▲	▲	▲

<표10> 작가별 황진이 모티프의 수용 및 변용 양상

<표10>에 나타난 내용을 신분 및 출생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태준·박종화·정한숙·한무숙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의 정확한 생몰연대가 나오지 않는다. 정비석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의 정확한 생몰연대를 서술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모두 황진이가 살았던 16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작품에서는 작가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의 김탁환·홍석중·전경린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의 생몰연대 뿐만 아니라 16세기의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황진이 설화 모티프를 변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황진이의 출생 설화는 이태준·최인호·한무숙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박종화·정비석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의 출생 설화가 그대로 계승되어 확장된다. 김탁환의 작품에서도 황진사와 진현금의 만남이 형상화되고는 있지만, 설화적인 요소는 배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경린과 홍석중의 작품에서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어 황진이의 출생 설화를 변용하고 있다.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지만, 한무숙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태준·박종화·정한숙·정비석의 작품에서는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분에 의한 갈등 상황도 나타나긴 하지만 문헌설화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최인호의 경우 상사병에 걸린 총각이 뱀이 되어 나타나 황진이와 성적결합을 이룬다. 기존의 소설들은 황진이가 총각의 상여에 속옷이나 적삼을 올리는 것으로 상징적인 혼례를 하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였다. 하지만 최인호의 작품은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모티프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변용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의 작품에서는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 모티프를 기생이 되는 계기와 연관시키지 않는다. 김탁환의 작품에서 황진이는 총각이 죽기 전부터 기생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전경린과 홍석중의 작품에서는 출생의 비밀로 인해 기생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죄책감에 떠밀려 기생의 길을 택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 위해 기생이 되고자 한 주체적 선택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신분 및 출생에 있어서는 작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음악적 재능·성격과 외모에 대한 작가의 관점은 설화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진이 설화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될 수 있는 이유는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이 여전히 향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재평가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이 소설 속에 반영되기도 했다.

황진이 소설의 다양성은 교유인물의 형상화에서 드러난다. 대부분의

작가가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인물을 형상화하고는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 및 비중에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작품들에서는 설화에서 등장하는 교유인물이더라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형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탁환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름과 집을 버리고 떠도는 이생을 통해 조광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린의 경우 이생과 유학자들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황진이는 교유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작가들 또한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황진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신문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의 경우에는 황진이의 이미지가 굴절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성 담론이 확산된 1970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의 작품은 황진이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전경린의 경우 여성 작가의 기원이 기녀였음을 염두에 두고 황진이를 소설화 했다. 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된 황진이를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냈다.

황진이의 최후의 기록은 그대로 계승되거나, 황진이의 삶의 여지를 남겨놓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전경린은 황진이의 유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으며, 김탁환 또한 유언을 통해 황진이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의 소개는 사실적으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황진이의 작품을 그대로 인용하여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을 조명했고, 김탁환의 작품에서는 황진이의 작품을 서사적 맥락에 승화시켜 시조의 행간에 의미부여를 하여 색다른 감상을 맛보게 한다.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으로 인해 작품이 새롭게 읽히는 것은 2000년대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사적 현상이다. 기존의 작품들은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황진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서사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홍석중은 허구적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김탁환은 설화의 인물의 비중을 달리하여 작

품을 새롭게 하고 있으며, 전경린은 새로운 여성인물을 형상화하여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작가들이 황진이의 재색에 대해서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며, 인물의 성격 변화를 통해 황진이 설화를 변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황진이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황진이 설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며, 이 재평가에 따라 인물의 매력은 새로워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황진이 설화를 기준으로 황진이 소설을 재단하여 평가하는 것은 자칫 무리일수도 있으며,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 다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은, 황진이 설화라는 원천소스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설화와 소설은 상호 친연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모든 작가들이 황진이 설화를 작품의 모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은 앞으로 또 다른 원천소스의 다양성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작품의 창작의 기틀이 될 것이다.

IV. 황진이 문학의 가치와 의미

남성이 주도하고 기록한 역사의 흔적 속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악녀’와 교훈이 될 만한 ‘현모’로 대표 될 수 있는 여성들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황진은 악녀도 현모도 아닌 ‘기이’한 여성으로 호명되어, 문헌설화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는 16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구비 전승되다가 17세기 전반에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문헌설화는 주로 한문에 익숙한 사대부 남성계층이 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편찬자의 의식과 당대의 이념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진이는 ‘천하절색(絶色)’, ‘선녀’, ‘국색(國色)으로서 광채(光彩)가 사람을 움직’ 일만한 여성적인 외모와 ‘여자이면서도 뜻이 크고 높았으며 호협한 기개’가 있고, ‘이(風)를 잡으며 노래하고 거문고를 타되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남성적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다. 유교사회에서 사대부 남성들과 공식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표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은 기생이었다. 기생제도는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인된 제도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시와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생이라는 황진이의 특수한 신분은 그녀의 매력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황진이가 직접 창작한 한시와 시조, 황진이의 삶과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하여 재생산된 문헌설화, 구비설화, 시평집에 이르기까지 황진이 관련 기록은 다양한 문헌으로 확대·재생산되었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황진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한 허균은 『성용지소록』에서 ‘화담의 이학(理學), 석봉의 필법(筆法), 차씨(車氏) 부자와 형제의 문명(文名)’에 견주어 황진이를 남성 못지않은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였다. 유몽인은 구비 전승되던 황진이 이야기를 『어우야담』에서 기록하

면서 편찬자의 개인적 의견을 체계화하여 당대의 규범에 맞는 이야기로 담아냈다. 이덕형은 『송도기이』에서 황진이를 당대의 명망 있는 학자들과 교유할 정도로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자 신이한 출생설화를 가진 비범한 인물로 그려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몽인의 『어우야담』, 허균의 『성웅지소록』, 이덕형의 『송도기이』는 황진이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므로 문헌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문헌에서 황진이의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 세 문헌에서는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은 소개되지 않았다. 후대의 문헌인 홍만종의 『소화시평』과 이덕무의 『청비록』은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의 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평집은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임방의 『수촌만록』에서는 소세양과의 교유를 보여주면서 황진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수훈의 『이순록』과 서유영의 『금계필담』의 경우에는 벽계수와 교유를 보여주면서 황진이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문헌 속에는 황진이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유인물의 행동 변화를 통해 황진이의 시가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에 대한 평가 이외에 덧붙여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시를 둘러싼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문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택영의 『송도인물지』는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과 상사병에 걸린 총각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바가 있어 기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김택영은 황진이의 유언을 통해 교육적 경계의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했다는 황진이의 모습은 주체적인 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황진이 설화는 끊임없이 문헌에 기록되고, 변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듯 황진이가 16세기를 살았던 유명한 기생이자, 뛰어난 한시와 시조를 남긴 문학가이자, 음악가이면서, 남성 못지않은 기개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황진이와 관련된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확대·재생산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황진이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남성 못지않은 재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황진이는 남성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동시에 시대를 앞서가는 진취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황진이 설화에 나타난 흥미롭고 친숙한 이야기들은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헌기록에서 볼 수 있었던 황진이라는 인물은 황진이 설화를 원천소스로 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원천소스는 수용자 및 편찬자·작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변용·윤색되면서 문학적 상상력의 힘을 발산하게 되었다. 더욱이 황진이라는 매력적인 인물에 대한 흥미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문학은 그녀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잘 드러나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황진이는 <작은 잣나무 배(小栢舟)>라는 시에서 자신의 처지를 잣나무에 비겨 문과 무를 갖춘 부귀한 사람만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하였다.

저 강 복판에 떠 있던 조그만 잣나무 배	汎彼中流小栢舟
몇 해나 푸른 물가에 한가히 매였던고	幾年閑繫碧波頭
누가 먼저 건넌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後人若問誰先渡
문과 무를 모두 갖춘 부귀한 사람이라 하리	文武兼全萬戶侯

김탁환은 『나, 황진이』에서 이 시를 모티프로 하여 황진이가 교유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서술 하였다. 이 작품에서 황진이는 사람을 믿고 장사하는 송도의 거상, 음률에 능한 사내, 시에 남다른 재주를 보인 사내를 평생의 지음(知音)으로 생각하였다.¹⁴⁴⁾ 그리고 황진이를 대상으로 처음 소설로 재구성한 이태준은 이 시를 모티프로 한 서술에서 더 나아가 황진이 작품세계의 전반을 형상화하여, 황진이가 선택한 남성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144) “나는 평생 세 부류의 사내들에게 잣나무배 오르기를 허락했습니다. 먼저 송도의 거상들이 있지요. (중략) 나보다 음률에 능한 사내도 기꺼이 대접했지요. (중략) 마지막으로 시에 남다른 재주를 보인 사내라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지요.” 김탁환, 『나, 황진이』, 130-142쪽.

‘첫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
 하고 명월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한다. (중략)
 ‘둘째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이다.’ (중략)
 ‘셋째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나이이다.’
 하였다. 학식으로 보든 인망으로 보든 풍도로 보든 무얼로나 어마어마하게 우러
 러보이도록 높이 솟은 사나이에겐 꼭 기어올라 안기어서 때로는 피곤한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쉬이고 싶은 생각도 나는 것이다.
 [이태준, 『황진이』, 126쪽]

이러한 서사방식은 후대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삼입되면서 황진이가 남
 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옛날에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길에 세 가지가 있다 함을 들었나이다. 그 하
 나는 심사(心事)니 마음으로 섬기는 길이요, 그 둘은 기사(幾事)라 기미(幾微)를
 따라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은 안사(顔事)니 얼굴로 섬기는 것이라 하옵니다.
 천기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어른님을 섬기었나이다. 그
 러나 범부(凡夫)는 안사에 혹하기 쉽고 또 천기는 미색으로 희롱함이 상례이온
 즉, 제 어찌 그런 길을 택하오리까.”
 [정한숙, 『황진이』, 56-57쪽]

진이는 스스로 경계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계명(戒銘)을 마음속으
 로 굳게 다짐하였다.
 첫째, 어떤 연석(宴席)에 불러 나가도 옷은 언제나 여염집 부인처럼 수수하게
 차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말 것이며, 얼굴에 분치장도 하지 말 것.
 둘째, 의기상통하는 풍류객이 아니면 상대방이 비록 권문 세도가나 만석꾼 부
 자라 하더라도 도도한 사람들의 부름에 응하지 말 것.
 셋째, 기생이 절개를 지키기는 어렵겠으나 간담상조(肝膽相照)하는 남성이 아니
 면 몸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될 만한 남성에게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친교(親交)를 맺되, 어느 누구에게도 깊은 미련을 가지지 말 것. 진
 이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계명만을 굳게 지켜 나갈 결심이었다.
 [정비석, 『황진이』, 45-46쪽]

위의 예문처럼 정한숙·정비석의 작품에서도 이태준의 서술방식이 계
 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을 향유한 사람들이 시화집이나 설화
 집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재생산 한 것처럼, 현대의 작가들도 황진이의
 작품세계 전반을 계승하면서 소설이라는 또 다른 장르 속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문화는 항상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만화, 영화와 같은 재미있
 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더불어 진보¹⁴⁵⁾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황진이 설

화가 다양한 장르로 변모하는 양상 속에서도 문화적인 진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전 및 역사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황진이 문학이 ‘원 소스 멀티유즈(OSMU)’, ‘스타 마케팅’ 등의 최근의 문화적 경향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즉, 황진이 문학은 서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었던 최인호·김탁환·홍석중의 소설은 드라마와 영화의 원작이 되기도 했다. 이 작품들은 황진이 문학이라는 원천소스는 동일하지만 표현되는 매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황진이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다.

최인호는 1986년 배창호 감독의 <황진이>의 시나리오 작업을 맡은 바 있다. 최인호가 발표한 단편소설 「황진이」의 내용이 시나리오 안에 흡수되어 있으며, 이 영화에서는 구도자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김탁환의 『나, 황진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황진이, KBS, 2006>에서는 밝고 화려한 색감이 주로 표현되었으며, 예인으로서의 힘차고 통쾌한 황진이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반해 홍석중의 『황진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황진이, 장윤현, 2007>에서는 거의 차가운 무채색의 색감으로 주로 표현되어 기생으로서의 화려한 모습보다 이지적이고 매혹적인 황진이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같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황진이를 재창조하는 것은 황진이 문학이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설화를 수용한 여러 장르 중에서 서사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구비한 황진이 소설만을 대상으로 문학적 수용 및 변용을 검토하여 황진이 설화의 수용사적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황진이 설화를 기준으로 황진이 소설의 모든 특징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황진이 설화라는 원천소스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황진이 설화와 소설은 상호 친연성을 획득하고 있으

145)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8쪽.

며, 모든 작가들이 황진이 설화를 작품의 모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은 앞으로 또 다른 원천소스의 다양성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작품 창작의 기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황진이 문학은 다양한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까지 담고 있다. 이러한 문학의 원동력은 황진이라는 500여 년 전의 인물이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꾸준히 향유될 수 있는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황진이 설화를 수용한 여러 장르 중에서 서사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구비한 황진이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적 수용 및 변용을 검토하여 황진이 설화의 수용사적 의미와 고전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황진이 문학은 다양한 시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까지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대를 아울러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황진이 문학을 통해 황진이라는 500여 년 전의 인물이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꾸준히 향유될 수 있는 가치와 생명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살피고, 황진이 문학을 논의하는데 참고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진이 설화와 소설의 범주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텍스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장에서는 황진이 설화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문헌설화 및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황진이 전승담을 생애의 과정으로 나누었다. 황진이 설화를 신분 및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재색(才色)과 관련된 이야기·교유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최후 기록 등 황진이의 생애를 세분하여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황진이라는 인물이 지닌 총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III 장에서는 황진이 설화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고전적인 시각에서 황진이 소설을 분석하였다. 1930년-1950년대 소설 속에 나타난 황진의 모습은 설화의 내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30년대 이태준의 『황진이』가 소설로 형성된 배경을 당대 역사소설의 전개과정 속에서 설명하였으며, 1950년대 작품인 박종화의 단편 「황진이의 역천」과 정한숙의 장편 『황진이』를 살펴보았다. 박종화의 작품은 설화의 원형성을 그대로 보존하여 소설화하였으며, 정한숙의 작품은 신문소설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1970년 이후에 나타난 황진이 소설은 초기소설의

특징과 황진이 설화를 계승·변용하면서 발전했다. 이러한 양상을 최인호, 한무숙, 정비석의 작품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1970년대를 지나 2000년 이후의 황진이 소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김탁환·전경린·홍석중의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세 작품은 황진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작가마다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의 김탁환·전경린·홍석중의 작품에서는 제주 있는 기생의 이미지로 고정 관념화 된 황진이가 아니라 학인(學人), 자유인, 사랑의 주인공 등으로 변화된 인물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황진이 설화라는 원천소스의 전통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과 모든 작가들이 황진이 설화를 작품의 모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황진이 문학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였다. 황진이 문학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당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이 투영되는 동시에 여러 장르와 교섭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황진이가 창작한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하여 기록한 문헌들이 다양하게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은 1차적으로 황진이라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원천소스를 토대로 현대의 작가들은 황진이의 작품세계와 삶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소설로 재생산하였다. 황진이 설화와 소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면서 황진이 문학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진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일부분을 조명한 것에 불과하다. 황진이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다층적인 의미와 다양한 장르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자료

1) 황진이 설화

- 구수훈, 『이순록』,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4, 건국대출판부, 1999.
- 김이재, 『중경지』, 장시광, 「황진이 관련 자료」, 『동방학』 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7.
- 김택영, 『송도인물지』, 김승룡 역, 현대실학사, 2000.
- 서유영, 『금계필담』, 김종권 교주·송정민 외 역, 명문당, 1985.
-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외 역, 돌베개, 2006.
- 이덕무, 『청비록』, 한국고전번역원,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33권 「청비록」 2 시기(詩妓) 수록.
- 이덕형, 『송도기이』, 한국고전번역원, 『대동야승(大東野乘)』 수록.
- 임 방, 『수춘만록』, 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2001.
- 허 균, 『성옹지소록』, 한국고전번역원, 『성소부부고』 제24권 설부(說部3) 수록.
- 홍만중, 『소화시평』, 안대회 역, 국학자료원, 1993.

2) 황진이 소설

-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 문정배, 『황진이』, 미래문화사, 1994.
- 이태준, 『황진이』, 깊은샘, 1999.
- 임종욱, 『황진이는 죽지 않는다』, 어문학사, 2008.
- 전경린, 『황진이』, 이름, 2004.
- 정비석, 『황진이』, 열매출판사, 2006.
- 정한숙, 『황진이』, 한벗, 1993.
- 최인호, 『황진이』, 문학동네, 2002.

- 최정주, 『황진이』, 삼신각, 1993.
- 최 학, 『화담명월』, 나남출판, 2005.
- 한무숙, 「이사종의 아내」, 『한국단편문학』 6, 금성출판사, 1992.
- 홍석중, 『황진이』, 대훈, 2004.
- 황원갑, 「기생의 역사를 바꾼 기생의 여왕 황진이」,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 마야, 2007.

2. 단행본

- 강전섭 편, 『황진이 연구』, 창학사, 1986.
- 기획회의 엮음, 『키워드로 읽는 책』,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 김재용 편,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南의평론가가 읽은 北의 소설 『황진이』』, 대훈, 2006.
- 김탁환, 『한국소설 창작방법연구』, 문경출판사, 2002.
-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 박태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 박희진, 『버지니아 울프 연구』, 솔 출판사, 1994.
-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 변원림, 『역사 속의 한국 여인』, 일지사, 1990.
- 백지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1.
-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2007.
-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출판사, 1996.
- 조동일 외 6인 공저, 『한국문학강의』, 길벗, 1994.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 역사, 2003.
-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 사상사, 2003.

3. 논문

1) 학위 논문

- 구선우, 「황진이 문학의 주제지향과 후대적 수용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병길, 「한국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미현, 「홍석중의 역사소설 『황진이』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영완, 「황진이 문학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전현례, 「황진이 소재 역사소설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일반 논문

- 고명철, 「‘황진이 서사’를 다룬 남과 북의 역사소설, 그 허구적 진실-홍석중과 김탁환의 ‘황진이 서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6,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김미영, 「역사적 인물, ‘황진이’의 현대적 변모양상-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4, 한국 언어문화학회, 2007.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연옥, 「黃眞伊 시조의 멋과 풍류」, 『새국어교육』 6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2.
- 김 철, 「아홉 장의 편지가 전하는 것- ‘이사종의 아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 연구원, 2004.
- 박광용,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역사소설과 사료 해석 : 홍석중의 <황진

- 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 박유희, 「2000년 이후, 서사매체와 역사 속 여성의 허구화- 2000년 이후 소설, 영화,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 안남연, 「황진이의 재조명」,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구 동악어문학회), 2007.
- 안대회, 「『小華時評』의 비평방식과 品評」,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 우미영, 「‘황진이’ 담론의 형성 방식과 여성의 재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1997.
- 이병렬, 「역사적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이태준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송실어문』 14, 송실어문학회, 1998.
- 이화형, 「황진이(黃眞伊)의 시적 진실」, 『외대어문논총』 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1997.
- 이현경, 「현대영화가 ‘황진이’를 소환하고 재현하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2006.
- 전명희, 「남북한 문학 속에 투영된 여성미 비교고찰」,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 한규무,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황진이 · 어우동 · 논개 그리고 맹모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2005.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novelistic transformation of Hwangjinee folk tales

Park, Su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urposed to review the literary accommodation and transformation of Hwangjinee folk tales by Hwangjinee novels that have the same descriptive context among many genres that accommodated Hwangjinee folk tales in order to reconfirm the meaning of Hwangjinee folk tales in terms of the history of accommodation and their value as a classic.

The stories of Hwangjinee appearing in literary folk tales and oral folk tales were subdivided in accordance with her life into stories regarding her status and birth, stories regarding her intelligence and beauty, stories regarding the persons she had relationships with and the final record to review the stories. Through this way, the total aspects of the character Hwangjineecould be understood.

While minutely organizing and supplementing Hwangjinee folk tales, this author reviewed how such descriptive streams were reflected in Hwangjinee novels written during the modern times and the contemporary times from a classical angle of sight.

The processes of development of Hwangjinee novel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of time for study. The image of

Hwangjinee appeared in novels written in the 1930s–the 1950s show similar appearances to those in the contents of the folk tale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folk tales into a novel in 『Hwangjinee』 written by Lee, Tae-Jun in the 1930s was reviewed in the stream of history novels at that time and then works in the 1950s, 「Hwangjinee’s crossing against heaven」, a short story by Park, Jong-Hwa and 『Hwangjinee』, a full-length novel by Jeong, Han-Suk were reviewed. Park, Jong-Hwa shaped the original form of the folk tales as they were into a novel and the work of Jeong, Han-Suk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serial novels. Hwangjinee novels since the 1970s have succeeded the tendency of the early novels to develop while succeeding and transforming Hwangjinee folk tales. The pattern of these changes was identified through analyses of works of Chio, In-Ho; Han, Mu-Suk and Jeong, Bi-Seok. After 2000, Hwangjinee novels began to appear in diverse forms and this was identified through analyses of works of Kim, Tak-Hwan· Jeon, Gyeong-Lin· Hong, Seok-Jung. Although these three works embodied the same character, Hwangjinee, each writer showed a viewpoint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s. Instead of the stereotyped image of a talented Korean geisha, Hwangjinee was reinterpreted as diverse figures such as a scholar and free person, a heroin of love etc.

It could be identified that, through this, the tradition of the original source, Hwangjinee folk tales has consistent vitality even in the contemporary times and that all writers were perceiving Hwangjinee folk tales as the important matrix of their works.

Hwangjinee literature has not just existed as a story but

reflected the universal value and ideology of society at that time as well as having intercourse with many genres to make organic relationships and change. It was identified that the figure named Hwangjinee has been continuously enjoyed surpassing times not only through the works created by Hwangjinee herself but also literature that recorded her life and works directly and indirectly. Based on the original source, Hwangjinee folk tales, writers in the contemporary times reconstructed the world of works by Hwangjinee and the trail of her life and reproduced novels by exerting literary imaginations. That is, Hwangjinee folk tales and novels have been diffused into diverse media such as movies and dramas thereby becoming the motive power to enable Hwangjinee literature to have unceasing vitality. This course tells us that literature is a genre that goes through steady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s to be placed on a continuous line instead of severance between classics and contemporary works.

Especially, Hwangjinee literature is a fruit that reflected diverse realities of times in the course and contains deep understanding and sympathy about humans. Through Hwangjinee literature that is unceasingly reproduced along with tim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figure from 500 years ago named Hwangjinee was a being with vitality that unceasingly cast meanings to readers and that she had obvious literary value that can be continuously enjoyed hereafter too.

Key words: Hwangjinee, Hwangjinee folk tales, Hwangjinee novels, Hwangjinee literature, Lee, Tae-Jun, Kim, Tak-Hwan, Jeon, Gyeong-Lin, Hong, Seok-Jung

